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장정아 권희정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 협력연구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장정아 권희정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 협력연구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

【동북아 문화공동체 특별연구위원회】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위원장	김광억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위원	김우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전영평	대구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정진곤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정하미	한양대 일본언어·문화학부 교수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흥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본 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8개 국책연구기관과 3개 기관이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8개 국책연구기관과 3개 기관이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요 약

Ⅰ. 서 론

20C. 후반부터 세계 곳곳에서 탈국가적 공동체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동북아 지역에서도 폭력과 갈등으로 점철된 근대 역사의 모순을 극복하고 세계화 질서에 걸맞은 새로운 지역 공동체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민족국가를 넘어선 새로운 공동체는 단순히 경제 교류나 제도적 통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국가의 틀 안에 머물러 있던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탈 국가적 차원으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진전될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탈국가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문화적, 역사적 상징을 발굴하고 소통하는 작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특히 국가 지배체계에서 간과되었던 문화주체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공동체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있어 문화생산 및 소통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량을 확인하고 여성문화가 지니는 공동체적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여성문화 가운데에서도 본 연구는 동북아 여성의 역사와 문화에 의미 있는 유·무형의 상징, 즉 여성문화유산에 주목하여 동북아 지역 공동체 추진에 있어서 여성문화유산이 지니는 가치를 파악하고 초국가적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가치를 발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에 진행된 1차 연도 연구에서는 여성문화유산의 개념을 정의하고 다양한 유형의 여성문화유산 가운데 직조공예를 중심으로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과 중국, 일본의 직조공예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여성문화유산이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여성문화유산

은 동북아 여성교류의 자원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평등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매개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차 연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네트워크의 구축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였다. 우선 동북아 3개국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일반적 관심과 이해 수준을 가늠하고 탈 민족국가적 관점에서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의 변화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지배적 인식의 변화를 위한 실천 주체로서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의 구축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할 각국의 주요 기구와 단체 활동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일반적 인식의 변화 가능성과 조직 역량을 바탕으로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의 구축방향을 모색하였다.

Ⅱ.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변화 가능성

동북아 각국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일반적 관심과 이해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각국의 공식 역사담론의 핵심을 구성하는 국사, 세계사 교과서에 대한 성 분석을 통하여 국가 역사와 세계사의 전개 과정 속에서 여성에게 부여되는 위상과 그들이 만들고 계승해온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평가의 방향을 가늠하였다.

그 결과, 한·중·일 공히 역사의 속에서 여성은 그림자와 같이 드러나지 않는 존재이거나 드러나더라도 민족의 수난 내지 구원, 국가의 발전과 관련해 지극히 제한적 위상만을 인정받거나 부정적 역할만이 강조되는 경향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식담론 하에서 역사 주체로서 여성의 위상을 표상하고 그들의 삶과 경험이

녹아있는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일반적 의식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역사 전개과정에서 여성들이 물질적, 의미론적으로 만들고 가꾸어온 유무형의 상징이 문화유산으로서 충분한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부여받기는 힘든 실정이다.

특히, 동북아 차원의 역사적 흐름과 관련해서는 정치, 사회, 사상, 문화 등 각 방면의 남성거장들을 중심으로 동북아 각국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역사가 발전되어 온 점만이 제시되어 있는데 비해, 여성들은 민족별로 철저히 구분된 세계 속에서 제한된 역할만을 하면서 동북아의 역사적 흐름과는 무관하게 존재해온 것으로 당연시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자국 이외의 동북아 여성은 역사의 장에 존재했다는 점 자체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시적이어서 역사 속 한국 여성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일반시민들의 인식, 중국과 일본 여성들의 역사적 삶에 대한 한국인의 이해 수준은 백지 상태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동북아 역사를 만들어온 여성들의 존재는 전혀 인식되지 못한 채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3개국 중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일본이나 중국 여성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족의 피해자'나 '게이샤' 등 힘없는 피해자 또는 남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 등 단순한 형태로 스테레오 타입화되거나 서태후와 같이 역사의 걸림돌 정도로 표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 교과서는 역사의 격자를 짜 왔던 수 많은 여성들을 무시하는 한편, 오직 '민족', '국가'와의 관련 속에서만 여성의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고 자국을 벗어난 다른 국가 여성들은 철저히 무시하는 민족주의 담론에 입각해 있다. 이러한 교과서를 통해 교육받은 동북아 각국의 시민들이 국가의 틀을 벗어나 역사 속의 여성의 발자취를 통해 동북아의 미래비전을 형성하고 공동체적인 가치를 발견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북아의 역사와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실천을 통해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미 동북아 각국에서는 학계와 시민단체,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 여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형성, 확산하기 위한 실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적극적 역사주체로서 여성의 위상과 이를 표상하는 유·무형의 상징, 즉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아직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제한된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관심이 점차 국경을 넘어 동북아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한일여성공동교재편찬위원회'와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를 포함해 탈국가적 관점에서 동북아 역사를 조명하는 작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이 본격화되면 여성문화유산을 통해 동북아 다른 국가 여성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의 삶과 역사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동북아를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탈민족국가적 관점에서 동북아의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배와 갈등으로 얼룩진 동북아 역사 속에서도 여성들이 민족적 분리를 넘어 연대를 추진한 역사적 사실이 발굴되어 널리 알려지면서 평화롭고 평등한 동북아 공동체의 구현을 위한 실천의 뿌리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Ⅲ.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추진 역량

역사주체로서 여성의 위상과 여성문화유산의 존재와 가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실천을 통해 새롭게 재생산될 수 있다. 또한 여성문화유산을 통해 동북아를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성 중심적 문화유산담론 속에 묻혀있던 다양한 여성문화유산를 발굴하고 그 역사적 의미, 특히 동북아 차원에서 지니는 가치를 구성하며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실천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그 범

위와 발전 속도가 좌우될 것이다.

동북아 각국에서 이러한 실천의 활성화 정도와 동북아 차원의 네트워크로의 발전 가능성을 여성문화유산과 관련해 사업이나 활동을 벌인 바 있는 주요 기구와 단체를 중심으로 점검하였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선 중국에서는 최근 민간문화유산 발굴·보호에 대한 정부 주도의 사업이 활발하고 대중적 관심도 현저히 높아지는 가운데 여서(女書)나 전지(剪紙) 등 일부 여성문화유산가를 발굴, 보호하려는 활동이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은 문화를 통한 중화민족주의 고취라는 분명한 목적 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동북아 차원의 개방적인 교류와 연대의 발전에는 어느정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딩링기념관이나 쑹칭링기념관, 추진기념광장 등 여성 관련 박물관·기념관을 보아도 모두 여성인물이라는 사실 자체로서 가치를 부여받기보다는 국가나 공산혁명에 대한 헌신과 애국충정과의 연관 속에서 비로소 기념할 만한 인물로 가치가 부여되고 기념되고 있다. 그리고 섬서사범대학(陝西師範大學)에 현재 건설 중인 중국 최초의 부녀문화박물관(婦女文化博物館) 또한 중요한 여성문화유산 관련 소장품을 전시할 예정이지만 '역사 속의 여성'이라는 분류에서 보이듯이 철저하게 공산혁명과의 연관 속에서만 여성의 역사적 위상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 정치적 성격과 한계가 분명하다. 이밖에 위안부기념관도 지어질 예정이지만, 위안부 문제를 통해 한-일간 여성연대를 키워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교류와 연대의 기반으로 삼기 보다는 반일감정에 기초한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학문연구 분야에서는 최근들어 부련 지배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개방적인 활동을 펼치고 그 결과를 국제적으로도 교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양성시야(兩性視野)가 형성되는가 하면 천진대학 부녀연구중심, 북경대학 중외부녀문제연구중심 등이 여성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동북아교류의 중요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민간단체들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빈곤여성의 수입원 창출 차원에 집중되어 있어 역사 속 여성의 위상을 재조명함으로써 새로운 젠더관계를 모색하려는 한국이나 일본의 민간단체와는 접근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 주요 여성문화유산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여서와 전지는 사실 다소 중국의 특수한 문화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중심으로 동북아 차원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이 이뤄지기는 어렵지만, 일본에서도 여서 관련 연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과 한국에도 각각 여성들에게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문자와 문학 장르라 할 만한 언문(諺文)과 카나문학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술적 교류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호이해를 통해서만 공동체를 향한 교류가 진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각 국가의 독특한 여성문화에 대한 상호이해기회를 넓히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중국에 비해 일본에서는 아직 '여성문화유산'이란 개념이 가시적으로 정착되지는 않았으며 특히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은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히구치 이치요와 같은 여성거장에 대한 관심이 장기간 성장해오면서 '이치요 마츠리'가 열리고 화폐에도 등장할 정도로 여성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몇몇 요소들에 대한 관심은 상당한 수준에 달해 있다. 또한 여성들이 전승해온 전통 공예와 타카라즈카 등에 대한 관심도 높으며 남성들이 점유해오던 생산자 단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생산자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점은 오히려 동북아 지역 가운데 앞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는 국내외 여성사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여성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연구자와의 교류도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중국여성사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아 1970년대에 이미 '중국여성사연구회'가 결성되어 꾸준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여서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

자들이 자체 '중국여문자연구회(中國女文字研究會)'를 결성할 정도로 관심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직조와 자수 등 여성들이 생산, 계승해온 물질문화 유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 1970년대부터 꾸준히 교류를 추진해오고 있다. 다만 관심이 미적인 차원에 집중되어 있어 문화유산을 만들고 계승해온 한국과 중국 여성들의 삶과 역사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로서는 한계가 있다.

동북아 공동체의 진전에 있어 무엇보다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고(故) 마츠이 야요리씨를 중심으로 일본의 진보적 여성단체들이 민족적 분리를 넘어 아시아 차원의 네트워크를 지향해온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여성단체와 연대를 형성한 것을 계기로 점차 동북아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여성들의 삶 전반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면서 인권과 평화가 보장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실천을 다각적으로 벌여나가고 있어 여성문화유산에 관한 동북아 네트워크에서도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여성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나고 조직적 역량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성사 연구의 지평이 확산되고 여성사 전문 학회가 발족하는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문화유산을 의제로 채택하였으며 여성문화유산에 특화된 박물관·전시관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주요 여성단체에서도 여성의 삶을 제약하는 환경 속에서도 역사의 주체로서 꿋꿋한 삶을 살았던 여성인물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축제나 관광을 조직하는 등 새로운 젠더 문화의 비전을 제시하는 상징으로서 여성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 확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조직적 기반과 함께 지식정보DB 구축과 온·오프라인 박물관·전시관, 교육프로그램이나 축제, 관광 프로그램

도 기획, 추진되는 등으로 사업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여성문화유산을 둘러싼 조직적 실천 역량의 강화와 더불어 동북아 차원의 교류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는데, 특히 탈 국가적 관점에서 한-일 여성사에 관심을 가진 학술 모임이 형성되고 중국 여성사에 대한 관심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또한 주요 여성단체들은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동북아 여성들과 함께 고통의 역사를 딛고 평화롭고 평등한 새로운 동북아의 비전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한-일 여성들의 역사적 삶에 대한 공동 역사교재 편찬 작업도 추진하는 등 여성의 관점에서 공식 역사 담론을 재구성하기 위한 실천을 벌임으로써 탈국가적 지역 공동체를 향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북아 차원의 교류는 제한된 연구자와 단체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준이며, 각계의 조직적 역량을 충분히 살려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깊이 있게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몇몇 연구자나 단체를 제외하고는 민족국가의 틀 속에서 여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의미를 형성하는데 집중되어 있어 동북아 다른 국가 여성들의 역사와 삶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점도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의 진전속도를 늦추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민족국가 역사담론의 지배적인 영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문화유산을 둘러싼 동북아 교류가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탈 민족국가적 관점에서 여성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자간, 특히 일본과의 학술교류, 단체교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비해 중국과의 교류는 크게 제한되어 있는 것도 동북아를 포괄한 네트워크를 지향하는데 해결해야할 부분이다.

3개국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는 동북아 각국 내부에서

여성사 연구의 지평이 확대되고 여성문화유산을 의제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민간의 활동, 전문 박물관의 설립 등과 함께 여성문화유산 개념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과 중국에서 일부 여성인물과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관심을 토대로 한다면 일부 인물이나 무형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교류는 현재로서도 별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차원의 교류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고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로 진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동북아 각국에서 일고 있는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의 앞길에는 중요한 장애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자국의 여성문화유산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 국가나 동북아 차원의 여성사에 진정한 관심을 가진 이들은 크게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강력한 민족주의 문화유산 담론이 동북아 차원의 네트워크를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중심의 교류는 피상적 차원을 넘어서기 힘들 것이며 민간 부문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하지만, 중국 사회체계의 특수성 상 민간단체가 약한 만큼 단기적인 실효성을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찾아볼 수 있다. 현재 각국의 여성사 연구자들과 비교적 진보적인 민간단체에서는 여성문화유산을 새롭게 재구성하면서 국가 경계와 민족적 분리를 넘어 동북아 차원으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만큼, 이들이 선도적 역할을 한다면 동북아 차원의 여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에 결정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학계와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중국의 학계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출발하여 점차 참여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여성사 연구 교류 모임과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형성과 같이 동북아 네트워크를 향한 시도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의 학자와 활동가가 참여한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편찬위원회'와 동북아 3개국의 학자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맺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모델로 하여 탈국가적 관점에서 여성문화유산을 재구성하고 그 의미를 확산하는 작업을 시도한다면 민족적 분리 구도 속에 존재하는 개별국가 시민들이 '동북아'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동북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Ⅳ.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 방향

1. 기본방향

여성문화유산 교류가 동북아 차원의 탈 국가적 공동체에 의미 있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류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양자간 교류를 중심으로 했던 데에서 벗어나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다자간 네트워크를 모색해야 할 것이며, 민족국가 역사의 틀 안에서 발굴되고 의미가 형성된 각국의 일부 여성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동북아 차원의 탈국가적 관점에서 여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다양한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탈국가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류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 자원, 즉 인적 네트워크와 기관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 정보 등을 기초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네트워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탈국가적 차원의 여성문화유산 교류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심점을 중심으로 여성문화유산에 관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각국의 기관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점과 관심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고 학술연구에서부터 교육, 전시, 관광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이질적 성격의 기관과 단체가 긴밀한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대안으로 동북아 각국의 여성문화유산에 관한 정보와 활동 프로그램, 이를 추진하는 기구와 단체들 간의 협력과 연대를 포괄하는 느슨한 협력망으로서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를 고려할 수 있다.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는 동북아 지역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정보를 포괄하는 네트워크(지식콘텐츠 네트워크)와 이와 관련된 교육, 전시, 관광, 축제 등 프로그램 네트워크(프로그램 네트워크)와 같은 기능 중심의 네트워크와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는 기관과 단체간 네트워크(기관 네트워크)로 구성될 수 있다.

이 가운데 현재 동북아 각국의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의 깊이와 관점의 형성, 동북아 차원의 교류 경험 등으로 판단할 때 기능 내지 활동 중심적 네트워크와 기관 중심적 네트워크를 동시에 추구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 보다는 지식콘텐츠 생산과 활동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네트워크 기반을 확립하여 차츰 기관 네트워크로 발전시키는 단계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식콘텐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국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 차원에서 의미 있는 여성문화유산을 발굴하며 그 의미를 형성함으로써 동북아 여성문화 네트워크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콘텐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연구교류가 활성화되어

탈국가적 공동체의 진전에 의미 있는 여성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정보가 축적됨에 따라 그 기초 위에서 여성문화유산에 관련된 기관과 단체, 전시관들은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을 테마로 한 교육이나 전시, 관광, 축제 프로그램을 추진하거나 동북아 차원의 공동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 각국의 기구와 단체는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한되어 있고 또 민족국가의 틀을 벗어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 네트워크를 직접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지식콘텐츠 네트워크와 프로그램 네트워크 등 프로젝트 중심적 네트워크를 통해 동북아 차원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공통적 접근의 가능성이 모색되고서야 정부와 민간을 포괄하는 다양한 기구와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2. 부문별 방향

가. 지식콘텐츠 네트워크

지식콘텐츠 네트워크는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의 연결망으로서 각국의 여성사 학술단체와 여성문화유산 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결성된다. 네트워크에서는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여성문화유산의 존재와 그 역사적 가치, 문화적 의미에 대한 지식기반을 제공할 뿐 아니라,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상상'하는 계기를 될 만한 다양한 여성문화유산 발굴하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작업은 각국의 여성사 연구관심을 교류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는 데에서 출발하여 점차 공통 주제에 대한 비교연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민족국가

의 틀에서 접근되던 여성문화유산을 탈국가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하는 것이 관건으로서 한편으로는 탈국가적 관점에서 여성인물이나 집단의 존재를 조명하고 그와 관련 다양한 여성문화유산 발굴하여 공통점 찾으려는 노력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동북아 문화교류 주체로서 여성의 위상을 표상하는 여성문화유산을 발굴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식콘텐츠 네트워크에서는 동북아 여성들이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과 역사 과정 속에서 특수한 삶을 살아왔다는 점에도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민족적 단일성을 추구하는 국가공동체와 달리 탈국가적 공동체는 역사적 특수성의 이해와 문화적 다양성의 증진을 기초로 형성,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식콘텐츠 네트워크에서는 서로 비교 가능한 여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동북아 여성들의 삶과 역사적 경험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문화교류를 이끌어왔던 여성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민족국가의 틀을 넘어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서로 연결된 동북아를 '상상'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각국의 여성들이 만들고 계승해온 다양한 여성문화유산이 지니는 풍부한 의미를 이해하고 인정함으로써 다양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공동체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성 인지적(gender sensitive) 관점을 통합한 탈국가적 역사담론을 형성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동북아 3개국의 학자와 시민이 공동으로 민족국가의 틀을 넘어 동북아의 역사를 바라본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의 여성 학자와 단체 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여성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근현대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최근 그 성과물인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를 발간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성과를 한층 발전시켜 동북아 역사 전반을 통괄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역사를 재구성하고 이를 확산할 수 있는 교재 등 다양한 매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작

업이 네트워크의 주된 과제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프로그램 네트워크

프로그램 네트워크는 여성문화유산에 특화되었거나 그와 관련해 사업을 전개하는 단체나 전시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여 프로그램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참여하며, 나아가 동북아 차원의 공동 교육이나 축제 또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는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과제는 일부 여성문화유산의 외형적 측면만을 피상적으로 경험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기존 교류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탈국가적 관점에서 구성된 여성문화유산 지식콘텐츠 가운데 핵심적 여성문화유산을 발굴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동북아 차원의 문화교류를 이끌었던 여성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면서 관련된 유적과 유물을 경험하는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루트' 를 설정하거나 지도를 제작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예: "직녀루트" 내지 "봉의공녀루트") 또한 동북아 각국의 여성 거장을 한자리에 모아 제시하는 시리즈 전시를 기획하거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연대를 추진했던 여성인물의 유물을 각국을 돌며 전시하는 프로그램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동북아 각국의 여학생들이 함께 모여 여성문화유산의 의미를 되새기고 여성의 눈으로 동북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해보는 [동북아의 할머니와 딸들 캠프(가칭)]도 고려해봄직하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동북아의 관련 기구와 단체가 공동으로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작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다. 기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허브

지식콘텐츠 생산과 프로그램 교류가 장기적, 체계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여성문화유산 관련 기구와 단체가 공히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확고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는 프로젝트 차원의 교류를 통해 성장한 네트워크 자원, 즉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정보 생산에 상호 협력하면서 형성된 학회와 연구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했던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출발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각국의 여성문화유산 정책을 추진하고 동북아 차원의 공동정책을 담당해야 할 정부기구 네트워크가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동북아 각국 정부의 여성문화유산정책의 수준을 볼 때 프로젝트 차원의 네트워크에서는 학계나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부 기구가 적극적 역할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식콘텐츠생산과 프로그램 기획,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의 발달과 함께 정부의 여성문화유산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담당부처가 지정되고 정책 방향도 명확해진다면 향후에는 정부기구간 네트워크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각국 정부기구와 민간단체, 학회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에서는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방향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며 네트워크의 주요방향이 국내의 정책과 사업에도 통합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가 동북아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를 포괄하여 탈국가적 차원에서 여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의미를 형성, 확산하기 위한 다각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차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구도 필요하다. 중

심기구는 네트워크 참여 기구를 연결하면서 지식콘텐츠 생산과 공동 프로그램 추진 등을 총괄하고 관련 기구와 단체가 참여하는 정기 협의회를 조직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각국의 기구와 단체 정보, 프로그램 정보 및 지식콘텐츠 네트워크의 성과를 토대로 한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지식정보 DB(가칭)] 등을 구축하여 동북아 전역에 확산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Ⅴ. 향후과제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는 동북아 3개국의 관련 기구와 단체, 전문가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에서 비교적 균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역량도 빠르게 갖추어져 가고 있다. 특히, 동북아 네트워크에서 핵심을 할 학계와 민간단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민족국가를 넘어 관심의 지평을 넓히려는 움직임도 활발한 만큼, 네트워크 구축에 특히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1.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심화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는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진전에 활용될 네트워크 자원으로서 여성문화유산의 가치 발굴과 확산을 추구하는 만큼, 다양한 여성문화유산을 통해 동북아를 무대로 살아왔던 여성들의 역사적 발자취와 생활경험에 접근함으로써 동북아를 '상상'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여성문화유산으로 관심의 범위를 넓히고 물질적 차원 뿐 아니라 의미론적 부분까지 관심의 깊이를 더해야 할 것이다.

2.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탈국가적 접근의 활성화

여성문화유산이 민족국가에 의해 구분된 동북아가 아닌 다양한 교류를 통해 연결된 동북아를 '상상'할 수 있는 상징적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탈국가적 관점에서 여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실천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간 일부 전문가와 여성단체에서는 일본 측 학자나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민족국가의 틀을 벗어나 동북아 역사의 전개 속에서 여성의 위상을 정립하고 그와 관련된 주요한 유무형의 상징을 발굴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민족국가의 틀 속에 머물러 민족역사의 전개과정에서 의미 있는 여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의미를 형성하는데 주력했을 뿐, 동북아 다른 국가의 여성문화유산이나 동북아 차원의 교류과정에서 형성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가족이나 민족을 더 이상 기의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포함되지 않는"(김은실 1994:42) 민족국가 중심의 역사담론 하에서 생겨난 것으로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를 포함해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진전을 저해하는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는데, 우선 인식의 지평을 동북아 차원으로 확대하여 다른 국가의 여성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여성문화유산과의 비교를 통해 여성들의 삶과 역사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한편 다양성을 이해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점차 탈 민족국가적 관점에서 여성문화유산의 존재를 발굴하고 가치를 형성하는 작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동북아 여성', '동북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야 할 것이다.

3. 다자간 교류 역량 강화

여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교류는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비해 중국과의 교류는 학계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시도되는 단계에 있다. 동북아 근대사에 있어 일본의 위치를 고려할 때,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공동체의 진전을 저해하는 역사의 걸림돌을 낮추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 동북아 차원의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발전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집중되어 있던 교류의 범위를 넓혀 중국의 여성사 학계와 여성문화유산 관련 단체, 전시관 등과의 교류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중·일이 공히 참여하는 동북아 차원의 다자간 교류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

4.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정보 축적

여성문화유산을 통해 서로 연결 동북아를 '상상'할 수 있으려면 각국의 다양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정보의 축적과 함께 동북아 차원에서 의미 있는 유산을 발굴하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적, 시대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지식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갈 주체로서의 여성의 위상을 제시하고 그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성문화유산을 발굴하는데 있다.

이와 함께 여성문화유산에 관해 국내외의 학계와 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렴, 확산할 수 있는 기제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사 전시관의 [여성사 아카이브]나 한국여성개발원이 구축한 [한국여성사 지식정보DB] 등을 기초로 하여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DB]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5. 여성문화유산정책의 확립과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의 정책 의제화

그간 여성문화유산과 관련된 교류는 민간부문의 전문가와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에 비해 정부의 역할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체계적인 기반 위에서 동북아를 포괄한 네트워크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노력 이외에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은 지극히 미약한 상황이며 최근 들어 추진기반이 더욱 약화되고 있어 정책 방향의 수립과 정책추진체계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 차원의 여성문화유산 중심기구로서 여성사 전시관의 위상을 확립하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네트워크 허브로서의 기능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일부 여성문화유산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단계를 넘어 동북아 차원의 여성문화유산을 정책범주에 통합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의 목적에 맞는 학술 연구나 민간단체의 프로그램, 동북아 차원의 협력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프라, 즉 정보 DB와 함께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기반을 갖추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서 여성발전기금이나 국제교류기금 등을 활용하거나 동북아 여성교류를 위한 별도의 [동북아 여성문화기금(가칭)]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의 본격적 발전에 대비해 허브기능을 담당할 수 기구를 설치, 육성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 [여성사 전시관]을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박물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를 기획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동북아 대중들이 각국의 여성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의 삶과 역사의 다양성과 공통점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평화롭고 평등한 동북아 미래에 대한 비전을 형성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이다.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 3
2. 연구 필요성과 목적 ····· 8
3. 연구 내용과 방법 ····· 12

Ⅱ. 탈국가적 문화공동체의 형성과 여성문화유산 ····· 17
1. 민족국가의 형성과 문화유산 ····· 19
2. 탈국가화의 전개와 문화유산의 재구성 ····· 22
3. 여성문화유산의 부상 ····· 26
4. 탈국가적 공동체의 진전과 여성문화유산의 새로운 모색 ····· 32

Ⅲ. 역사 교과서를 통해 본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의 위상 ····· 39
1. 각국의 공식교과서에 나타난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 41
2. 탈국가적 움직임과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의 변화 가능성 ····· 112

Ⅳ. 여성문화유산에 관한 동북아지역의 조직 역량 ····· 121
1. 한국 ····· 124
2. 중국 ····· 148
3. 일본 ····· 173
4.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조직 역량 ····· 189

Ⅴ.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방향 ····· 199
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변화 가능성 ····· 202
2.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추진 역량 ····· 204

3.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 방향 ····· 205
4. 향후과제 ····· 215

참고문헌 ····· 221

부 록 ····· 231

표 목 차

〈표 Ⅱ- 1〉 역대 '이달의 문화인물' 중 여성인물 ····· 23
〈표 Ⅱ- 2〉 캐나다 정부의 '여성사의 달'주제 (2000-2004) ····· 28
〈표 Ⅳ- 1〉 여성문화유산 관련 기관·단체 유형 ····· 123
〈표 Ⅳ- 2〉 여성문화유산 관련 주요기관·단체: 한국 ····· 124
〈표 Ⅳ- 3〉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중 여성문화 유산관련 정책과제 및 추진성과 ····· 126
〈표 Ⅳ- 4〉 「창의한국(2004-2008)」중 여성문화유산관련 정책 과제 ····· 129
〈표 Ⅳ- 5〉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문화유산관련 정책과제 ····· 130
〈표 Ⅳ- 6〉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추진성과 ····· 131
〈표 Ⅳ- 7〉 여성문화유산관련 사업 사례: [역사 속의 그녀들을 찾아서] ····· 132
〈표 Ⅳ- 8〉 특정 여성문화유산관련 전시관 ····· 138
〈표 Ⅳ- 9〉 여성단체의 여성문화유산관련 활동 사례 ····· 145
〈표 Ⅳ-10〉 여성문화유산 관련 주요기관·단체: 중국 ····· 150
〈표 Ⅳ-11〉 여성문화유산 관련 주요기관·단체: 일본 ····· 174
〈부록-1〉 중국 민간문화유산 구조 긴급공정(中國民間文化遺産搶救工程)의 목적과 의의 ····· 231
〈부록-2〉 중화전국부녀연합회 ····· 231
〈부록-3〉 중국부녀연구회 개요 ····· 232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연구 목적 ····· 9
〈그림 Ⅲ-1〉 역사교과서의 성 분석 내용 ····· 42
〈그림 Ⅳ-1〉 여성문화유산지도((재)서울여성 제작) ····· 133
〈그림 Ⅴ-1〉 여성문화유산 교류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 ····· 205
〈그림 Ⅴ-2〉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 ····· 207

I

서 론

1. 연구 배경

인간은 특정한 범주의 타인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존재를 확인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류의 역사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재구성하며 그에 따라 기존의 사회적 기능이 새로운 공동체에 의해 대체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초기 역사에서는 가족과 마을 등 혈연과 경험적 지연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인간들이 직접적인 면대면 관계를 기초로 일차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사회를 구조화하였다가, 점차 정치적 발달과 함께 경험적 차원을 넘어선 집단이 사회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근대 민족국가의 발달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을 보여준 역사적 계기였다.

20세기말부터 세계는 흔히 민족국가와는 근원적으로 다른[1] 새로운 공동체 형성 국면에 접어들어서 있다. 그 징후는 세계시장의 형성과 이데올로기 장벽의 철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적, 물적 자원과 정보, 지식이 민족국가를 초월해 이동하면서 민족국가를 단위로 했던 정치·경제·사회 체계가 쇠퇴하고 있는 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때 단단한 경계 내에 동질적 집단이 거주하는 것처럼 보였던 민족국가 내에는 이산(diaspora)을 통한 이주민집단이 공존하게 되었으며 끊임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인적자원과 그들이 생산한 물품과 서비스, 지식의 산지는 더 이상 특정 국가로 명시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전개 속에서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공동체, 즉 초국가적 공동체 또는 탈국가적 공동체(transnational community, supranational community, postnational community)를 형성하기 위한 시도가 유럽을 위시해 동남아시아와 미대륙 등 세계 각지에서

---

[1] 이에 대해 Apparadui(1990)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과거와의 일반적 단절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서구의 고전적 근대화 이론이 아닌 단절(rupture)의 이론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행되고 있다. 국가간에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경제교류나 군사협력을 넘어서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걸쳐 국경을 초월한 유기적인 연결망을 발달시키는 한편 EU나 ASEAN과 같은 공동의 연합체를 통해 초국가적 공동체를 형성할 핵심적 매체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비해, 동북아 지역에서는 초국가적 공동체 형성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로 인해 일본과 한국, 중국 간에는 역사인식에 결정적 균열로 인해 상호 관계를 발달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데올로기 냉전의 요소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간혹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한요인 때문에 동북아에서 초국가적 움직임은 지연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바로 이런 요인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서 초국가적 공동체의 형성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세계화 조류 속에서의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의 활로를 모색하는 차원을 넘어 분열과 전쟁으로 얼룩진 과거 동북아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미래비전을 형성하려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초국가적 공동체의 중요성은 인식되기 시작하여 공적인 차원에서도 그 기반을 닦기 위한 시도가 각국에서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 들어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면서 동북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03년 4월 설립된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동북아에서 번영과 통합의 질서를 구현하고 EU와 같은 지역통합과 공존의 질서를 발전시키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를 물류와 금융, 산업혁신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동북아 공동체 구축을 위한 정책은 주로 물류기지 구축과 IT인프라 구축 및 첨단산업, 부품·소재산업 육성, 관광육성, 금융시장

의 인프라 확충 및 선진화 등 경제적 차원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에 비해 문화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제한되었다. 단지 국가간의 긴장, 특히 경제 교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문화교류의 중요성이 지적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적 관심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초국가적 공동체 형성에 있어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동북아지역 저변에 이해와 협력의 기반을 뿌리내리기 위한 문화적 접근을 모색하며 이를 기초로 초국가적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까지는 관심이 전혀 미치지 못했다. 2004년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가 동북아시대위원회로 개편되고 그 산하에 사회문화협력전문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적 접근의 가능성은 한층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책방향조차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경제적 통합과 군사적 협력, 제한된 문화교류만으로는 초국가적 공동체 형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민족국가 형성의 역사를 되짚어 본 앤더슨(1991)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동체는 공통의 지배체계와 제도를 통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언어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적 상징을 서로 소통하면서 자신들을 어떤 끈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로 상상함으로써 구성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경제적 교류나 제도적 통합만으로는 동북아 지역이 하나의 공동체로 확립될 수 없으며 오직 문화적 상징의 소통을 통한 상상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동북아 지역보다 앞서 초국가적 공동체 형성을 추진해 왔던 유럽과 동남아시아, 남미 등지에서도 경제교류 및 제도적 통합과 함께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적 인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경제적 통합과는 별도로 유럽사회의 통합성을 증진하고 유럽인들이 이를 인식하도록 하는 데에는 예술과 문학, 문화유산 등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일찍이 60년대 후반-70년대 초반부터 문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활동과 문화유산보호 등에 대한 각종 결의안을 채택하고 문화발전을 위한 공동활동을 전개했으며, 1987년 문화분과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유럽공동체의 문화를 위한 새로운 후원(A Fresh Boost for Culture in the European Community)]에 입각해 유럽공동체 차원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문화활동은 회원국 차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전유럽인들의 일반적인 문화적 가치를 고양하는 이중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는 [공동체 문화활동을 위한 새로운 전망(New Prospects for Community Cultural Action)]에도 명시되어 있다: "문화활동이 국가적, 지역적 문화의 주체성을 꽃피우는데 기여하며, 이와 동시에 그들의 문화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전유럽인들이 일반 문화유산과 가치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의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에서도 문화유산은 특별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문화유산은 각국의 역사와 유럽의 역사에 대한 이해의 기초가 되며, 유럽의 문화개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유산은 비회원국들과의 협력의 기반을 제공하여 전세계에 걸쳐 유럽문화의 영향력을 넓히는 데에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유럽연합에서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라파엘(Raphael)프로그램을 설치해 각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홍보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유럽차원의 유산보호분야의 상호협력을 장려하고 지식 전문화 및 실천의 연대를 도모하기 위한 360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라파엘 프로그램은 유럽 각지의 유무형의 유산에 대한 유럽인들의 보다 폭넓은 지식을 배양하고 유럽시민으로서의 확신을 증진하며 상호 이해와 실천을 통한 유럽의 잠재력을 확인함으로써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Richards 2000: 129-131; http://europa.eu.int/comm/culture/eac/ culture2000/historique

/raphael_en.htm).

2000년을 계기로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은 문화유산프로그램인 라파엘과 문학프로그램인 아리안(Ariane), 예술프로그램인 칼레이도스코프(Kaleidoscope)를 통합한 '문화 2000(Culture 2000)'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 2000' 프로그램은 회원국간의 교류 차원을 넘어 범유럽적인 문화 협력을 목표로 유럽의 공통적인 문화영역을 증진하고 유럽 문화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문화의 초국가적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문화유산은 가장 핵심적인 협력 분야로서 특히 2004년에는 우선분야로 지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

이밖에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도 문화유산을 통해 초국가적 유럽 정체성을 증진하는데 적극적이다.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1960년대부터 여행을 통해 유럽문화의 인식을 확산하려는 의도에서 문화루트 개발을 고려하기 시작해 1987년부터 유럽인들이 국가와 지방을 초월해 '유럽의 역사와 예술,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사를 공유하고 유럽의 보편적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국의 문화유산테마를 연결한 '유럽문화 루트들'을 설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루트 설정작업을 토대로 다양한 교재를 발간하고 패키지 투어 상품을 개발하는 데까지 관심을 발전시키고 있다(Richards 2000: 134-135).

문화, 특히 문화유산을 둘러싼 유럽연합과 유럽의회의 정책방향은 동북아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문화적으로 공통의 기반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으나, 근대 이후의 역사적 질곡 속에서 서로 다른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과정을 거쳐 왔으며 상당기간 동안 상호교류가 크게 제한되어 있어 지리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정치적, 경제적 교류는 피상적 차원에 머무

를 뿐 초국가적 공동체 형성을 진척시키기는 힘들다. 정치적, 경제적 교류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해관계가 서로 부합할 때에는 별 무리 없이 추진되는 듯이 보이지만, 군사적 갈등이나 경제적 경쟁, 역사적 모순에 대한 문제의식의 충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심지어 교류 자체가 현저히 약화되는 사태까지 야기될 수도 있다. 일본의 배상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문제, 독도 영유권 분쟁, 북한 핵문제 등이 불거질 때마다 동북아 지역에 강건한 민족주의와 상호 적대감이 분출되는 것만 보아도 그간 추진된 동북아 교류의 한계는 극명하다.

즉각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서로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이해의 발로 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초국가적 공동체 형성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힘들다. 특히, 역사적 모순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앙금과 균열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동북아 3개국에서는 서로의 문화와 역사적 경험을 이해하고 그 기초 위에서 서로의 공통점과 다양성을 찾고 미래 공동체의 비전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될 때에야 비로소 동북아 지역 공동체의 방향과 윤곽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상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환기와 탈국가적 문화소통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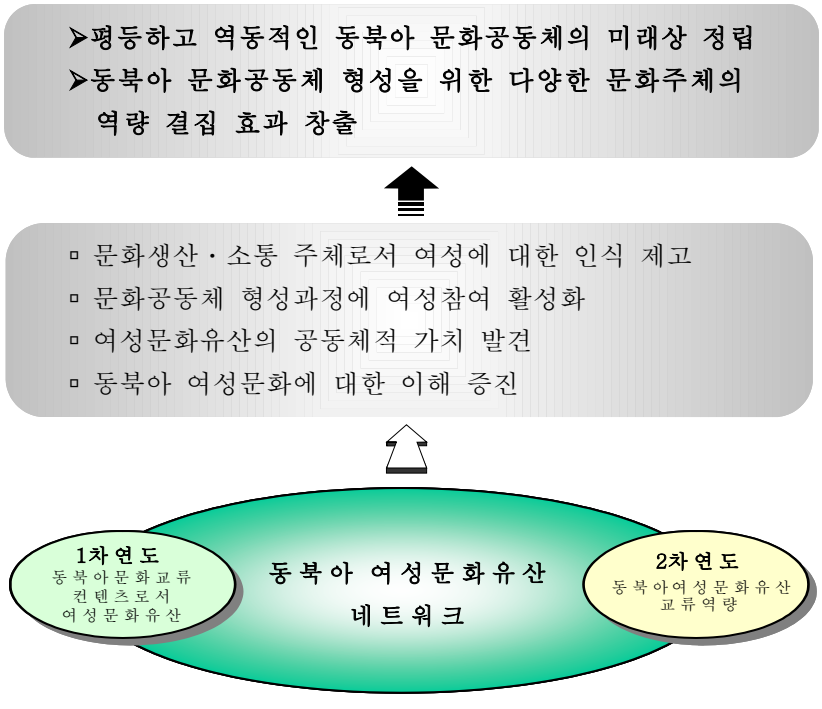
2. 연구 필요성과 목적

물론 동북아 지역에서도 국가를 넘어선 문화교류가 추진되어 왔지만, 기존의 교류는 국가를 단위로 한 정적이고 형식적인 민족문화 교류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따라서 탈국가적 공동체의 진전에 기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문화적,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상징을 발굴하고 소통하는 역동성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며, 특히 민족주의

담론 속에서 그 모습이 사라지고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여성(김은실 1994:24; 윤택림 1994)과 같은 문화주체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공동체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있어 문화생산 및 소통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량을 확인하고 여성문화가 지니는 공동체적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여성문화 가운데에서도 동북아 여성의 역사와 문화에 의미 있는 유·무형의 상징, 즉 여성문화유산이 동북아 지역 공동체 추진에 있어서 지니는 가치를 파악하고 초국가적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발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림 Ⅰ-1〉 연구 목적



여성문화유산은 과거 여성들의 삶과 경험을 밝혀주는 단서로서 동북아 여성사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핵심일 뿐 아니라, 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가는 단서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과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은 국가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제한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공식 문화의 장에서도 여성문화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지 못하는 지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여성들은 역사의 주체로서 다양한 실천을 통해 사회적으로 기여해온 바를 적극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지역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역사주체, 문화생산 및 소통의 주체로서 여성의 위상을 분명히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여성들의 활동상을 정립함으로써 동북아 젠더 문화에 대한 역동적 시각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동북아 문화공동체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질서로 탄생할 수 있는 핵심적 계기를 마련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여성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질서가 유지되는 한 진정한 의미의 문화공동체는 형성될 수 없으며 오직 문화주체로서의 여성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여성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만 평등하고 미래지향적인 공동체의 방향을 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동북아 여성협력에 있어서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지역 여성들은 북경세계여성회의 등을 계기로 교류를 진행시켜 왔으나, 대부분의 활동이 UN차원의 여성발전의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담당기구 및 주요 NGO 간의 교류에 한정되었으며 동북아 지역 여성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동북아지역의 특수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살아온 여성들 상호간의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동북아의 특수한 여성의제를 형성,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전반적인 목적 하에 2004년 진행된 1차 연도 연구에서는 여성문화유산의 개념을 정의하고 다양한 유형의 여성문화유산 가운데 직조생산을 중심으로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문화적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과 중국, 일본의 직조공예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여성문화유산이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네트워크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는 역사적 발달과정에 따라 여성 중심적 직조생산양식 자체가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와 현재 많은 차이가 있으며, 직조생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 특히 여성문화유산의 가치 형성 정도가 상당히 차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아니라 동북아 여성문화교류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국가간 차이는 각국의 특수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여성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으로 여성의 역사와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동북아 여성들의 공통점을 파악하고 향후 동북아 젠더문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가치는 단지 직조생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성역사인물이나 무명의 여성들, 그들과 관련된 다양한 유적지나 유물, 무형의 여성문화유산 등 다양한 여성문화유산이 공히 지닐 수 있다.

여성문화유산이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의 자원으로서 지니는 가치가 충분히 발현되기 위해서는 여성문화유산의 형식과 의미, 즉 콘텐츠를 발굴하는 동시에 다양한 여성문화유산의 가치를 실현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2차 연도 연구에서는 여성문화유산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일반적인 관심과 이해 수준 그리고 조직적 차원의 소통역량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여성문화유산 교류분야를 구체화하고 네트워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내용과 방법

가.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있어 문화생산 및 소통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량을 확인하고 여성문화유산이 지니는 공동체적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1차 연도(2004년)에는 여성문화유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화의 기본 틀을 정립하였으며, 직조공예에 초점을 맞추어 동북아 지역의 직조공예가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지니는 가치를 파악하고 동북아 3개국의 주요 직조 생산지를 중심으로 직조생산 현황과 여성생산자의 위상,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형성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 중, 일 3개국의 여성문화유산은 동북아 여성교류의 자원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평등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매개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관련 GO와 NGO, 전문가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연도에는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의 방향을 한층 구체화하고 실제적인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동북아 3개국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일반적 관심과 이해 수준을 가늠하고 최근 들어 탈민족국가적 관점에서 동북아 역사를 새롭게 접근하려는 시도를 중심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남성 중심적 문화유산 담론에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지배적 인식의 변화를 위한 실천의 주체로서 여성문화유산에 특화된 역내의 기구나 단체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주체의 역량을 가늠하고 주요 기구와 단체 활동 현황을 파악하여 교류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의 구축방향을 모

색하는 것이 2차 연도 연구의 근간을 이룬다.

나. 연구 방법

이상의 내용에 접근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였다. 우선 문헌연구와 온라인 정보 수집 등을 통해 동북아 지역 뿐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실천 추세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지역에서 여성문화유산 일반과 자국 및 동북아 역내 국가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중·일 3개국의 고등학교 공식 역사교과서에 대한 성 분석 내지 젠더 분석(gender analysis)을 시도하였다. 역사교과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핵심적 정보를 일반에게 제공하고 그와 관련된 대상에 대한 지배적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식 매체로서 이를 통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여성문화유산에 부여되는 일반적 인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국에서는 역사교육체계에 따라 다양한 종의 국사, 세계사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의 경우에는 채택율이 높은 교과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 한국: 국사(국정교과서), 한국근현대사(금성출판사), 세계사(금성출판사) 등 3종 3권[2]
- 중국: 중국고대사, 중국근현대사(상·하), 세계근현대사(상·하)(인민교육출판사) 등 3종 5권[3]

---

[2] 한국근현대사 검정교과서 총 6종, 세계사 검정교과서 총 3종 2004년 판매를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였다.

[3] 현재 중국에서는 중학교에서는 중국역사와 세계고대사를 이수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중국근현대사, 세계근현대사를 배우며 문과계열에서는 선택과

▫ 일본: 현대의 일본사(現代の日本史, 일본사 A), 고교 일본사(高校日本史, 일본사 B), 세계의 역사(世界の歷史, 세계사A) (야마카와(山川) 출판사) 등 3종 3권[4]

한·중·일 각국의 역사 교과서 속에서 자국의 여성문화유산에 주어주는 관심도와 표상방식, 즉 인물유형과 활동상 기술양식, 가치평가 등을 분석하는 한편, 역내 국가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와 표상방식을 파악하였다. 특히, 종래의 여성인물과 관련된 내용에 특화된 교과서 분석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여성인물 내지 집단에 특화된 내용만이 아니라 성 중립적인 개념의 해석가능성, 성차별적 요소와 성평등 지향의 실천 등에 대한 평가 등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종합적인 성 인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그리고 자국 및 역내 국가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동북아 3개국의 인식 수준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 중, 일 3개국의 학자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중일공동3국역사편찬위원회'가 2002년부터 공동작업하여 2005년 공동으로 펴낸 대안 교과서 『미래를 여는 역사』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공식 교과서는 민족주의적인 역사 서술에 충실한 경향이 짙은데 비해, 『미래를 여는 역사』는 탈민족국가적 관점에서 동북아 차원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미래 동북아 역사의

목으로 중국고대사를 추가로 개설한다. 교과서는 인민교육출판사에서 발간한 것을 비롯하여 상해교육출판사, 광동교육출판사(연해지역용), 사천교육출판사(내지용)에서 발행한 교과서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인민교육출판사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점유율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민교육출판사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기본 분석대상으로 한다.

[4] 일본사 A에는 6개 교과서 출판사에서 7종을, 일본사 B는 7개 교과서 출판사에서 11종을 출판하고 있는데, 이 중 각 주요 출판사의 출판 교과서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야마카와(山川) 출판사에서 출판된 일본사 A인 『현대의 일본사 (現代の日本史)』와 일본사 B인 『고교 일본사(高校日本史)』와 세계사 A인『세계의 역사 (世界史の歷史)』를 분석 대상 교과서로 선정하였다.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 차원의 여성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공식교과서의 관점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성의 가능성과 전망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교과서 분석 이외에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의 실질적 추진 자원인 여성문화유산 관련 주요 기구 및 단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과 인터넷, 현지통신원 등을 통해 중, 일 각국의 여성문화유산 관련 기구와 단체 목록을 파악하고 현지 방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각국의 주요 기구 및 단체의 활동 현황,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를 파악하였으며 이외에 실제 교류 사례도 수집할 수 있었다.

II

탈국가적 문화공동체의 형성과 여성문화유산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민족국가의 형성과 문화유산

공동체는 특정한 시공간 내의 인간들이 일정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공통의 경험을 지니고 있다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존재한다. 이러한 공동체는 가족이나 친족집단, 마을 공동체처럼 공통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직접적 경험을 전제하지 않고서 형성될 수도 있는데 그 대표적 예가 바로 민족국가이다. 민족국가의 성원들은 다른 대부분의 성원들을 평생 한번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도 무엇인가 공통적 요소를 통해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믿으며 다른 국가와의 경쟁이나 갈등 또는 위기 상황에서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심지어 희생을 감수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점에서 앤더슨은 민족국가를 민족이라는 집단에 기초한 실체적 공동체가 아니라 '특정민족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 위에서 형성된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로 특징 지웠다. 즉, 민족국가는 통치의 확립과 제도적 통합에 의해 생성된 것이 아니라 지방어를 기초로 한 신문 등 인쇄매체의 발달로 독서계층의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형성된 문화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문화적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들이 외부와는 분명한 경계를 지니고 내적으로는 서로 연관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친교의 느낌을 공유하게 된 것이야말로 민족국가 형성의 결정적 계기였으며 제도적 통합은 이 과정의 결과물이거나 상상을 뒷받침하는 도구였을 뿐이다(앤더슨, 1991).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민족이라는 단위를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위한 다양한 매체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지방언어에 대한 대중교육이 정착되면서 민족임 의식이 확고해졌으며, 이와 동시에 외부와 배타적인 경계를 갖고 내적으로는 일정한 동질성을 띠는 민족임을 표상하는 다양한 상징이 발달하여 민족 상상작업에 기초가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도와 문화유산, 그리고 문화유산을 일정한 내러티브 구조로 조직한 박물관이다. 이 가운데 지도를 통해 민족국

가는 공간적 배타성을 띤 단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면 문화유산은 민족을 역사적인 생명력을 갖춘, 과거와 현재, 나아가 미래까지 관통하는 존재로 인식하도록 작용했다. 이러한 상징을 통해 민족은 주위의 민족과 배타적으로 구분된 독립적 실체로 인식되었으며 과거에도 항상 그 모습대로 존재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존재할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넓은 의미에서 특정 집단이 지니는 문화적 요소 가운데 그 집단이 역사적 실체임을 표상하는 핵심상징으로 규정될 수 있는 문화유산을 통해 해당 집단의 성원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역사의 일부로 자신들을 위치시키며, 동시대인들과 일종의 연대의식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기능을 한다. 또한 자신들이 선조로부터 독특한 문화를 계승받았던 것처럼 자신들은 미래세대에 물려주어 문화의 생명력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도록 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화유산이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한 것은 19세기 후반 이후의 일로 민족국가를 문화적 정통성과 역사적 실체를 지닌 상상의 공동체로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문화적 요소 가운데 특정한 요소를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규정, 공표하고 이에 풍부한 의미를 부여하여 여타의 물품과 구분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 문화유산과 관련된 각종 제도로 자리 잡았다.

당시 문화유산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문화적 자산 또는 문화재(Cultural Property)로 인정받았으며, 파괴와 약탈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개념은 이후 상당기간 동안 유지되었으며 특히 2차대전을 거치면서 많은 문화유산이 파괴되자 그 영향력은 한층 커지기도 했다.[5]

문화유산을 과거로부터 전해온 자산으로 보는 경향에 변화가 생겨난

[5] 1946년 UNESCO 창설 당시부터 야만적 전쟁으로 파괴되는 인류 발전역사의 성취결과를 보존하는 것이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었으며, 1954년 최초의 문화유산 관련 협약인 무력분쟁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s)이 체결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것은 1960년대부터로 문화유산을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으로 이해하여 후세에서는 오직 보존과 유지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데에서 벗어나 역사적 가치의 대상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실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사실, 선조로부터 계승되어온 모든 문화적 요소는 해당 공동체의 역사적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모든 요소가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구성원들에게 문화유산으로서 소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제도적으로도 경배의 대상으로 공인되지만, 다른 일부는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무시되고 심지어 발전을 가로막는 구시대의 잔재로 치부되기도 한다.

그런데,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되어 왔다. 네덜란드의 풍차와 같이 한때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대상으로 무시되거나 심지어 극복의 대상으로 치부되기도 했던 대상이 국가 그 자체를 표상하는 유산으로서 마치 한결같은 가치를 부여받은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에 비해, 문화유산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는 많은 요소들이 정치적, 사회적 요인 때문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무시되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문화유산은 과거로부터 전해내려 온 모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사와 역사적 과제에 따라 선택되고 가꾸어가는 대상으로서 그 목록과 의미는 사회문화적으로 끊임없이 재구성된다는 점은 다양한 계기를 통해 확인되었다. 특히, 신흥 독립국가가 다수 출현했던 60년대를 전후로 식민지 시대와 거리를 두면서 민족적 역사성과 정체성의 위대한 상징이 될 수 있는 유산을 구성하여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문화유산의 선택성과 가변성은 분명해졌다.

2. 탈국가화의 전개와 문화유산의 재구성

그렇다면 민족국가의 발전 속에서 탄생했던 문화유산은 탈국가화의 전개 속에서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실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아파라두이에 의하면 탈국가적 공동체는 민족국가와는 다른 차원의 상상 실천을 통해 발전할 뿐 아니라 가상에 기반한 상상 자체가 탈국가적 공동체의 본질로 자리 잡을 것이다(Apparadui 1990).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민족국가의 상상에 있어서 핵심적 기능을 담당했던 문화유산은 탈국가적 공동체의 상상 실천에 있어서도 핵심매체로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탈국가적 공동체의 전개에 있어 의미 있는 문화유산은 민족국가체계에서 중시되던 문화유산과는 결정적 차이점이 있다. 민족국가 발달과정에서 문화유산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이후 줄곧 문화유산은 민족의 단일성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상정되어 왔으며 지배집단 중심적 관점에서 그 가치가 부여되었다. 그 결과, 유산으로서의 잠재성을 지닌 대상 가운데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일부만이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반면, 대부분의 요소들은 유산의 목록에 포함되지 못했다.

특히, 중심부에서 배제된 주변지역이나 소수민족, 피지배계급의 관점은 유산의 정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이들이 만들어온 독특한 문화는 주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기껏해야 대전통(great tradition)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 소전통(little tradition) 정도로 간주되는 정도였으며 심지어 민족통합을 해치는 요소로 치부되기도 했다.

그리고 남성 중심적 지배체계 속에서 여성 역시 적극적인 역사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했으며, 여성과 관련된 각종 문화요소는 유산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부여받지도 못했다. 물론 역사적 장에서의 여성의 존재가 완전

히 무시된 것은 아니며 그들이 생산하고 계승해온 문화의 일부 요소는 문화유산의 목록에 포함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성별 분리를 초월하는 민족문화의 표상, 즉 성맹적 (gender-blind) 문화유산으로 인식되는 수준이었다. 그 가치 역시 가부장제 질서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부여되었을 뿐, 남성지배적인 체계 속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온 여성의 존재를 표상하고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1990년 7월부터 문화관광부에서 민족문화의 상징으로서 매달 선정, 발표하고 있는 '이달의 문화인물'에서는 이러한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2005년 12월까지 예정된 인물을 합쳐 문화인물 총 187명 가운데 여성은 7명(3.7%)에 불과하다. 특히, 1990년 7월 선정이 시작된 후 92년 5월의 문화인물로 신사임당이 선정된 뒤에는 99년 11월까지 7년 이상 여성인물이 선정되지 않은 것은 놀라울 정도이다.

〈표Ⅱ-1〉 역대 '이달의 문화인물' 중 여성인물

- 신사임당(1992년 5월)
- 정부인 안동장씨(1999년 11월)
- 나혜석(2000년 2월)
- 최용신(2000년 2월)
- 허난설헌(2001년 9월, 허균과 함께 선정)
- 강경애(2005년 3월)
- 강정일당(2005년 7월)

문화인물로 선정된 여성의 수적 제한도 문제이지만, 선정된 '문화인물'을 공적으로 표상하는데 있어 인물 자신의 문화사적 공헌보다는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부여하거나 신변잡기적인 연애의 주인공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허난설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소설 홍길동의 저자 허균의 누이 여류문학가"로 설명하고 있어 중국에서도 널리 알려질 정도인

허난설헌 자신의 작품 세계보다는 남동생과의 관련 속에서 그 역사적 위치가 부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혜석은 "남편이 아닌 함께 예술을 논할 수 있었던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귀국 후 결국 사랑하는 아이들을 두고 빈손으로 집을 떠나야 했다"는 식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남성 역사인물과 달리 여성인물에게는 어머니 역할이 가장 중요한 본분으로 규정되고 이를 통해 민족문화의 전수자로서 문화인물로 선정되었다는 점이 강조된다. 예를 들어 정부인 안동장씨에 대해서는 "조선중기 시문과 서·화에 능할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에 귀감을 보임으로써 후세 위대한 어머니상으로 추앙 받았다"는 점에서 선정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어 가정 내에서 역할, 특히 어머니역할이야말로 여성의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는 전통적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대변하고 있다.

다른 한편, 여성들은 민족문화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를 구하기 위해 희생한 존재로 부각되기도 한다. "시대적 현실 속에서 **가냘픈 여성**으로 그것도 **처녀의 몸**으로 농촌에 뛰어들어 **일제의 온갖 회유와 탄압에 맞서면서** 농촌운동을 전개한 것은 그녀의 **거룩한 희생정신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을 지닌 것으로 표상된 최영신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상과 같이 이달의 문화인물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민족국가의 문화유산은 남성 중심적 관점에서 구성되어 왔다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속에서 여성들은 소수에 불과하며, 선정된 경우에도 오직 주변적 가치만을 부여받고 있다. 그리고 그 마저도 주로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부여받고, 가정내 역할에 충실한 어머니로서 부각되고 있다. 또는 민족을 살려낸 존재로 표상되지만, 그 경우 여성이라는 존재와 여성으로서의 경험은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며 오직 여성이라는 존재를 뛰어넘어 몰성적 존재로 거듭나 민족을 구원함으로써만 문화인물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

요컨대, 민족국가의 틀 속에서 문화유산의 목록과 가치는 남성중심적

관점에서 구성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역사적 존재로서 여성의 존재는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으며 여성의 삶의 궤적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제공하지 못했다. 탈국가적 공동체의 전개 는 이러한 상황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가 내외부의 다양한 세력이 문화유산 구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족국가담론, 남성지배담론에 기초한 문화유산의 구성에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다. 역사적 가치로 충만한 문화유산의 생산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주변지역과 소수민족이 온전한 문화의 생산자로 자격을 부여받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만들어온 문화적 상징에 대해 지배문화에 귀속되지 않는 그 자체의 독특한 가치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각지에서 일고 있다. 탈국가화의 주요 기제 중 하나인 국제 관광이 발달하면서 그간 지배적이었던 강력한 민족주의 관점의 역사기술과는 다른, 때로는 대치되는 지역의 역사가 공적 영역에 등장하고 소수민족의 문화유산이 주목을 받으면서 민족문화유산 담론에 전면적 변화가 야기되고(Friedman 1990; Peleggi 1996), 주요 IO나 UN기구에서 주변적 민족이나 사회집단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국가 중심적 가치체계의 지배적 위치가 흔들리고 대안적 가치체계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역사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여성문화유산 역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특히, 여성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공적 영역에 대한 여성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사회주체로서 여성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소극적 존재를 당연시하는데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역사 주체로서 여성의 위상을 재조명하고 여성들과 관련된 각종 요소들이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실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3. 여성문화유산의 부상

가. 여성사 연구의 발전

여성문화유산은 역사주체로서 여성의 위상을 표출하고 여성의 삶을 표상하는 유무형의 상징으로 개념화되며, 여기에는 개인으로서 또는 집단으로서 여성과 관련된 유적지나 유물 뿐 아니라 일반 여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산하고 공유하며 세대를 통해 전수해온 다양한 기능과 기술, 지식체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일찍이 19세기 여성사에 대한 의식이 생겨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개념적으로 확립되고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들어 여성사 연구가 본격화되고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여성운동이 활발해지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전 세계에서는 역사 속에서 잊혀져 있던 여성들을 적극적인 역사 주체로 만드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여성위인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점차 여성운동의 연대기를 작성하며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하는 작업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했으며, 이와 함께 다양한 시기의 평범한 여성의 삶을 기록하고 여러 계층 여성들의 경제적, 교육적, 정치적 지위의 변화를 추적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역사적 과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작업은 학문적 가치가 점차 확고해져 여성사 연구에 특화된 잡지가 발간되었고 주요 회의가 개최되었다.[6]

---

6 미국에서는 [Signs], [Feminist Studies], [The Women's Studies Quarterly] 등 주요 여성학 잡지들에 상당수의 여성사 연구논문이 실렸으며, 여성사 전문 잡지인 [Women and History]도 창간되었다. 프랑스에서는 [Pénélope]가 1985년까지 여성사 학술잡지로 출간되었으며, 영국의 [Feminist Review]와 [History Workshop], 캐나다의 [RFD/DFR(Resources for Feminist Research/Documentation sur la Recherche Féministe]가 여성사 연구의 요람으로 역할을 하였다(Scott 1988: 200).

동북아 지역에서도 1970년대는 여성사 연구에 있어 특별한 시기로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개념이 차츰 정립되어 갔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항일운동기 독립운동, 사회활동, 교육활동,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음이 밝혀진 것을 비롯해, 고대국가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 여성들은 개인으로서, 집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역사 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해왔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도 '여성사 연구붐'이라고 할 정도였던 1970년대를 지나 다양한 분야의 여성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두 국가에 비해, 중국에서는 개혁개방과 함께 다소 늦게 현대적 의미의 여성사 연구[7]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80년대 당시 정주대학(鄭州大學) 교수이던 리샤오장(李小江)의 주도하에 여성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1987년 정주대학 부녀학연구중심(婦女學研究中心)을 필두로 북경대학 중외(中外)부녀문제연구중심, 천진사범대학 부녀연구중심 등 전문적 여성연구기관이 생겨나면서 중국 근현대 여성사연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성(젠더)이라는 서구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연구주제도 다양해지고 정치중심적 경향도 조금씩 탈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1975년 멕시코 세계여성대회를 출발점으로 한 'UN 여성 10년' 기간 동안 역사 발전에 있어서 여성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도 여성문화유산의 개념 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7] 20세기 초 신(新)사학운동과 신문화운동의 영향 속에서 여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나 전통적 관점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후 중국사회의 혼란으로 본토에서는 연구전통이 일단 단절되고 이 시기의 연구성과는 대만·홍콩으로 계승되었다(김인숙 1999).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에도 여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크게 발전하지 못하다가 개혁개방 이후 비로소 본격적 연구와 논쟁이 시작되었다(지현숙 2001).

나. 여성문화유산에 관한 공공정책의 발달

학문적 성과와 여성운동 차원에서 축적된 관심과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 각지에서는 GO와 NGO를 망라하여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일례로 캐나다와 미국, 호주 등지에서는 정부에서 '여성사의 달(Women's History Month:WHM)'을 지정하여 역사 속의 여성의 존재와 공헌을 기리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1992년부터 매년 10월을 여성사의 달로 지정하여 캐나다여성지위국(Status of Women Canada)을 중심으로 여성의 역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사업을 벌이고 있다.

〈표Ⅱ-2〉 캐나다 정부의 '여성사의 달'주제 (2000~2004)

- 2000년 "역사 만들기, 미래 짓기: 20세기 여성"
- 2001년 "캐나다 여성 자원활동가를 기리며"
- 2002년 "여성과 스포츠: 영원한 승자"
- 2003년 "여성은 투표를 할 수 없다니, 무슨 얘기?"
- 2004년 "그래, 여성은 "인간(persons)"이야!"

미국 정부에서도 3월 한 달을 '국가 여성사의 달(National Women's History Month)'로 지정하고 여성사기념에 관한 대통령위원회(President's Commission on the Celebration of Women's History)를 설치하여 대통령이 기념 연설을 하는 등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여성발전위원회(Women's Progress Commission)에서도 미국 여성사에 중요한 유적을 발굴, 보존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사의 달은 역사 속의 여성의 존재와 기여가 학교교육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이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거의 전무한 문제에 도전하기 위해 1978년 캘리포니아주 소노마군(Sonoma County) 여성지위위원회 교육TF가 '여성사의 주(Women's History Week)'를 제정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국제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전후로 한 한주동안 학

교와 지역여성들의 참여 속에 여성사의 주 행사가 활기차게 추진되자, 1981년 의회는 '국가 여성사의 주(National Women's History Week)'를 선포하기로 결의해 각주정부로 하여금 여성의 잊혀진 유산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벌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1987년 상원과 하원에서는 '여성사의 주'를 3월 한 달간으로 연장하는 결의안을 승인하였다. 이후 매년 여성의 달을 맞아 의회에서는 결의문을 가결하며 미국 대통령은 선언문을 발표하며, 미국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학교, 일터, 지역사회, 주요 여성단체 등에서는 여성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여성이 미국을 변화시킨다'라는 주제 하에 지도자, 저술가, 과학자, 교육자, 정치인, 예술가, 역사가 그리고 시민으로서 문화, 역사, 정치를 변화시켜온 미국 여성의 역할에 주목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었다.[8]

다. 여성문화유산 전문 NGO와 박물관의 탄생

이처럼 각국 정부가 여성문화유산을 정책적 의제로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된 데에는 여성사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여성NGO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례로 미국의 비영리 교육단체인 미국여성사프로젝트(National Women's History Project)는 1980년부터 미국 역사와 문화가 남성 지도자들에 의해 이룩된 것처럼 보는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여성의 풍부하고 진정한 역사적 기여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3

[8] 이외에 호주 정부도 3월을 '여성사의 달'로 지정하여 여성사무소(the Office of Women)에서 여성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 3월 5일, 12일, 19일에는 "수소와 빵, 그리고 아기(Bullocks, Bread and Babies)"라는 주제로 100년전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 캔버라 여성들의 놀랍고도 불행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며, 18일에는 지난 일세기동안 여성들이 이뤄낸 눈부신 성과들을 소개하는 "여성의 성취, 그 100년간의 행보(A Walk Through 100 Years of Women's Achievements)"가 진행되었다.

만명 이상의 교사와 함께 여성사 워크숍을 진행해왔으며 학술대회를 통해 여성사 연구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전국과 지방단위의 대중매체를 통해 여성사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는 한편, 수 많은 비디오와 책자, CD-ROM 등 교육매체를 개발하여 배포하고 전국 단위의 여성사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국회도서관과 스미스소니안재단, 공공방송채널(PBS), 타임지 등을 포함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여성사 정보를 확산하는 활동도 전개하고 있으며 미국 여성사 아카이브 구축도 추진하다. 특히, 여성사 프로젝트는 1987년 여성사의 달 의회 결의안을 이끌어내고 매년 여성사의 달을 기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 정부에 제공하는 등 여성문화유산에 관한 공공정책을 증진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중심축으로 활약하고 있다.

역사발전에 있어서 여성의 존재에 대한 일반적 관심과 의식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는 NGO 이외에 전시관이나 박물관의 역할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여성사 또는 여성문화유산을 다루는 세계 각지의 박물관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 워싱턴D.C.의 미국여성사 박물관(National Women's Museum)은 거의 모든 박물관이 남성의 견지에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 역사의 잃어버린 일부를 찾아 알리고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되었다. 박물관에는 그 목적을 함께 하는 여성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한 200명 이상의 남성과 여성 국가 지도자들이 명예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주요 여성단체와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간 박물관은 미국의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등 각 분야에서 여성의 기여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그와 관련된 유무형의 상징, 즉 여성문화유산을 수집하여 기획전을 개최하였다. 2002년 3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알링턴 국립묘지 내 미국여군기념관(Women in Military Service for America)에서 [비밀스러운 여성: 스파이조직 여성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Clandestine Women: The Untold Stories of Women in Espionage)]라는 흥미로운 전시를 개최해 미국 전역은 물

론 국제적인 언론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또한 2003년에는 사이버 박물관(www.nwhm.org)을 열고 [모성, 사회서비스, 정치개혁: 정치문화와 미국여성참정권의 이미지], [올림픽에서의 여성: 역사적 개괄] 등을 주제로 사이버 기획전을 연 바 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승전의 파트너: 2차대전중의 미국여성]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9]

또한 텍사스주 달라스에 위치한 스미스소니안재단 계열의 여성박물관, 미래를 위한 기관(The Women's Museum, An Institute for the Future) 역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여성들의 목소리와 재능, 성취와 포부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여성들의 목소리와 비전, 기여가 미국 역사의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자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라는 점을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알리고 있다. 1996년부터 추진되어 2000년 개관한 여성박물관은 미국여성의 독특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해 미국역사의 추진에 있어 여성들의 참여를 이해하고 대화와 발견을 위한 활기찬 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박물관에 영구 전시되어있는 [역사속 여성(Women in History)]관은 주목할 만하다.

[역사속 여성]관에서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전시를 통해 관란자로 하여금 미국역사라는 그림을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삶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와 정치의 세계에서 현저한 활약을 하며 국가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 공헌해온 여성들의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00년대 여성들의 생활유물과 현재 여성의 생활용품을 비교하고 미국 여성사에 있어 중요한 역사적 계기를 이해하고 미국의 사회, 정치, 문화사에서 현저한 족적을 남긴 여성인물들을 만남으로써 역사적 존재로서 여성들의 뿌리와 성취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중문화에서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구성하는 방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여성성의 사회문화적 구성과 젠더문화의 변천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9] 박물관은 [2004년 워싱턴 한국영화제]의 여성영화제 개최장소가 되기도 했다.

다양한 세대, 다양한 민족배경을 지닌 미국 여성들의 생애사를 비교함으로써 여성문화의 활력을 느낄 수도 있다.

이처럼 전문박물관을 중심으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높이려는 움직임은 단지 미국이나 독일 등 서구의 일부 선진국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일례로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여성연합(Vietnam Women's Union)과 문화부가 공동으로 하노이여성박물관(Hanoi Women's Museum)을 설립하여 베트남인들은 물론 해외 방문객들에게 베트남 여성들의 삶과 여성들의 역사적 기여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1985년부터 베트남여성연합 회장이었던 고(故) 응우옌 티 딘을 중심으로 베트남 여성들의 전통적인 삶과 역사적 발전과정에서의 기여를 집중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박물관 설립이 추진된 결과 90년대 초 개관한 하노이여성박물관에는 의복과 부엌용품에서부터 기관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을 통해 전통사회 여성들의 가내활동상과 베트남 전쟁에서 여성들이 겪었던 고통과 승리를 위한 여성들의 노력과 결정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여성연합을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정치 활동사도 전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45개 소수민족 여성들의 민속의상을 전시하여 이들 역시 베트남국가의 일원임을 보여주고 있다.

4. 탈국가적 공동체의 진전과 여성문화유산의 새로운 모색

이처럼 여성문화유산에 관한 공공정책이나 전문 NGO, 박물관 등을 통해 점점 많은 이들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 여성들의 존재와 기여를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NGO나 박물관은 주로 민족국가의 틀 내에서 여성문화유산에 접근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민족문화의 기반으로서 또는 민족의 상징으로서 여성문화유산을 바라보고 미국사나 베트남사 등 민족국가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여성들이 수행한 역할에 주된 관심을 기

울이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인 민족국가 담론 속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피지배자로 식민화되고 공적 장에서 가려지는 경향이 농후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는 민족국가의 핵심적 주체로 부각된다. 우선 민족 구성원의 생물학적 재생산자로서 민족의 생존이 여성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외부 민족과의 경계선도 재생산자인 여성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자식이 속한 민족집단의 이념적 재생산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민족성을 풍부하게 표상하는 전통문화, 즉 문화유산의 담지자이자 전수자이기도 하다. 또한 여성은 민족 특수성의 상징 기호로서 특히 외부의 도전과 위협에 직면한 민족을 표상하는 존재로 부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처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을 지켜내는 투쟁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로 등장하였다(Floya and Nira 2000: 1480–1483; 정현백 2002: 24–25 재인용).

이처럼 여성, 특히 본원적 친밀함과 아늑함, 자연과의 교감 등을 갖춘 어머니의 존재를 통해 민족은 '어머니의 땅'의 이미지로 거듭나 감정과 기억에 파고들어 민족감정을 고양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실상 민족 담론을 주도한 것은 남성들간의 형제애와 "남성의 기억과 분노와 희망"(정현백 2002: 51)이었으며 여성들의 경험과 소망은 담겨지지 않았으며 오직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수동적인 존재, 남성의 빈 자리를 잠시 메우며 그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존재에 불과했다. 모성은 찬미되고 있으나 모성의 역할은 수동적이거나 주변적이었으며, 민족전통의 담지자이자 전수자로서 여성은 충성과 희생정신,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의무감만을 지닌 존재일 뿐이었다(정현백 2002: 24–51).

이러한 민족국가의 틀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담은 여성문화유산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충실한 어머니와 순결한 여성, 민족을 위험에서 구한 여성투사만이 집중적으로 표상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현재 각국에서 급격히 증

가하고 있는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제한을 벗어나지 못한 채 민족국가 내에서 제한된 정당성을 인정받는 일부 유산이나 특정 유산의 일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현재 각국의 여성박물관이나 NGO에서도 예외를 찾아보기 힘들다. 일례로 하노이 여성박물관에서는 이러한 점이 뚜렷이 발견된다. 베트남 여성과 관련된 전시물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생산도구와 가사도구는 민족의 성원들을 양육, 부양하는 여성들의 역할을 표상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전통의상을 통해서는 역사의 격변 과정에서도 민족의 전통적 상징을 꿋꿋이 지켜온 여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박물관에서 눈에 띄는 것은 베트남 전쟁이라는 결정적인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여성들이 펼친 활약상이다.

〈사진Ⅱ-1〉 하노이여성박물관 전시 사진

베트남 전쟁 당시의 감옥과 심문 장면을 재현한 공간과 함께 당시 여성들이 입었던 군사복장과 그들이 사용했던 기관총과 신발, 운반도구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을 제압하는데 있어 여성들이 남성 못지 않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사진Ⅱ-1〉, 특히 슬리퍼를 신고 지게를 메고서 머나먼 산길을 다녔던 여성들이 아니었다면〈사진Ⅱ-2〉 베

트공이 험난한 지형 속에서도 군수물자를 제공받으며 게릴라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베트남 민족의 승리의 역사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는 확신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다.

〈사진Ⅱ-2〉 하노이여성박물관 전시물

이에 비해, NGO의 프로그램이나 박물관의 기획전시를 통해 민족국가를 초월한 여성들의 역사적 위상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제한되어 있다. 물론 다민족, 다인종국가인 미국에서는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지닌 여성의 역사 포괄하려고 시도하고 하노이 여성박물관에서는 베트남족 이외에 소수민족 여성들의 의상도 전시하고는 있다. 그러나, 민족국가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관심에 비하면 이러한 관심은 주변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그 마저도 민족국가의 단일한 역사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여성사에 대한 접근은 단계적으로 발전해 간다. 몇몇 여류명사를 발굴해내는데 초점을 두는 보충사(compensatory history)에서 출발해 점차 공헌사(contribution history)의 발전으로 이어져 중요한 역사적 계기를 중심으로 집단으로서의 여성들의 존재와 기여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통해 여성들은 역사의 주체로 인정받기 보다는 역사의 희생자로 다루어지거나 남성 중심적 역사의 기여자로 끼워 맞춰질 뿐이고 남성적 규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나 남성과 다른 여성들의 역사적 경험들은 충분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Lerner 1975; 정현백 2002: 118-121 재인용).

진정한 여성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남성 중심적 역사관에서 탈피하려는 노력 속에서 형성된다 기존의 역사적 공간을 받아들이는

대신 여성들에게 의미 있는 역사적 영역을 개척하고 여성의 적극적인 실천경험을 통해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궁극적으로는 역사에 대한 젠더분석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차원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상과 같은 발달단계에 견주어 보면 현재 공적인 영역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은 주로 민족주의 역사의 틀 안에서 여성들을 위치시키는 보충사, 공헌사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국가화의 전개로 민족국가의 틀을 초월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화의 전개에 따라 여성운동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세계화로 인한 여성노동에 대한 통제와 빈곤의 여성화, 인신매매 범죄의 난무, 여성이주자 및 난민의 인권 침해, 자원고갈과 환경파괴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 등은 더 이상 특정 민족국가 여성들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해있는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 대처를 모색하는 가운데, 전지구적 차원의 여성연대가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1975년 멕시코 세계여성대회를 필두로 출발한 전지구적 차원의 여성연대는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를 통해 한층 본격화되어 전 세계의 GO와 NGO가 함께 세계화 과정에서 여성들이 직면하는 공동의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에서는 세계화의 피해자 또는 세계화 과정에서 “잃은 자” 로서의 여성문제에 집중하고 문제를 사후적으로 교정하거나 세계화 자체의 방향을 반대하는데 초점을 둔 데 비해, 탈국가화 과정에서 여성들이 특정 민족국가의 틀을 넘어 서로의 다양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위에서 미래세계의 비전을 제시하려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점에 있어서 최근에 설립된 국제여성박물관(International

Museum of Women: IMOW)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85년 여성유산박물관(Women's Heritage Museum)으로 출발하여 미국 여성문화유산과 관련된 전시회를 개최하고 여성사의 달 기념 공공 행사를 주관하기도 했던 박물관은 세계화 추세 속에서 미국 여성 뿐 아니라 세계 여성을 포괄하여 여성의 세계사를 발굴하고, 전시와 교육활동 등을 통해 그 가치를 확산함으로써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최초의 박물관으로 개편하였다.

그간 국제여성박물관은 [세계 여성의 진보(Progress of the World's Women, 2000.6.5-6.27)], [세계의 여성(Women of the World, 2003. 3.8-4.13)], [전세계 여성을 기리며(Celebrating Women All Over the World, 2004.10.4-12.17)] 등 일련의 기획전시를 통해 세계 여성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갔던 역사 주체였음을 확인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그 목적을 함께 하는 미국내 관련기관과 NGO, 대학, 박물관은 물론이고 UN기구와도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최근에는 중국부녀연합(All China Women's Federation)이나 이스라엘여성네트워크(Israel Women's Network)과 등 전세계 여성단체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6월에는 미국과 영국, 러시아, 필리핀이나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지역, 남미지역,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지도자들이 함께 하는 세계 위원회(Global Council) 회의를 개최하여 여성의 세계사를 향한 박물관의 기반을 다졌다.

이처럼 탈국가적 공동체의 전개 속에서 특정 국가의 틀을 벗어나 여성의 구체적인 역사경험과 문화적 다양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그 속에서 일정한 공통의 관심사를 찾고 이를 통해 미래세계의 비전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은 다양한 사회주체들 간의 소통을 통해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추구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아직은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이 주로 민족국가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적 차원의 관심은 세계 여성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표면적으로 비교하고 20세기 후반 각국 여성운동의 성과를 조명하는데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초 위에서 여성의 경험을 통해 민족주의 역사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문화유산 관점을 형성하게 되면 문화적, 역사적 다양성을 기초로 개방적이고 유연한 탈국가적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III

역사 교과서를 통해 본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의 위상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각국의 공식교과서에 나타난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본 연구에서는 탈국가적 공동체 형성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여성문화유산이 동북아 문화공동체에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각국에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일반적 인식 수준을 가늠하고 발전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법론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각국의 공식 역사교과서 및 대안교과서에 대한 성 분석(gender analysis)을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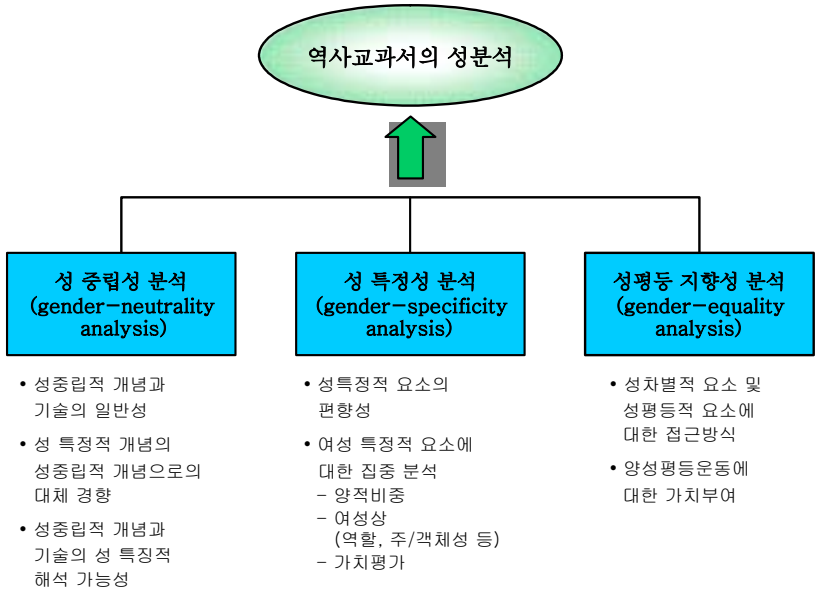
역사교과서는 역사적 기본 정보를 전달하는 담지물일 뿐 아니라 그 정보에 공신력을 부과함으로써 문화유산에 대한 지배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공식 매체이다. 특히, 공식교육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의 경우에는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확산할 뿐 아니라 관련지역, 관련국가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교과서 분석을 통해 자국 및 역내 국가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과 이해 수준, 지배적인 가치평가의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동북아 3개국의 학자와 시민단체가 최근에 공동으로 동북아 차원의 역사교육 길잡이로 펴낸 성과물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탈국가화 과정에서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역사적 상징으로서 여성문화유산의 기여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 분석 또는 성 인지 분석은 개념 및 텍스트, 담론의 남성 중심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성 평등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이다. 역사 교과서 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 분석 방법론을 크게 성 중립성(gender neutrality) 분석과 성 특정성(gender specificity) 분석, 성 평등성(gender equality)내지 성평등 지향성 분석 등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성중립성 분석에서는 주로 교과서에서 사용한 개념과 내용이 성

중립적 관점에서 규정, 기술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성중립적 개념을 얼마나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성 특정적 요소를 성중립적 개념으로 대체하고 있는지(예: 여성농민→농민) 여부를 판단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은 일견 성 중립적(gender neutral)으로 보이는 개념이 텍스트 전체의 흐름 속에서 성 특정적 의미로 전환되어 특정 성을 중심으로 한 해석을 유도하여 성맹성 효과(gender-blindness effect)를 낳는지를 점검하는데 있다.

〈그림Ⅲ-1〉 역사교과서의 성 분석 내용



표면적 차원에서의 성 중립적 개념의 실제적 성맹성과 성차별적 해석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과 함께 역사교과서의 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히 규정된 부분에 대한 분석으로서 동북아 각국의 역사와 지역 교류사에 있어 여성을 역사적 주체로 조명하는 바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남성

임이 분명한 인물 개인이나 집단이 자주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비해 여성인물이나 집단은 거의 언급되지 않거나 등장하는 경우에도 몇몇 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남성이 적극적인 주체로서 역사의 도전에 대응하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비해 여성인물이나 집단은 자신의 존재가치보다는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적 인물로 설정되고 역사적 내러티브에서도 남성에 의해 주도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 또는 부정적 존재로 등장하는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역사적 존재로서 여성의 위상을 설정하는 방식을 평가하고 전체 텍스트의 성인지성을 가늠한다.

성중립성 분석과 성특정성 분석은 역사교과서의 남성 중심성 과 여성 차별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성인지성의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를 위해서는 성차별적 요소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성평등적 실천에 대해서는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여 성평등을 중요한 사회적 가치에 통합시켜야 한다. 성평등성 분석은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으로 역사교과서가 성차별적 요소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성평등적 요소에 비중을 두고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성평등 가치의 지침으로서 교과서의 역할을 판단하는데 역점을 둔다.

가. 한국

(1) 자국 여성문화유산의 위상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공통과목인 국사와 선택과목인 한국근현대사에서 우리나라 역사가 다루어지고 있다. 두 과목의 주요교과서를 성중립성과 성특정성, 성평등 지향성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가) 성 중립성

우리나라 역사의 상당부분은 '인류'나 '민족', '농민' 등 성별 구분을

내포하지 않는 일반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성별 함의가 드러나지 않게 기술되어 있다. 특히, 특정한 인물이나 집단을 밝혀내기 어려운 초기 역사와 사회, 경제 분야에서는 주로 성중립적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어 역사의 장에 존재하는 인간이 남성 또는 여성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역사의 발전을 농경과 사냥 중심으로 기술하고 농사도구와 슴베찌르개나 작살 등 사냥도구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무기의 발달을 역사 발전의 중요한 지표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비해, 1차 연도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역사부터 여성들이 담당해온 직조 등에 대해서는 지극히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그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생활이 시작되었다. 황해도 봉산 지탑리와 평양 남경의 유적에서는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어 신석기 시대에 잡곡류를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쓴 주요 농기구로는 돌괭이, 돌삽, 돌보습, 돌낫 등이 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지는 않지만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나무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농경은 집근처의 조그만 텃밭을 이용하거나 강가의 퇴적지를 소규모로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농경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냥과 고기잡이가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식량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사냥은 주로 활이나 사슴류와 멧돼지 등을 잡았고, 고기잡이에는 여러 가지 크기의 그물과 작살, 돌이나 뼈로 만든 낚시 등을 이용하였다. 또 굴, 홍합 등 많은 조개류를 먹었는데, 때로는 깊은 곳에 사는 조개류를 따서 장식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 농경도구나 토기의 제작 이외에도 원시적인 수공업 생산이 이루어졌다. 가락바퀴나 뼈 바늘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국사 pp. 24-25).

이상의 내용에서는 여성들이 주로 하는 직조는 전쟁이나 농경, 사냥 등

에 비해 역사 발달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해되기 쉬우며 직조의 발달과정에 대해서도 “(동예에서는) 명주와 삼베를 짜는 등 방직기술이 발달하였(고)”, “(고려에서는) 농민들은 직접 사용하거나 공물로 바치거나 팔기 위하여 삼베, 모시, 명주 등을 생산하였다”(국사 p. 153)고 할 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더욱이, 농경과 사냥, 직조 등에서 여성이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담겨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동기, 철기 시대에 이미 “여성은 주로 집안에서 집안일을 담당하고 남성은 농경, 전쟁과 같은 바깥일에 종사”(국사 p. 32)하는 방식으로 성별분업이 명확해졌다고 명시하고 있어 남성, 여성의 다양한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기 보다는 역사의 발전이 농경과 전쟁을 담당하는 남성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당연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특히, 진정한 민족역사의 시조가 ‘단군’이라고 밝히고 그가 남성이었음을 단군 영정(국사 p. 35)을 통해 가시화하고 있어 우리 역사는 남성에 의해 출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역사의 장에서 여성의 존재가 미미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어 역사의 전개 과정 속에서 수 많은 왕과 위대한 장군, 주요 인물이나 집단들이 군사적, 정치적 행동을 통해 국가통치체계를 정비하고 대외관계를 발전시키는 모습이 그려지면서 우리 역사는 남성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주도되어 온 바가 계속 확인된다.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도 대부분 성별을 특화하지 않은 개념이나 기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몇몇 지점에서 남성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반면 여성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남성에 의해 사회제도와 경제구조 발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역사의 초기부터 줄곧 다양한 배경의 남성지도자와 화랑도, 무인, 신흥사대부, 사림, 의병 등의 집단이 사회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으로 가득차있다. 또한 남성들은 농업생산기술을 발전시키고 군역이나 요역 등에 동원되어 국가경제의 기둥으로 역할을

했으며, 각종 경제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장보고(국사 p. 142)처럼 동아시아 무역을 주름잡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근대에 들어 국가간, 지역간 문물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체계를 형성하려한 이들도, 이러한 흐름을 막으려는 세력도 '개화파', '상공인', '기업가' 등으로 지칭되는 남성들이다(한국근현대사 pp. 57-75, 108-110). 다양한 표현양식을 통해 인간적 정서와 사회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중국, 일본을 비롯한 각지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한자, 유학, 불교, 공예품, 음악미술, 과학기술 등을 교류한 이들 역시 대부분 남성들이다.

이에 비해, 사회적 모순을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들, 농업생산에 참여하고 상업 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전혀 눈에 띠지 않는다. 그 하나의 예로 일제하 노동운동이나 소작쟁의를 들 수 있다.

> 암태도 소작쟁의
> 〈때〉 1923년 8월-1924년 8월
> 〈곳〉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목포
> 〈등장인물〉
> 문재철: 지주/ 서태석: 소작인 회장
> 박복영: 청년회장/ 춘보: 동학에 가담했다가 관의 눈을 피해 도망온 소작농
> 만석: **부잣집 딸**과 눈이 맞아 암태도로 도망해 온 남사당패 소리꾼
> 〈내용전개〉
> 암태도의 소작농민들은 1923년 8월 추수기를 앞두고 서태석의 주도로 소작인회를 조직하고 지주 문재철에게 8할에 가까운 소작료를 4할로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문재철은 농민들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고 관과 경찰의 힘만을 믿고 마냥 세게만 나왔다.
> 이에 소작인들은 추수를 거부하고 소작료 불납동맹을 결성해 본격적인 쟁의에 돌입하였다. 한편, 문재철 부친 송덕비 파괴를 둘러싸고 문씨 일족 청년들과 농민들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졌는데, 이를 빌미 삼아 경찰이 소작회 간부들만 대거 구속하자 농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올랐다.

> 1924년 두차례에 걸쳐 열흘 남짓, 남녀 노소 6백여명의 농민들이 목포 경찰서와 재판소 앞에서 단식투쟁을 하였다. 소작인회가 이처럼 처절하게 투쟁을 벌이자 목포의 여러 사회단체는 물론 다른 지역의 사회단체도 움직이기 시작하여, 마침내 소작인이 승리를 이끌어냈다(한국근현대사 p. 215).

이상의 내용은 일면 지주와 소작인이라는 성 중립적인 집단들간의 갈등과 투쟁을 통해 전개된 역사의 일부로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남성지주와 남성 소작인들의 등장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여성이라고는 '만석'과 눈이 맞은 부잣집 딸만이 등장하고 '남녀노소' 모두로 구성된 전체 주민집단의 일부만으로 지칭될 뿐, 어디에서도 암태부인회의 존재와 역할을 찾아볼 수 없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교과서 전반에서 농업생산이 남성의 영역임을 직·간접적으로 언급되는 상황 속에서 여성이 함께 참여한 실천이 성 중립적으로 기술되면서 남성 중심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찬가지로 서민과 귀족의 생존과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공물로 납부되어 국가경제의 주축을 이루었으며, 화폐처럼 유통되어 상업경제의 근간을 이루기도 했던 삼베나 명주, 비단류의 생산자로서 여성들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여성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의 존재는 흐려지고 역사는 남성 중심적으로 전개되어 왔던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 조선 전기에는 목화재배가 거의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에 따라 무명이 많이 생산되어 백성들은 주로 무명옷을 입게 되었고, 무명은 화폐처럼 사용되었다. 삼, 모시의 재배도 성행하였으며 누에치기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양잠에 관한 농서도 편찬되었다(국사 p. 300).

이처럼 여성들이 그 역사를 만들어온 분야에 대해 여성의 존재는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대신 부분적으로 가내에서 하는 부수적 활동으로

개념화하여 여성의 존재가 암시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남성들이 '집 밖에서' 하는 농업, 상업, 제조업 등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수적인 부문으로 그 가치가 평가된다(한국근현대사 p. 104).

특정한 개념이나 기술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맥락. 즉 텍스트 내의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민족', '인류', '농민', '상인', '소작인', '지주' 등 성을 초월한 집단을 상정하는 듯한 개념이나 기술 자체가 성 중립적 해석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양적, 질적으로 특정 성에 편중된 맥락 속에서 일견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개념이나 기술은 성 편향적으로 해석되고, 역사의 발전은 남성의 손에 의해, 그들의 땀방울로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시되는 경향이 짙다.

(나) 성 특정성

역사는 특정한 상황에 있는 개인이나 인간집단에 의해, 그들간의 관계에 의해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는 수 많은 인물과 집단의 활약상이나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자료를 담고 있다. 이 가운데, 특정한 이름이 거론되는 최초의 인물은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 왕검으로 그의 영정(국사 p. 35)을 통해 그는 의심할 바 없이 남성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후 많은 정복자와 왕, 장군, 혁명가, 지식인, 농민들이 국가의 틀을 잡고 사회체계를 정비해가고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바가 역사교과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여성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인물이나 집단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사회, 정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실천을 도모함으로써 역사를 이끌어가는 남성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역사의 초기부터 농경이나 전쟁과 같이 바깥일을 하는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주로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그려졌으며(국사 p. 32), 법을

통해 남성을 위해 정조를 지키고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도록 규제되는 대상이기도 하다(국사 p. 37). 또한 부여에서는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다"(국사 p. 38)고 할 정도로 남성을 사이에 둔 여성들 간의 갈등이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가부장적 통제가 초기 역사부터 발달되어 왔다는 점이 암시되고 있다.

남성들이 국가를 세우고 민족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가운데 여성들은 그런 남성을 위해 집안에서 봉사하는 존재로서의 역할만을 부여받으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남성에게 부담을 주는 여성은 강력한 통제의 대상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남성들이 역사를 전개하는 가운데 여성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사를 이끌어갈 남성을 생산하고, 남성들간의 유대를 만들어내는 매개 도구로서의 역할이다. 역사 교과서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여성 인물인 주몽의 어머니 유화부인이 그 대표적 예이다. 그녀는 고구려의 건국시조인 주몽의 어머니로 고구려인들에게는 주몽과 함께 조상신과 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뜻에 의해서 주몽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남성의 선택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알을 깨고 나와" 역사를 이끈 남성을 생산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으로 제시된다.

> 부여의 금와왕이 태백산 남쪽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어 물은 즉, 하백의 딸 유화라 하는지라...금와왕이 이상히 여겨 그녀를 방에 가두어 두었는데 햇빛이 따라와 비추었다. 그녀는 몸을 피하였으나 햇빛이 따라와 기어이 그녀를 비추었다. 이로 인하여 그녀는 잉태하게 되었고 마침내 알 하나를 낳았다... 한 사내이아기 껍데기를 깨고 나왔다....주몽의 어머니가 비밀을 알고 아들에게 "장차 이 나라 사람들이 너를 죽이고자 하니 너의 재간으로 어디 간들 못 살겠느냐, 지체하다가 욕을 당하지 말고 멀리 도망하여 큰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타일렀다(국사 p. 40).

이처럼 여성들은 그 자신의 존재와 역할로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

기 보다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남성 존재의 기반으로서, 남성들간의 역사적 과업의 계승을 연계하는 역할을 통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삼국시대에서 후삼국시대의 수 많은 왕과 장군들이 역사를 주름잡는 가운데, 등장하는 극소수의 여성 가운데 헌안왕의 후궁이자 궁예의 어머니 역시 그러한 존재로 나타났을 뿐이다(국사 p. 67).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의 역사적 과업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등장한다. 고려 태조가 왕권강화를 위해 혼인연맹을 결성했다는 점에서 암시된 여성들의 존재가 그러하며(국사 p. 74), 이자연이 그의 딸을 문종의 왕비로 되게 한 것을 비롯해 을 비롯해 경원 이씨 일족이 10명의 딸을 왕과 관계를 맺도록 함으로써(국사 p. 80-81) 정권을 장악했으며 기철은 누이동생이 원나라 순제의 황후가 됨으로써 권력을 얻게 된 것(국사 p. 89)에서도 남성들간의 권력 경쟁에서 여성은 그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원의 공주'처럼 여성은 국가간의 통제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매개체로 등장하기도 한다(국사 p. 88).

이에 비해, 여성들이 주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경우는 소수일 뿐 더러 이 경우에도 남성들이 역사적 과업을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아 역사에 부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경향이 짙다. 진성여왕은 정치적 무능력으로 재정파탄과 사회적 혼란을 증폭시켰으며(국사 p. 196), 고려 목종의 모후인 천추 태우는 김치양과 모의하여 왕위 찬탈을 시도함으로써 강조의 정변을 가져온 장본인으로 거란의 침입을 가져와 국가의 위기를 가져오기도 하였다(국사 p. 84). 또한 조선 순조 조에 수렴정치를 한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는 전대(前代) 왕들이 애써 추구했던 붕당들 간의 세력 균형을 무위로 돌리고 세도정치의 장을 열어 정치적 폐단과 사회적 모순을 심화시키고 우리 역사의 흐름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린 인물로 평가된다(국사 p. 128). 뿐만 아니라, 각 시대마다 '외척'은 왕권을 침해하여 정치적 불안정의 요소로 작용하는 세력으로서(국사 p. 75, 105) 여성을 매개로 형성되는 관계는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모순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는 부정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의 장에 참여하는데 비해, 여성은 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 동원되는 일종의 도구로 표상되고 있다. 그리고 주체로 등장하는 제한된 수의 여성들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외적의 침략에 대항해 국가를 구원하는 남성들과는 대조적으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존재로 나타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외에 여성들은 왕위 확립을 위하여 광해군에 의해 유폐된 인목대비(국사 p. 106)나 서인과 남인간의 예송 논쟁의 대상이었던 자의 대비(인조의 계비)(국사 p. 106)처럼 남성들 간의 권력 경쟁의 대상이거나 희생자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외부의 침입 속에서 여성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남성들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묘사된다. 왕과 장군을 비롯해 수 많은 군사적, 정치적으로 투쟁하여 국가의 자주와 안녕을 위해 힘쓰는 사이, 여성들은 착취의 대상으로 희생되어 갔다. 고려의 여성들은 금, 은, 베, 인삼, 약재, 매 등과 함께 '공녀'로 원에 잡혀가 고통스럽게 살았으며(국사 p. 88, 207) 명성황후는 국모로서의 역할을 채 다하지 못한 채 일본에 의해 시해되었다(국사 p. 336-337, 한국근현대사 p. 72).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것은 일제시대에는 수 많은 조선의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성 노예로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했으며 노동자로 착취당했다(국사 p. 343, 375; 한국근현대사 pp. 162-163)는 점이다.

> 일제가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행한 가장 수치스러운 범죄 행위는 여성들을 전쟁에 강제동원한 일이었다.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동원된 여성들 가운데 일부는 일본과 조선의 군수공장에 보내져 강제노역을 당하였고, 또 다른 여성들은 전쟁터로 보내져 군위안부로 이용되었다.…일제 말기에 군위안부로 동원된 조선 여성들의 수는 수십만명으로 추산될 뿐…이들 여성 가운데 많은 사람이 전쟁 중에 희생되었다…귀국한 사람들은 대부분 전쟁 중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오랫동안 극복하지 못한 채 불행한 삶을 영위하여 왔다(한국근현대사 p. 163).

물론 많은 여성들이 역사적 위기 속에서 희생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사회적 모순을 혁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극단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를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런데, 현재의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균형적으로 표상하기 보다는 남성의 뜻에 따르거나 그들에게 이용되는 소극적인 여성, 역사적 위기 속에서 희생당한 여성의 이미지를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어 역사적 주체로서 여성을 자리매김하는 데에는 결정적 한계가 있다. 그 결과, 역사의 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하는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조차 묘사되지 않고 역사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와 국가를 걱정하는 남성의 이야기를 듣는 일방적으로 듣는 벙어리 청중으로, 남성들이 만들어가는 역사의 배경 정도로 위치 지워진다.

> 가을에 한 늙은 아전이 대궐에서 돌아와서 처와 자식에게 "요즘 이름있는 관리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여도 나랏일에 대한 계획이나 백성을 위한 걱정은 하지 않는다. 오로지 각 고을에서 보내오는 뇌물의 많고 적음과 좋고 나쁨만에 관심을 가지고...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하고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려 마지 않았다(국사 p. 129).

기껏해야 여성들은 남성이 주도하는 역사의 흐름에 참여한 일부로 표상된다. 개화파가 주도한 갑신정변의 협조자인 궁녀 고대수(한국근현대사 p. 67)나 남성지식인과 상공인들이 주도한 국채보상운동이나 물산장려운동에 참가한 부녀자(한국근현대사 p. 111)가 그 예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여성의 존재나 그들이 전개한 활동은 그 자체의 특수한 의미를 부여받기 보다는 전체 의미를 구성하는 일부로서 역사적 위상이 주어진다. 우리나라 여성운동사의 본격적인 장을 열었던 근우회 역시 그 자체로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기 보다는 신간회의 '자매

단체'(한국근현대사 p. 209)로서 민족해방운동의 일부로 역사적 생명력을 부여받고 있다.

> 여성단체들은 1927년 신간회의 창립을 계기로 '조선 여자의 공고한 단결과 지위 향상' 을 목적으로 민족 협동전선체인 근우회를 출범시켰다...1931년 신간회가 해소되면서 근우회도 해체되고 말았다.(한국근현대사 p. 217)

경제의 발달에 있어서도 여성은 남성과 사뭇 다른 면모로 비추어진다. 일례로 군역에 나가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집안을 부양하는 아들과 달리, 그의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여 스스로의 생계도 꾸려가지 못한 채 아들의 봉양을 일방적으로 받기만하고 집안의 유일한 가재도구를 시주할 정도로 경제관념이 희박한 존재(국사 p. 143) 또는 상업활동 보다는 고부간의 심리 갈등에 열중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 (신윤복의 그림) 어물장수
> 젊은 아낙이 팔 물건을 잔뜩 이고 지고 시장에 나가려 한다. 물건을 다 팔고 와야 한다는 시어머니 잔소리에 아낙은 토라져 "예"하고 대답한다(한국근현대사 p. 15).

경제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것 이외에 두드러지는 것은 경제적 약자로서 착취 당하는 여성의 모습이다. 특히, 일제시대에 경제적으로도 우리 민족이 수난을 겪을 당시, 여성들은 견뎌내기 힘든 각종 착취와 저임금에 시달리며 특히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나타난다.

> 어두컴컴한 공장에서, 감독의 무서운 감시와 100도 가까운 열기 속에서 뜨거운 공기를 마시며 육골이 쑤시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노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는 대개 15-16세 혹은 20세 전후로 그 대부분은 각지 농촌에서 모집되어온 사람이다. 그들은 하루 최고 15-16전으로 6-7년간 이런 환경 속에서 괴로운 훈련을 겪은 다음에야 겨우 40-50전을 받는다...이 여성들의 낯빛은 중병 직후의 환자와 같고 몸은 쇠약할 대로 쇠약하여 졸도하는 일이 허다한데, 공장 내에는 특별한 규율이 있어 조금이라도 그 규율을 어기면 즉각 매

를 맞는 형편이었다(국사 p. 375).

이외에 부분적으로 “부녀자들이 삼베, 모시, 비단 등을 짜는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국사 p. 152)하는 점을 지적하는 등 여성들의 경제적 역할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농업분야를 담당하는 것으로 당연시되는 남성들이 경작지를 확대하고 수리시설을 발달시키고 농기구와 종자를 개량하고 우경이나 시비법과 같은 새로운 농법을 개발하여 생산력을 높이는 것과 달리(국사 p. 152) 직조의 경제적 가치나 직조기술의 발달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경제구조의 발전에 있어 적극적인 기여를 하는 여성의 모습도 찾을 수 없다.

그나마 여성들이 남성들의 목표 추구의 수단이나 착취의 대상이 아닌 행위의 주체로서 등장하는 것은 문화 분야에서이다. 물론 학문이나 문학, 그림, 음악, 무용, 영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후세에 남길 만한 업적을 낸 수 많은 남성들에 비하면 문화사에 남을 만한 여성들은 첨성대를 세운 선덕여왕과(국사 p. 247) 위기에 처한 불교를 보호한 문정왕후(국사 p. 296)나 문학과 그림 등에서 재능을 보인 황진이와 신사임당, 허난설헌(국사 p. 303), 수와 매듭 작품을 만든 부녀자(국사 p. 305), 판소리나 산조, 잡가 등을 창작한 기생들(국사 p. 327) 정도이다.

수적인 불균형 이외에 이들 여성들에게는 ‘여왕’, ‘여류(女流)’라는 틀 속에서 제한된 가치만이 부여된다. 진흥왕은 황룡사를 짓고 백제 무왕은 미륵사를 지으면서 국가의 팽창 혹은 중흥 등 자신의 역사적 목표를 추구한 것(국사 p. 253)으로 비춰지는데 비해, 선덕여왕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첨성대를 지어 역사적 족적을 남긴 존재가 아니라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천체관측대인 첨성대가 지어진 시기의 통치자로만 등장한다. 남성들이 불교를 도입하여 교리를 발전시킨데 비해, 여성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불사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지원”(국사 p. 195)하거나 문정왕후처럼 위기에 처한 불교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후원자일 뿐이다.

남성들은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여 '고매한 정신세계'(국사 p. 306)를 담아내거나 사회적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이상을 추구하면서 문화의 세계를 구축해온데 비해 '여류작가'들은 남성에 의해 문화적 저변이 확대됨에 따라 등장해 부녀자들의 섬세한 감성이나 남녀간의 애정과 이별에 대한 정한을 그리는데 집중한 것으로 그려진다. 따라서 여성작가들은 문화 발달에 대한 기여가 다소 떨어지며 남성에 비해 특별한 관심을 둘 필요 없이 간단한 언급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치부된다.

> 설화문학은 김시습이 지은 금오신화와 같이 구전 설화에 허구적 요소를 가미하여 소설로 발전되기도 하였다. 금오신화는 평양, 개성, 경주 등 옛 도읍지를 배경으로 남녀간의 사랑과 불의에 대한 비판 등 민중의 생활 감정과 역사의식을 담고 있다. … 새롭게 발전한 가사문학에서는 송순, 정철, 박인로의 작품이 뛰어났다. 정철은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같은 작품에서 풍부한 우리말의 어휘를 마음껏 구사하여 관동지방의 아름다운 경치와 왕에 대한 충성심을 읊은 것으로 유명하다.(국사 pp. 302-303)
> (김시습이나 정철과 같은 남성에 의해) 문학의 저변이 확대됨에 따라 여류문인들도 많이 나왔다. 신사임당은 시, 글씨, 그림에 두루 능하였고 허난설헌은 한시로 유명하였다.(국사 p. 303)
> …신사임당은 풀과 벌레를 소박하고 섬세하게 그려 **여성의 심정**을 잘 나타내었다. 황집중은 포도를, 이정은 대나무를, 어몽룡은 매화를 잘 그렸는데, 이들은 **고매한 정신세계**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으로 유명하였다.(국사 p. 306)
> 한글소설인 허균의 홍길동전은 서얼에 대한 차별의 철폐, 탐관오리의 응징을 통한 이상사회의 건설을 묘사하는 등 당시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국사 p. 323)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부분은 역사적 위기의 순간에 민족을 수호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 데에서 찾을 수 있다. 3·1운동의 상징인 유관순(한국근현대사 p. 18, 180)나 여성독립운동가 남자

현(한국근현대사 p. 195), 4·19혁명에 참가한 여학생(한국근현대사 p. 279)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그런데, 민족해방운동을 위해, 민주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이들은 여성으로서 특수한 삶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기 보다는 성별을 초월해 민족의 일원으로 존재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다) 성 평등 지향성

역사를 돌이켜보면,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왔고 이를 규정하는 관습도 다양하게 발달되어 왔다. 이 가운데에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명백히 구분하고 여성에게 강력한 사회적 제약을 가했던 측면도 있는 반면, 비교적 유연한 성별구조 속에서 여성에 대한 제약이 분명히 발달하지 않고 나아가 여성 중심적인 요소까지 발견할 수 있는 면도 있다. 이와 함께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제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여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도 역사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역사 속에 나타난 여성 차별적 관습과 여성 중심적 요소를 일부 반영하고 있기는 하다. 옥저의 민며느리제와 고구려의 서옥제(壻屋制)[10] 풍습이 그 대표적 예이며, 성종실록에서도 조선시대까지 처거제 풍속이 시행되었다는 점을 기록하고 있다(국사 p. 221). 여성의 지위와 권리 측면에서 결정적 함의를 지닌 이러한 제도의 존재에 대해 지극히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 그것이 지니는 역사적 가치, 특히 성 평등의 관점에서 각 관습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석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

[10] 민며느리제: 장래에 혼인할 것을 약속하면, 여자가 어렸을 때 남자 집에 가서 성장한 후에 남자가 예물을 치르고 혼인을 하는 일종의 매매혼이다(국사 p. 40).
서옥제: 혼인을 정한뒤 신부 집의 뒤 곁에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제도이다(국사 p. 39, 190).

여성의 지위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고려시대는 물론이고 조선중기까지도 유산상속이나 봉제사, 호적입적, 거주율, 재가 등에 있어서 성에 따른 차별이 없었고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이다(국사 p. 205, 225). 그런데, 이 점을 언급함에 있어 여성들의 지위가 보장되는 우리의 전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부계중심의 가족제도가 확립되고 그에 따라 여성의 지위가 급격히 하락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국사 p. 226-227). 그리고 여성의 비교적 높은 지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는 별 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들의 극히 낮은 지위는 보다 극명히 제시되고 있다.

> - 노새보다 나을 게 없는 조선 여인 -
> 내게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다. 아침, 낮, 저녁 언제든지 골목길을 다니면서 아무리 보아도 남자들이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작고 못생기고 바짝 마른 여자들이 집안일과 음식을 하고 빨래(등)... 모든 일이 여자의 손에 달려 있다. 자기 아내를 존중하는 태도가 낮을수록 그나라의 문화수준이 낮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 조선 여인들은 노새보다 나을 게 없다. 말하자면 남자들은 노예를 얻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것이다. 여자들은 이름도 없이 무시당하고 법 자체가 여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외국인이 본 조선 여인) (한국 근현대사 p. 119).

역사적 과정 속에서 여성들의 낮은 지위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는데, 이에 대해 교과서에서는 동학과 개신교의 평등사상과 갑오개혁의 내용 등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국사 p. 234, 366, 368) 신간회의 운동 방향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작성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등에서도 여성 보호와 남녀 평등 등을 천명하였다(한국근현대사 p. 211, 177)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종명과 같은 인물과 근우회를 비롯한 여성단체의 활동을

통해 여성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인습적 제약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을 확산시켜 나갔다. 또한 역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졌던 착취와 폭력을 사회적 의제화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도 펼쳤다(한국근현대사 p. 163, 336). 그런데, 여성 차별적 관행과 제도, 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압을 문제 삼고 이를 해결하려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노력은 그 자체로서 충분한 가치를 부여받기 보다는 노동, 농민, 청년, 학생운동(국사 p. 373)과 같은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일부로 보거나 민족주의 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과의 관련성 속에서 역사적 의의를 찾는 경향이 강하며, 그러한 노력이 발전해가는 과정에 대한 충분한 관심도 발견하기 힘들다.

> 여성운동도 1920년대 초반기에는 대체로 민족주의의 영향 아래 가부장제 혹은 전통적 인습 타파라는 주제로 계몽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중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여성해방의 문제를 계급해방, 민족해방의 문제와 연결 지으면서 사회주의운동과 결합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국사 p. 375).

> 여권신장과 여성해방운동의 움직임도 나라 잃은 민족의 독립운동과 관계가 깊었다. 일제 강점 직후 극소수의 여류 지성인들은 봉건적인 인습으로부터의 여성해방, 근대적인 여권 향상을 목마르게 부르짖었지만, 그들의 발언과 주장은 낭만적인 절규에 불과하였고,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를 일반적으로 확립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순종적인 황국 신민의 여인상을 강조하는 일제의 정책으로 넓은 대중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남존여비사상 및 유교적 도덕률에 얽매여 있던 대부분의 한국여성들로부터 외면당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의식은 그 뒤 기독교계통의 신교육 지식인과 사회주의계의 여성운동가들에게 좀 더 발전적이고 세련된 형태로 계승되었다(한국근현대사 p. 219).

(2)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의 위상

(가) 성 중립성

세계사 교과서는 신석기시대에서부터 동서양에 걸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 계층이 역동적인 역사를 전개해온 과정을 기술하면서 '역사를 만드는 것은 인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장을 열어온 대표적 인간으로 예시한 것은 대원군, 양반유생, 메이지유신의 주체, 덩샤오핑과 장쩌민[11] 등 모두 남성들이다(세계사 p. 18, 19). 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역사과정을 재구성한 것 역시 사마천과 같은 남성들임을 당연시하고 있다(세계사 p. 19). 뿐만 아니라, 굵직굵직한 역사의 계기마다 '인간'은 '남성'으로 전환되어 표상된다. 신석기혁명은 수렵을 하던 남성이 농경을 하는 남성으로 변화한 것으로 상징되며(세계사 p. 30), 청동기 혁명 역시 동검을 포함한 각종무기로 무장한 남성의 모습으로 가시화된다(세계사 p. 32). 이후 역사발전은 남성의 영역으로 당연시되는 농기구와 무기로 대변되는 농업과 전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다양한 인종, 민족과 계층 출신의 남성들이 정치구조를 변화시키고 사회적 변혁을 가져오며, 경제구조를 발달시켜온 역사로 가득차있음을 보여주는데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역사가 인간-남성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남성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남성에 의해 재구성된다는 점을 당연시하는 한편, 일견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집단들은 어느새 남성들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선거권 확대과정에 있어 '귀족', '젠트리', '신흥상공업자', '소시민', '노동자'는 남성들 사이의 구분을 의미하며, '여성'은 이

[11] 중국 인명의 표기는 신해혁명 이전 인물은 우리말 한자발음으로, 이후 인물은 중국어발음으로 적는 현행 표기원칙을 따른다. 단, 지명은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할 경우 지나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우리말 한자발음으로 적기로 하고, 다만 소수민족거주지역의 경우 그들의 고유지명을 음차하여 한자로 옮겨놓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중국어 발음으로 적는다.

와는 별개의 집단으로서 신분적 구분 없이 하나의 집단으로 총칭된다(세계사 p. 211).

그런데, 역사과정 대부분에서는 이러한 '여성'들이 존재했으며 그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 명시되지 않는다. 수렵을 하던 남성이 농민으로 변화하는 사이, 직조와 방적기술 역시 혁명적 발전을 이룩하면서 진정한 신석기 혁명이 완성되었다(세계사 p. 31). 그런데, 이러한 기술발전이 여성들의 존재 없이는 불가능했으며 여성들의 땀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교과서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여성의 존재와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에도 그 부분에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 중국 명-청시대의 경제발전에 있어 견직 생산과 차 생산이 중심이 되었으며, 이는 견사공방과 차 농장의 여성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세계사 p. 159 사진참조). 또한 여성들은 선대제로 가내에서 직물을 생산하면서 유럽의 근대경제 발전을 도모해왔다(세계사 p. 198).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장면에 대해 교과서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분리와 분업현상만을 주목할 뿐, 직물이나 차를 생산하면서 역사를 만들어온 여성들의 존재와 그들의 중요한 역할, 자본과 노동의 분리과정에서 여성지위의 변화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사 전반에서는 표면적 성 중립성은 남성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명시되거나 남성임이 분명한 개념이 '인간', '귀족' 등의 성 중립적 개념으로 전환됨으로써 결국 역사의 무대를 인간의 대표자인 남성들이 장식해왔다는 점이 당연시되는 경향이 짙다. 반면, 여성은 그 무대에 존재하지 않거나 지극히 주변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나) 성 특정성

세계사 교과서에는 동서양의 역사에 어떤 방식으로든 족적을 남긴 다양한 여성들이 등장한다. 물론 남성임이 분명한 인물이나 집단에

비하면 수적으로는 크게 제한되지만, 클레오파트라(세계사 p. 62, 73)나 영국의 메리여왕(세계사 p. 203), 빅토리아 여왕(세계사 p. 238), 엘리자베스1세(세계사 p. 190), 러시아의 에카테리나 2세(세계사 p. 192, 193), 중국 청대의 서태후(세계사 pp. 230-231) 과 같은 최고 통치자에서부터 체력을 단련하는 스파르타의 소녀(세계사 p. 57), 메소포타미아의 영웅 길가메시에게 충고하는 여성(세계사 p. 39)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여성들이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가운데 수적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여성은 왕에서부터 농민, 농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 출신의 남성의 파트너이다. 한편으로 로마제국의 주요 인물로 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안토니우스의 파트너인 클레오파트라(세계사 p. 62)나 세계의 대표적 유산인 타지마할 묘궁을 세운 샤자한 황제의 부인, 몸타즈 마할 왕비(세계사 p. 167)에서부터 농민과 시민계급, 귀족의 부인 등 다양한 계층의 가족원, 특히 남성이 이끄는 가족의 일원으로 등장한다(세계사 p. 35, 144, 145, 191 그림, 195 그림, 217).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한 여성들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 실천을 도모하는 주체가 아니라 정치적 경쟁과 전쟁, 혁명, 문화유산의 생산 등의 역사적 실천을 추진하는 남성의 옆에 서 있는 배경이거나 가내 노동을 통해 남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원일 뿐이다. 이외에 여성들은 재생산력, 성적 상징으로서 남성들의 호기심과 애욕의 대상으로 등장하기도 한다(세계사 p. 30, 73, 183).

이와 함께 여성들은 크고 작은 위기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카슈미르 분쟁에서 인도군의 발포로 사망하는가 하면(세계사 p. 175) 전족을 비롯한 봉건적 관습으로 고통받기도 한다(세계사 p. 229). 뿐만 아니라, 권력자의 정치적 의도로 위기에 놓이기도 한다(세계사 p. 15). 그런데, 여성들이 이러한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데에는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남성들의 의로운 행동이 주효했다. 무제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였던 이릉의 어머니와 처자를 구하기 위해 사마천은 백방으

로 노력했으며(세계사 p. 15), 전족으로 고통받는 중국의 여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태평천국운동을 이끈 홍수전이나 변법사상가 캉유웨이 등의 이념의 일부를 구성했으며 신문화운동에서도 여성해방을 의제에 통합시켰다(세계사 p. 229, 230, 269). 이처럼 여성들은 위협에 쉽게 노출되면서도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보다는 남성의 존재에 의존해 있는 존재로 그려진다. 심지어 최하위 계층인 노예의 놀림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남성의 도움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정도로 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이다(세계사 p. 65).

이와는 달리 가장 적극적인 여성은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민족의 앞날을 위해 뛰어든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의 위협 앞에 놓인 프랑스 민족을 구원했던 잔다르크(세계사 p. 143)나 인도의 잔다르크라 할 만한 세포이항쟁의 초기 지도자 락슈미 바이(세계사 p. 238), 인도네시아 자바 민족주의운동의 선구자 카르티니(세계사 p. 243) 등 동서양을 막론하고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여성들의 활약은 돋보였으며, 남성들을 위해 서비스하고 그들의 보호 속에서 삶을 지탱하며 그들의 이상으로 새로운 삶을 약속받는 여성들과는 다른 적극적인 면모를 드러내보였다. 그런데, 이들은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 속에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부여받기 보다는 남녀를 초월한 민족의 일원으로서 역사의 장에 존재했던 것이다.

이외에 교과서에서는 다도를 하는 일본 여성(세계사 p. 95 사진)이나 케착댄스를 추는 발리의 무희(세계사 p. 98사진) 등 민족문화의 실행자로서 여성의 이미지가 표상되기도 하지만,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역사적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처럼 동서양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여성 인물이나 집단 가운데 동북아 지역의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중국여성으로서는 사마천의 도움을 받았던 이릉의 어머니와 처자(세계사 p. 15), 남편이 나가 일하는 사이에 함께 모여 베를 짰던 하·은·주 시대의 부인(세계사 p. 35) 등이 등장하지만, 이들의 존재는 중국의 역사와 긴밀히 관련되어 소개되지 않는다. 중국 여성으로서 그 역사적 존재가 부각되는 것은 전

족이라는 비인간적 봉건 관습 속에서 불구의 발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여성(세계사 p. 229)과 중국 역사를 결정적 위기로 몰아넣은 부정부패의 상징인 서태후(세계사 p. 230, 231) 정도이다.

> 중국의 근대화는 소수 교관들의 게임이 되어 버렸다. 그들은 근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무기력한 환경 아래서 자금을 모으고, ...일본의 메이지 정부와는 달리 서태후 조정은 그들에게 아무런 후원도 제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태후는 보수파들에게 혁신파들을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였다....중국 해군에 쓰일 자금이 서태후의 여름 궁전을 짓는 자금으로 전용되어버리는 추문이 발생하였다(세계사 pp. 230-231).

일본 여성 중에는 텍스트에 분명히 등장하는 여성이 없으며 게이샤인 듯한 일본 여성(세계사 p. 177사진), 다도 하는 여성(세계사 p. 95)의 형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외에 [한국근현대사]에서는 일본 다이쇼 시기의 여성의 정치 참여와 사회적 권리를 높이는데 힘썼던 신부인협회에 대해 간략히 다루고 있지만(한국근현대사 p. 152), 일본이나 동북아의 역사적 흐름 속에 있었던 여성의 존재와 신부인협회가 지니는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처럼 동북아 역사에 있어 여성의 존재는 확인하기 힘들고 그 내용도 매우 빈약하여 단지 '전족으로 고통 받는 중국 여성',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은 서태후', '남성에게 봉사하는 게이샤' 등 몇 가지 스테레오 타입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며 그 나마도 부정적인 함의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로는 동북아 여성을 각국은 물론이고 동북아, 나아가 세계 역사의 발전에서 일익을 담당하며 역사의 씨실과 날실을 엮어왔던 주체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역사의 발전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무기력한 희생자로 남아있는 여성으로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기 쉽다.

(다) 성 평등 지향성

세계사 교과서에서 여성에 대한 다양한 차별이나 억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거의 찾기 힘들며 중국여성들이 전족으로 대표되는 봉건적 관습 속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던 정도가 설명되고 있을 뿐이다. 이외에 여성의 선거권 제한이나 교육기회의 제한 등이 암시되고 비참한 빈민여성들의 생활상(세계사 p. 218)과 자본주의 발달로 인한 노동문제의 일부로서 부녀자 노동문제(세계사 p. 201)등이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성들이 직면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개되었던 다양한 실천 가운데 교과서에서는 카르티니를 중심으로 한 인도네시아 여성교육운동(세계사 p. 243)이나 서구의 여성 참정권 운동(세계사 p. 267) 등을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운동이 역사적 동력으로서 어떠한 방향으로 작용하여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나 선거권 확대를 가져 왔는지 해석하기 힘들 뿐 아니라, 여성들의 운동 보다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가 선거권의 제한을 없애고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다(세계사 p. 266)는 식으로 국가가 시혜적 차원에서 참정권을 부여한 것처럼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함께 전족과 같이 극단적 억압 상태에 놓여있던 여성의 해방을 위한 움직임도 중요한 역사적 관심사에 통합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여성운동의 향방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대신 홍수전과 캉유웨이 등 주요 남성인물들의 사회개혁이상에서 여성해방의제가 등장한 것만이 소개되고 있어 양성 평등을 향한 역사적 실천 역시 남성에 의해 주도되어 온 것으로 해석되기 쉽다.

> 홍수전은 오랫동안 토지없는 설움에 시달려온 농민들과 남성에게 의존하여 수동적으로 살 것을 강요당해온 여성들을 위해 새로운 토지제도의 시행과 남녀차별폐지, 전족금지 등의 구호를 내걸었다(세계사 p. 229).

나. 중국

(1) 자국 여성문화유산의 위상

(가) 성 중립성

중국 역사교과서의 대부분은 한국 역사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인류', '농민' 등 일반적 개념을 사용하여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서술방식 속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철저하게 간과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유명한 여성인물들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고대사의 경우 초기 모계씨족사회에 대한 언급(뒤의 '성평등 지향성' 부분에 서술) 외에는 여성에 대한 언급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중국 고대의 전설은 염제(炎帝), 황제(黃帝), 요, 순, 우 임금 등 남성 위주로 서술되어 있다.[12]

초기 역사는 주로 농경과 상업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수공업에 대한 서술에서 주로 여성들이 맡았을 방직업에 대한 언급도 나오지만 이는 '성 중립적'으로 서술되어 여성의 역할은 드러나지 않는다.

> 상주(商周)시대 옥 가공과 방직업은 크게 발전하였다. 상대의 옥기(玉器) 조각은 정교하고 아름답고 수량도 많았으며, 안양(安陽) 부호(婦好)묘에서 출토된 옥기만도 7백여 점이

---

[12] 교과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순 임금의 두 부인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과 관련하여 김선주(2005)는 이 여성들에 대한 신화 전설이 그들을 '남편 순임금이라는 영웅을 만들어내고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강조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중국 신화에서 여성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역할이라고 분석하였다. 그 외에도 중국 고대 신화에서 대표적인 여성으로는 곤륜산에 산다는 서왕모(西王母)와 인류를 창조했다는 여와(女渦)가 있는데, 배진영(2005)은 현대 고고학적 발굴에서 초기 신들이 여신이었음이 증명되고 있는데도 중국의 신화에서 여신은 점점 남신에 종속되는 위치로 전락되었고 반고(盤古)는 남신으로 바뀌면서 여와는 반고와 남매 사이로 둔갑하였다는 점, 그리고 서왕모의 모습이 최초의 무시무시한 괴수의 모습에서 점차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화해 온 점은 바로 중국사회가 가부장적 부권사회라는 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 었다. 서주(西周)의 실크 제품은 능직(綾織) 방식으로 짠 자카드 무늬의 직물도 있고 자수품도 있어서, 당시 방직업이 크게 진보하였음을 보여준다(중국 고대사 p. 8).
> 전국(戰國)시대 방직업에는 새로운 진전이 있었는데 장사(長沙) 초(楚)묘에서 출토된 전국시대의 삼베조각 섬유는 매우 세밀하게 짜여져 있다(중국 고대사 p. 16).

다만 서한(西漢)시기의 우수한 여성 방직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이, 교과서 전체를 통틀어 방직업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유일한 언급이다.

> 서한(兩漢)시기 방직수준은 매우 높아서 면, 솜, 비단, 견직물 등 여러 가지 품종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 시기 장안(長安), 임치(臨淄) 등에는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관영 방직업이 있었다. 진보광의 처(陳寶光妻)로 알려진 여성은 이 시기 민간에서 가장 우수한 방직가로서, 그녀가 전수한 방직법과 직물들은 여러 종류의 아름다운 무늬들로 이루어져 있었다(중국 고대사 p. 39).

그 외에 중국 고대사 서술은 주요 왕들의 업적과 왕조 교체, 그리고 중국 교과서의 특성상 소수민족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중국의 역사에서 물론 정치는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당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치에 관여했던 여성 인물들에 대한 발굴과 재해석이 최근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문현실(2005)은 후한(後漢)시대 여섯 명의 황후가 연이어 정치에 관여하며 섭정을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제한적으로나마 중국 여성사에 미친 영향과 의미에 대해 재평가하였고, 김성희(2005)는 북위(北魏) 시대 실질적 통치자의 역할을 하였던 문명태후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의 중국 역사교과서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중국 정치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는,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여화

(女禍)라 하여 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중국의 전통적 관념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한대(漢代)는 사실 『열녀전(烈女傳)』, '여계(女戒)', '여훈(女訓)' 등 여성에 대한 윤리규범서가 쏟아져 나온 시기로 특히 반소(班昭)라는 여성이 지은 '여계'는 이후 중국 뿐 아니라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친 여성교육의 지침서로서, 남존여비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라 여겨져 왔으나 최근 이것이 당시 상황의 한계 속에서 오히려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씌어졌다는 새로운 해석들이 나오면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중요한 책이다. 한국 연구자 이명화(2005)는 이처럼 한대(漢代)에 쏟아져 나온 지침서들을 보면 당시 사회가 여성을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철저히 종속시키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한대에는 정절 관념도 별로 중요시되지 않았고 이혼과 재혼도 빈번히 행해졌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중국 역사교과서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후 봉건시대 역시 국가들의 분열과 민족들의 융합이라는 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되어 있으며, 다만 위진남북조 시대 문학예술가에 대한 서술에서 여자 서예가 위부인에 대한 언급이 한번 나온다.

> 동진(東晋)시기의 여자 서예가 위삭(衛鑠)은 위부인(衛夫人)이라 불리웠는데, 왕희지가 어릴 때 그녀에게서 서법을 배워 붓을 정확히 잡는 법을 익히게 되었다. 왕희지의 처 역시 서예가였다. 일부 저명한 왕희지의 글씨는 그의 처가 대필한 것이다(중국 고대사 p. 64).

수·당 시기도 주요 농민전쟁, 제도의 혁신, 농업·상업의 발전 위주로 서술되어 있으며, 이 시기 수공업에 대한 서술 또한 '성 중립적'으로 서술되어 여성의 역할은 간과되고 있다.

> 수당(隨唐)시기 수공업 발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첫째, 생산지가 널리 분포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견사 제품이 전국 각지에 퍼졌고, 도자기를 굽는 가마도 중원 지역과 강남의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철 생산지도 전국에 100여 곳 있었다. … 견직 제품에는 능직과 면직 등 10여 가지 종류가 있었고 각 종류마다 다시 숱한 품종으로 세분화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능직에는 20여 품종이 있었다(중국 고대사 p. 80).

이 시기의 역사서술에서 여성은, 당시 유행한 남장 또는 유목민족 복장(胡裝)에 대한 내용에서 잠시 등장할 뿐이다.

> 수당(隨唐) 시기 왕이 종종 외출하여 순례하자 왕을 따르는 관원들은 편리를 위해 변장을 즐겨하였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점차로 귀천의 구분 없이 모두가 변장을 즐기게 되었다. 당대(唐代)에는 중원 사람들이 유목민족 옷과 신발을 신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사대부와 여자들은 모두 유목민족 풍의 옷과 모자를 입고 쓰게 되었다. 서역지방 풍속의 영향을 받아 부녀자들 사이에서는 남장이 유행하였다. 당시의 여자 옷차림은 가슴부분에 트임이 있고 옷소매가 좁은 것이 유행으로서, 이는 당대의 비교적 개방적인 사회풍조를 반영하고 있다(중국 고대사 p. 83).

이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서술에서는 '시가(詩歌)의 황금시대'라는 제목으로 이백, 두보, 백거이 등 유명한 남성 문인만이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 이 시기는 여류시인들이 탄생한 시기로서 매우 중요하다. 여자는 '재주가 없는 것이 미덕(無才便是德)'이라는 관념이 팽배해 있었던 중국 전통사회에서 일군의 여류시인이 등장하였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설도(薛濤)는 지금도 그녀가 살았던 사천성에 동상이 남아있는 유명한 시인이다. 김승심(1991)은 당대(唐代)의 대표적 여류시인으로 이야(李冶)·설도(薛濤)·어현기(魚玄機)를 들면서, 이렇게 손꼽히는 여류시인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

에 대해 다음의 요인들을 지적한다: 첫째, 당시 군주들은 대부분 시를 지을 줄 알았고 시로써 사대부를 뽑아 시 짓는 기풍이 여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제왕들이 도교를 숭배하면서, 엄격한 유교에 대한 반동으로 급속히 도교가 발전하였고, 여성들도 자유로움을 만끽하면서 무릉도원에 속속 들어가 시 짓는 일에 몰두하기도 하였다, 셋째, 대표적 여류시인들은 모두 여도사(女道士)였는데, 이는 그들이 전통적 사회관습 속에서도 사대부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예교(禮教) 사상에 얽매일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자유로이 시를 지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부분은 모두 중국 역사교과서에는 누락되어 있다.

청나라 시기에 대한 서술 역시 정치적 사건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특히 민족주의를 고취시킬 수 있는 아편전쟁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 속에서 여성은 등장할 여지가 없으며, 부정적으로 서술되는 서태후(구체적인 내용은 뒤의 '성 특정성'부분에서 서술) 외에는 여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중국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격동의 시기였던 청조(淸朝) 말기 혁명과정과 20세기 초의 신문화운동(新文化運動)과 5·4운동, 항일전쟁과 인민해방전쟁,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에 이르는 과정까지 교과서 어디에서도 여성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실제로 많은 여성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고 그 중에는 유명한 여성혁명가들도 많이 있었으며, 일부는 무정부주의적 여성해방사상을 지니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반청(反淸)혁명과 민족해방을 제1목표로 하여 그 속에서 여성해방을 추구하면서 혁명과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중국 역사에서, 특히 근현대사에서 여성은 많은 역할을 하였고 반청혁명, 항일전쟁, 공산혁명 등 오늘날의 중국건설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중립적으로 보이는 역사교과서의 서술 속에서는 거의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나) 성 특정성

중국 역사교과서에서는 여성에 대한 서술 자체가 극히 적은 양이므로 성 특정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교과서에서 최초로 여성이 등장하는 것은 모계씨족사회에 대한 간단한 언급(중국 고대사 p. 2)이고, 그 후에는 서한(西漢) 시기의 우수한 여성 방직가에 대한 언급(중국 고대사 p. 39), 위진남북조 시대 여자 서예가 위부인에 대한 언급(중국 고대사 p. 64) 외에는 중국 고대사는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그러나 사실상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간과하는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 고대사와 근현대사, 세계사 교과서 전체를 통틀어서 여성 인물에 대한 서술 중 서태후 다음으로 최고의 지면이 할애된 인물은 중국 유일의 여황제인 무측천(측천무후, 武則天)으로서, 사실 무측천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교과서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 당(唐) 고종이 쇠약해져 병이 많자 황후 무측천은 조정일을 도우며 점차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당 고종 별세 몇 년 후 무측천은 왕이 되었고 국호를 주(周)로 바꾸었다.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였던 무측천은 농업생산을 중시하였고 파격적으로 사람을 쓸 줄 알았으며, 과거제도의 발전을 중시하였다. 인재를 널리 구하기 위해 그녀는 '자천(自薦)' 제도를 만들어 숱한 재능있는 서인(庶人)들이 파격적으로 임명되었다. 무측천이 정권을 잡았던 반세기동안 사회경제는 계속 발전하였고 국력은 계속 상승하였다. 그러나 무측천 말년 정국은 점점 불안해졌고, 당 현종이 즉위해서야 비로소 혼란국면은 진정되었다(중국 고대사 p. 71).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무측천에 대한 논쟁 속에서도 어느 정도

공유되는 바로서, 무엇보다도 봉건사회가 가장 발달한 시기에 여성 황제로 보위에 올랐고 능력있는 사람을 임용하였으며 무측천의 통치 시기 경제와 국력이 강성하였다는 사실은 널리 인정되는 바이다. 당 고종과 그의 아들 태종 모두를 사로잡았던 아름다움과 걸출한 매력으로 무측천은 최근까지도 영상물, 극, 학술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로 주목받아 왔으며, 지금도 고향 산서성 문서현에는 당나라 때 만들어지기 시작한 측천성모(則天聖母)묘가 남아있다(조문윤·왕쌍회 2004).

다음으로 등장하는 여성은 송대(宋代)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인(文人) 이청조(李淸照)이다.

> 걸출한 여류 사인(詞人) 이청조의 사(詞)는 에둘러쓰는 스타일이되 감정표현은 직설적이며 분명하였고 생활의 냄새가 짙게 배어있었다. 중년 이후 금나라 군대가 남하하자 그녀도 남쪽으로 가서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작품들을 썼으며 그 중 일부는 중원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글들도 있다(중국고대사 p. 121).

이안거사(易安居士)라는 호를 가졌던 이청조는 가히 송대 문학을 대표한다고까지 할 수 있는 문인으로서, 생생하고 자유로운 언어구사로 후대에 널리 알려져 있다(홍우흠 1981 참조).

다음으로 중국 교과서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은 서태후(西太后, 慈嬉太后)로서, 일반적인 통념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권력욕에 사로잡힌 인물로만 묘사되어 있다. 최근 서태후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교과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 1861년 가을 함풍황제가 병으로 사망한 후 6살의 황태자인 재순이 왕위를 계승하였고, 재환·숙순 등 8명의 대신이 보좌를 하였다. 재순의 생모인 서태후는 황제가 어린 것을 빌미로 하여 청조(淸朝)의 최고 통치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서태후는 서신을 보내어 황태후에게 수렴청정을 하라고 청하였으나 대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서태후는 단독

〈사진Ⅲ-1〉 서태후

으로 혁흔(奕訢, 공친왕, 함풍황제의 동생)을 만나서 대신들을 제거할 것을 모의하였다. 혁흔은 이 일은 수도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서태후는 열강들이 반대할 것을 우려하였으나 혁흔은 외국은 이의가 없음을 보증한다고 하였다. 서태후는 결심을 하고 정변을 일으켰다. 서태후는 혁흔에게 먼저 수도로 돌아가 준비하도록 명하고는, 함풍황제의 관을 지키는 중요한 일을 일부러 대신들 중 핵심인물인 숙순에게 넘기고 나머지 7명의 대신에게 자신과 북경에 가도록 하였다. 북경에 도착하자 7명의 대신을 모두 체포하고 파면하였으며 숙순은 죽였다. 그리고는 서태후는 수렴청정을 선포하고 연호를 '동치(同治)'라 정하여 재순은 동치제(同治帝)가 되었다. 그리고는 혁흔을 의정왕에 임명하였다(중국 근현대사 상권 p. 33).

그리고는 여성은, 19세기 중국에서 점차 자본주의가 생겨나고 무산계급이 탄생하면서 공장의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게 되었다는 서술에서 여공(女工)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 영파(寧波)지역 공장 여공의 일당은 5분(分)(한국돈 약 6원)에서 9분이며, 중경(重慶)지역 공장 여공의 일당은 5분5리(厘)이다. 당시 쌀 1근에 2분8리였으며, 여공은 하루내내 일해서 번 돈으로 쌀을 2근도 살 수 없었다. 상해지역 비단 공장의 물은 항상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더웠다. 여공과 어린아이들은 매우 숙련된 몸짓으로 손을 이 뜨거운 물에 담그고 일해서 손은 모두 화상으로 벗겨져 있었다. 얼굴은 열 때문에 벌겋게 되어 심지어 겨울에도 땀으로 젖어있곤 하였다. 공장 안에는 전염병이 유행하여 어느 외국 자본가는 '여기야말로 명실상부한 지옥이다'라고 하였다(중국 근현대사 상권 p. 41).

그러나 이러한 언급은 여성 자체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다기보다는

당시 공장의 주요 구성원이 여성노동자와 어린아이들(童工)이었던 데 기인하며, 이러한 서술은 결국 공산당이 이토록 잔혹한 자본주의로부터 여성들을 해방시켜주었다는 내러티브와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이후에도 보게 되듯 혁명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여성들은 중국의 역사 교과서에서 거의 간과되어 있으며, 여성은 해방과 통치의 대상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격변의 시대였던 중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혁명가였던 추진(秋瑾)은 교과서의 반청혁명에 대한 서술에서 아주 간단히 등장한다.

> 각지에서 반청 봉기들이 일어나면서 고조에 달하였다. 유명한 것으로는 추진, 쉬시린(徐錫麟)이 이끄는 봉기와 쑨원 등이 이끄는 봉기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쑨원이 이끄는 봉기가 영향력이 가장 컸다(중국 근현대사 상권 p. 78).

추진은 '감호(鑑湖)지역의 여협(女俠)', '두건을 쓴(부녀자) 영웅(巾幗英雄)' 등으로 불리웠던 혁명가로서, 청말 여성해방운동의 여러 흐름 중 혁명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 북경에서 의화단운동을 목격하면서 크게 충격을 받았고, 청조의 무력과 부패 그리고 남편의 무지와 방종으로 더욱 자극받아,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동경으로 유학가서 반청혁명, 부녀해방을 주장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중국혁명동맹회의 초기 여성회원이 되었다.

귀국 후 추진은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위험한 두 글자는 암흑이다. … 중국 여성의 삶의 암흑은 어떠한가? 여기까지 생각에 이르면 나는 아득하고 슬퍼져 낙심하게 된다. 이에 우리 동포 여러 자매들에게 분주히 호소하니 이에 '중국여보(中國女報)' 설립의 취지가 있다"(석미자 2005: 11)고 하면서 1907년 '중국여보'를 발간하였

〈사진 Ⅲ-2〉 남장한 추진

〈사진Ⅲ-3〉
'중국여보 (中國女報)' 1호표지

고, 여성교육과 여성체육을 제창하고 여(女)국민군을 계획하였으며 남장을 즐겨 하였다. 추진은 결국 광복군을 조직하고 봉기를 계획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되어 처형당했으며, 지금도 고향 소흥에는 추진의 옛집과 그녀를 기리는 정자, 열사기념비와 광장이 남아있다. 이처럼 지금도 추진이 '열사'라는 이름으로 중요한 기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중국 정부의 민족주의 고취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 인터넷의 추진기념관 사이트는 '민족혼' 영웅시리즈 사이트에 속해 있다.

추진 이후 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은 저명한 여류작가 딩링(丁玲)이다.

> 항일전쟁 승리 이후 저명한 여류작가 딩링의 장편소설 '태양은 상간(桑干)강을 비추고'와 저명한 작가 쩌우리보(周立波)의 장편소설 '폭풍소나기(暴風驟雨)'는 모두 농촌토지개혁을 묘사한 우수한 작품이다(중국 근현대사 하권 p. 83).

이처럼 딩링이 지니는 문학사적 가치나 의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그의 작품 중에서 공산당의 토지개혁과 관련되는 철저한 사회주의적 작품 하나만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위에 소개

〈사진Ⅲ-4〉
소녀시절의 딩링

된 '태양은 상간강을 비추고'(1948)라는 작품은 지주들의 중상모략을 이기고 마침내 토지개혁을 완성한다는 내용의 사회주의 문학창작론에 충실한 소설로서, 중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스탈린상을 수상하기도 한 작품이다. 사실 공산혁명의 격동기를 함께 한 딩링의 삶은 여성해방과 공산혁명 사이의 모순을 그대로 체현하고 있었는데, 특히 1942년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쓴 '삼팔절 유감(三八節有感)'이라는 글은 이러한 모순에 대한 통렬한 각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후 문화대혁명 시기 딩링이 비판의 표적이 되게 만들었다.

> 여성동지들도 결국은 누군가에게 시집을 가야만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전전긍긍하는 여성들은 '집으로 돌아온 노라'라며 비아냥도 당합니다. … 여성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모두 원대한 꿈을 안고서 각고의 투쟁생활을 하다가 생리적 요구와 '서로 돕고 살자'는 달콤한 말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온 노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도 '낙후'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사방으로 바삐 다니며 얼굴 두껍게 탁아소에 아이를 맡기기도 하고 중절수술을 하려고 모든 처분을 감당하고 어쩔 수 없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몰래 낙태약까지 먹기도 합니다 (삼팔절 유감(三八節有感) 중).

그러나 딩링은 문화대혁명 기간 고초를 겪고 5년간의 수형생활을 하고 나온 후에도 다시 농민들의 토지개혁 열기를 그린 작품을 집필하는 등 공산혁명과 당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았다. 신여성으로서의 고뇌와 구국 충정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녀는 결국 후자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윤혜영 2005). 이러한 치열한 갈등과 혁명에 대한 열정은 중국의 역사교과서에는 누락되어 있으며, 단지 공산당의 토지개혁을 그려낸 우수한 작품의 작가로서 한 줄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문학이나 문화에 대해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술하기보다 철저하게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방식은 비단 딩링 등의 여류작가에 대해서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남성작가들에 대해서도 사실 마찬가지로서, 이는 중국 역사교과서가 가지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新中國)이 성립되는 과정과 이후의 현대사에 대한 서술 역시 철저하게 정치적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대한 내용은 등장할 여지가 없다. 여성은 단 한 번, 신중국 성립 후의 문예활동에서 등장하는데, 창작자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건설과 인민해방에 앞장서는 강한 여성의 이미지로 그려지는 '대상'으로서 등장한다.

> 신중국에서 국제적 상을 받은 최초의 영화는, 8명의 항일 여자영웅들이 강에 투신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중국의 딸(中華女兒)'이다. …(중략) 중국민족특색을 지닌 대형음악 무도(舞蹈)서사시인 '동방홍(東方紅)', 발레극 '붉은 여군(紅色娘子軍)' 등이 관중의 큰 환영을 받았다(중국 근현대사 하권 p. 160).

이처럼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여성에 대한 서술은 서태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이는 중요한 여성인물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며 또 지극히 일부의 여성인물만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어서, 중국 역사에 여성들이 어떻게 참여하였고 여성문제를 주체적으로 어떻게 제기해 왔는지에 대한 서술은 거의 누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성평등 지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다.

(다) 성 평등 지향성

역사에서 여성이 했던 역할에 대한 중국 역사교과서의 언급은 모계씨족사회에 대한 간단한 서술에서 처음 시작된다.

> 지금으로부터 약 3만년 전, 주구점 용골산 꼭대기의 동굴에

> 생활하는 산꼭대기 동굴인(山頂洞人)이 있었다. 이 산꼭대기 동굴인들은 구석기 시대 후기부터 이미 씨족사회로 들어갔다. 이들은 모계씨족시대에 살아서 사회생활에서 여성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모계혈통에 입각하여 친속관계가 확립되었다. 당시 씨족에는 빈부귀천이 없었고 씨족 구성원들은 공동으로 노동하고 소비하였다(중국고대사 p. 2).

사실 중국에서 초기의 모계사회에 생겨난 여성숭배 관념이 이후 도교사상과 결합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송정화 2004). 특히 1980년대 이후 여신상과 여신묘 등이 본격적으로 발굴되고 있으며, 동산취(東山嘴)의 홍산(紅山)문화 유적지, 우하량(牛河梁)의 홍산문화 유적지, 후대자(后臺子)의 신석기문화 유적지, 임서(林西)의 흥융(興隆)문화 유적지, 섬서성(陝西省)의 앙소(仰韶)문화 유적지 등에서 다양한 여신상과 여신사당이 출토되었다는 점은 더욱 중국 고대사에서 여성숭배관념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후 점차 부계사회가 되고 유가가 국가의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이러한 관념은 약해졌지만 도교와 함께 다시 여성숭배관념은 부활하였고, 앞에 나왔던 신화 속의 여와, 서왕모, 마조 등은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여신으로서, 송정화(2004)는 이는 바로 중국에서 신화적 전통이 서양과 달리 도교라는 철학적·종교적 전통을 만나 생명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본다. 반면 김선자(2002: 148-9)는, 여성의 존재가 고대 중국에서는 절반을 책임지는, 세상만물을 창조하고 번식시키는 존재로 인식되었지만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인간 중심,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이 확립되면서 여성은 그저 단순한 생식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존재로 전락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 역사교과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앞에서도 보았듯 중국 고대사에서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역할은 서술에서 거의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서술방식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인식이나 남녀관계에 대한 서술은 당연히 누락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의 전통적 악습이었던 전족(纏足)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은, 공산당이 세운 신중국에 와서야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그 전에 전족금지를 제창한 사람들도 남성 인물들만이 거론되고 있어서, 마치 여성을 가장 옭아맸던 악습은 남성 또는 공산당에 의해서만 비로소 제거된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 전족은 중국 부녀자들의 몸과 마음을 잔혹하게 해치고 인도(人道)에 어긋나는 중국 고대의 악습으로서 송대(宋代) 경부터 시작되었다. 태평천국운동이 중국 남부의 몇 개 성(省)을 장악하면서 부녀자의 전족해방을 요구하였고, 무술변법 시기 캉유웨이, 량치차오 등도 전족 금지를 제창한 바 있다. 신해혁명 이후 호북(湖北)군정부와 남경임시정부는 여러 차례 전족금지령을 내려 점차 보편적 호응을 얻게 되었고, 아직 전족을 하지 않은 여아들은 이제 전족을 하지 않았으며, 이미 전족한 부녀자들도 전족을 풀기 시작했다. 발의 해방은 부녀의 지위 제고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당시 어떤 부녀는 외치기를, '발이 크니 좋구나, 발이 크니 기쁘구나, 조종에서 벗어나니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상당수의 농촌지역에서는 아직도 숱한 여자아이들이 전족을 해야 했고, 신중국 성립 이후에야 비로소 이러한 악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중국 근현대사 하권 p. 85).

그러나 이미 서태후 당시부터 (비록 완전히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전족금지령은 내려졌으며, 여성운동가들도 전족해방을 주도적으로 제기하였다. 반청혁명가 추진은 전족해방을 주장하는 천족회(天足會)라는 단체를 만들어 계몽활동을 하였고, 전족을 풀어 천년의 독을 씻어야 하며 여성의 해방은 먼저 전족해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외쳤다. 어릴 때 울며 전족을 했던 추진은 결혼 후 그 자신도 전족을 풀었다.

중국 역사에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는 여성해방운동이 본격적으로 무대에 등장하여 이후 중국여성의 관념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시기로서, 몇천 년동안의 봉건적 악습과 관념에 대해 문제를 제

기하고 해방을 외치는 다양한 흐름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 시기에 대한 중국 역사교과서의 서술에서는 전혀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한 예로 여성해방운동이 크게 활발해진 20세기 초의 신문화운동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 신문화운동의 내용은, 1) 민주와 과학을 제창하고, 전제(專制)정치와 우매·미신에 반대한다. 이는 천두슈(陳獨秀)가 먼저 제기한 것으로서, 그는 중국이 몇천 년의 봉건통치를 겪으면서 민주와 과학이라는 것이 완전히 결핍되어 있었으므로, 중국이 진정으로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가 전제정치를 대체해야 하고 과학을 통해 봉건미신을 소탕해야 한다고 보았다. 2) 새로운 도덕을 제창하고 낡은 도덕에 반대한다. 낡은 도덕이란 공자로 대표되는 유가전통도덕을 의미한다. 신문화운동은 낡은 도덕을 맹렬히 반대하였다. 노신의 소설 '광인일기'는 봉건예교가 사람을 잡아먹는 본질이 있음을 폭로하였다. 3) 새로운 문학을 제창하고 낡은 문학을 반대하였다. 신문화운동은 문학혁명이기도 하였다. 후스(胡適)는 낡은 문어체를 백화문으로 바꾸어쓸 것을 주장하였다(중국근현대사 상권 p. 110).

이처럼 신문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가치 부여와는 대조적으로 여성해방운동의 존재와 역사적 의미는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여성해방운동에 대해 간과하는 서술방식은, 여성문제에 대한 여성 자신의 해방 노력을 중시하기보다 공산당에 의해 비로소 모든 모순이 해방되었다고 보는 중국 공산당의 기본적 관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신중국 성립 후의 역사는 교과서에서 아주 짧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주된 내용은 외교, 국방, 문화대혁명, 일국양제(一國兩制) 등 정치적 부분에 치중되어 있다. 사실 신중국 성립 후 여성의 삶과 남녀관계는 크게 변화하였고, 이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혼인법의 공포시행, 전통가족문화의 변화 등 중요한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전혀 언급조차 없고 단지 복식(服飾)이 다양해졌다는 서술에서 여성의 복식에 대한 언급이 잠시 나올 뿐이다.

> 신중국이 막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람들의 복장은 아직 중화민국 시기의 양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도시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옆이 트여서 단추로 잠근 긴 도포옷을 입고, 부녀들은 치파오(旗袍)를 입었다. 농촌사람들은 노동에 편하도록 하기 위해,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식의 짧은 옷과 긴 바지를 입었고, 부녀자들은 왼쪽으로 트인 짧은 웃옷과 긴 바지를 입거나 긴 원피스를 입었다. …(중략) 개혁개방 이후 경제의 발전과 함께 복장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옷의 색깔과 양식이 다양해졌다. 남자들은 서양식과 가죽자켓을 위주로 하고, 일부는 여전히 넥타이를 맨다. 여성들의 스타일은 더 다양하다(중국근현대사 하권 pp. 164-5).

그러나 신중국 성립(1949년)과 함께 공포된 새 혼인법(1950년)은 혼인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평등, 중혼·축첩 금지, 과부 재혼의 자유, 이혼을 요구할 권리의 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사실 중국에서 여성의 권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당시 이혼소송은 급증하였으나 실제 이혼은 어려워서 많은 여성들이 박해를 받거나 자살하여, 혼인법 실시 후 1년동안 중남구(中南區)에서만 약 1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기도 하였다(이승은 2005). 그 이후에도 중국정부는 대약진 시기(1958-60) 인민공사제도를 통해 가사노동을 사회화하고 공동식당과 보육소, 양로원 등의 시설을 갖추면서 여성을 노동현장으로 끌어냈는데, 이는 한편 긍정적 효과도 지니고 있었지만 여성을 노동력으로 동원하려는 목적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처럼 신중국 성립 후 남녀평등 문제는 분명히 크게 개선되어 왔으나 이 문제에 대한 공산당의 인식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으며, 문화대혁명 기간 철폐의 대상이 되었던 주요 차별(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에서도 성차별은 들어있지 않았다. 따라서 신중국에서의 여성정책은 기본적으로 여성 자체의 평등과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국가가 사회주의 혁명단계에서 여성노동력 확보를 위해 가부장권을 국가로 이동시키면서 필요에 따라 실시되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승은 2005: 247). 이러한 정책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신중국 건설 이후 여성의 삶과 남녀관계는 혁명적 변화를 겪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역사 교과서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2)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의 위상

(가) 성 중립성

기본적으로 중국의 세계사 교과서에는 아시아 여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아주 드물게 나오는 여성 관련 내용도 아래의 '성 특정성' 분석에서 보듯 동북아 여성문화나 유대와 연관짓기는 매우 어려운 내용들이다. 이는 중국 교과서의 정치적 성격과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는데, 철저하게 정치적 사건과 인물들 중심으로 씌어진 중국 세계사 교과서에서 여성이나 문화에 대한 내용은 지극히 드물다.

주로 여성이 담당했을 노동에 대한 서술에서도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용어가 사용되어, 여성의 역할이나 가치에 대한 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 14, 15세기에 유럽의 생산기술은 크게 발전하여 생산력수준이 현저하게 발전하였다. 수공업 생산기술도 다방면에서 진보하였다. 방직업에서는 수동식 기계가 출현하였고 15세기에는 페달식 자동방직기계가 출현하여 실을 짜내면서 마는 두 가지 작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되었다. 방직기술의 진보에 따라 견직업과 면직업도 발전하게 되었다(세계근현대사 상권 p. 2).

> 생산기술의 진보와 함께 수공업 분야에서의 분업이 점점 세분화되어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가 생겨났다. 14세기 이탈리아 플로랑스의 모직물제조와 가공업에만 약 20여종의 분야가 있었다. 동시에 수공업은 농업과 점점 분리되어, 바느질·술빚기·빵굽기 등 예전의 가내수공업은 점점 농업에서 떨어져나가 독립적인 수공업 분야가 되었다(세계근현대사 상권 p. 3).

위의 서술 옆 사진에는 '이탈리아의 방직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여자들이 방직 일을 하는 모습이 실려 있지만, 본문에는 여성의 노동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고 단지 방직업과 새로운 기계의 출현이라는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을 뿐이다.

> 1960년대에 영국 자본주의에서 대기계로 이루어지는 생산이 점점 수공업장에서의 작업을 대체하면서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이를 공업혁명이라 부른다. 공업혁명은 먼저 수공업 중 가장 발달한 면방직업에서부터 출현하였다. 1733년 기계사 존 케이가 '나는 북'을 발명하면서 속도가 크게 빨라져 면사 공급이 늘었고 1765년에는 직공 하그리브스가 '제니 방적기'를 발명하여 면사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켰다. 제니 방적기의 출현은 먼저 면방직업에서 기계의 발명을 야기하고 기술혁신 등의 연쇄반응을 일으키면서 공업혁명의 서막을 열었다(세계근현대사 상권 p. 64).

중국 세계근현대사 교과서는 아시아 역사에 할애하는 비중 자체가 매우 적고(상·하권 총 274페이지 중 23페이지), 그 대부분의 내용이 민족해방운동과 경제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서술방식 속에서 여성이나 여성문화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역사에 참여한 대중 역시 '인민' 등의 성중립적 용어로 표현되어 여성의 역할이나 의미는 간과되고 있다.

>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제국주의 침략은 아시아 각국의 민족위기를 심화시켰고, 아시아 인민 사이에서는 반제

> 반봉건운동이 고조되었다. 그 중 중요한 사건으로는 조선인민의 반일투쟁과 중국의 의화단운동 그리고 신해혁명, 20세기 초 인도의 민족해방운동, 이란과 터키의 부르주아혁명이 있다. 아시아 인민의 반제반봉건투쟁과 민족민주운동의 고조는 아시아의 각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략) 아시아 인민의 투쟁에는 하층 인민의 반제반봉건투쟁 뿐 아니라 지식인을 핵심으로 하는 부르주아계급의 개량운동도 있었는데, 이러한 운동은 아시아 각국 인민의 민족민주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일본이 계속해서 조선을 삼키는 과정에서 조선인민은 계속 일본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세계근현대사 상권 p. 111).

>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삼킨 후 조선에서 잔혹한 식민통치가 시작되었다. 조선인민의 반일운동은 계속해서 고조되었다. 1919년 초 전(前)국왕이 갑자기 사망하고 일본인의 독살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3월 1일 몇천 명의 청년학생들과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조선의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이 기초한 '독립선언서'를 읽고 시위를 벌였다(세계근현대사 하권 p. 8).

본문과 함께 실려있는 3·1운동 사진에는 여학생의 모습도 보이지만 서술에서는 '인민'과 '청년학생'이라는 중립적 용어로 처리되고 있다. 아시아의 문학에 대한 간단한 기술에서도 여성에 대한 인식은 찾아볼 수 없고, 애국정신과 반(反)식민사상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정치중심적 서술이 내용의 전부이다.

> 현대에 와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인민의 민족민주운동은 크게 고조되었고 각지의 문학도 이와 함께 발전하면서 영향력있는 작가와 작품이 탄생하였다. 인도의 작가 타고르는 다양한 분야의 풍부한 창작을 통해 인도 근현대문학의 찬란한 대표자가 되었다. 조선의 문학과 아프리카의 문학 역시 장족의 발전을 하였고 주류는 애국정신과 반식민사상을 표현하는 것이었다(세계근현대사 하권 p. 133).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일본에 대한 서술로서, 거의 대부분이 조선에 대한 잔혹한 식민통치, 중국 침략, 남경대학살 사건, 교과서 왜곡(세계근현대사 하권 p. 8, 35, 36, 41, 60, 74) 등 일본 제국주의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언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물론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이러한 정치 중심적 서술 속에서 아시아의 여성연대, 그리고 서로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교류는 크게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 성 특정성

중국의 세계사 교과서는 한국이나 일본의 세계사 교과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인물에 할애하는 비중이 적어서, 본문에는 유럽의 테레지아 여왕과 퀴리부인 외에는 어떠한 특정 여성인물도 나오지 않는다.

> 1740년 테레지아 여왕이 오스트리아를 통치하기 시작하였고, 계몽사상가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1780년 테레지아 여왕의 서거 후 아들 요셉2세가 이어서 개혁을 심화시켰다. 테레지아 여왕 모자의 개혁조치는 아래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국가기구의 개혁, 중앙집권 강화, 새로운 병역제도 실행, 토지개혁 수행, 농민의 부담 감소, 지주의 일부 특권 폐지, 농민과 지주 사이의 모순 완화, 농민의 속박을 점차 풀어주기, 교회에 대한 통제 강화, 교회재산몰수, 종교의 관용 실행, 공상업 장려, 보호관세정책 채택, 국가공장 건립 등(세계근현대사 상권 p. 27).

같은 인물에 대해 일본의 세계사 교과서는 '인내심'을 강조하고 막내딸 마리 앙트와네트가 루이16세의 아내가 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데 비해 중국의 교과서는 테레지아 여왕의 개혁추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독자적이라기보다는 아들과 함께 완성한 개혁으로서 서술하고 있다.

그 외에는 교과서 각 부분에 실린 사진 속에서 여성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때로는 여공의 모습으로-이탈리아의 방직공장(세계근현대사 상권 p. 3), 1960년대 말 일본의 TV공장(세계근현대사 하권 p. 72), 과학기구를 제조하고 있는 인도의 노동자(세계근현대사 하권 p. 98)-, 때로는 중요한 인물의 부인으로-화학자 라브와지에 부부사진(세계근현대사 상권 p. 129), 경제학자 케인즈 부부사진(세계근현대사 하권 p. 127)-, 또 때로는 유명한 남성화가의 그림 속 여전사(女戰士)-멕시코혁명 속 여전사 사진(세계근현대사 상권 p. 115),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그림(세계근현대사 상권 p. 138)-이나 우아한 여인으로-라파엘의 성모상(세계근현대사 상권 p. 12), 루벤스의 그림 '수잔나 푸르망'(세계근현대사 상권 p. 137)- 등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세계사 교과서에 그려진 여성은, 묵묵히 일하는 이름도 성별도 없는 노동자의 모습, 또는 유명한 남성화가의 그림의 소재로서의 대상, 그리고 유명한 인물의 부인의 모습이다. 그것도 본문에서는 한번도 다루어지지 않고 사진으로만 다루어졌다는 사실은, 중국의 세계사 교과서가 역사에서 여성의 역할과 비중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서술하지 않는 경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다) 성 평등지향성

중국의 세계사 교과서에는 역사상 존재하였던 양성평등을 위한 어떠한 여성의 노력도, 중국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도 등장하였던 '신여성' 등의 새로운 움직임이나 여성문화도 등장하지 않는다. 역사를 이끌고 만들어온 것은 남성들이며, 각 국가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투쟁이나 운동의 주체는 단지 '인민'이라는 성중립적 용어로 표현될 뿐이고, 이러한 서술은 모두 궁극적으로 반(反)식민주의,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등을 강조하려는 중국 역사교과서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서술방식 속에, 여성의 노동에 대한 인정이나 여성해

방운동, 여성문화에 대한 언급은 들어설 여지가 없다.

이처럼 중국의 세계사 교과서는 한국이나 일본의 세계사 교과서에 비해서도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이나 지향성이 훨씬 떨어질 뿐 아니라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의 존재와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보았듯 중국의 역사교과서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크게 누락·배제되어 있는데, 이는 여성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거나 여성 관련 단체들이 교과서 서술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요인들과도 관련되지만 또한 역사교과서가 윤리교과서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어서 지극히 정치적으로 씌어질 수밖에 없는 중국 사회의 특징도 강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여성들은 대부분 공산혁명에 헌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여성운동에 대한 여성 자신의 노력과 역할이 철저하게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 예로 중국의 대표적 악습인 전족에 대해 많은 중국여성들이 20세기에 들어와 반대운동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보았듯 교과서에서는 중요한 남성정치가들 그리고 공산당에 의해서 비로소 전족이 없어진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사 교과서의 서술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여, 역시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씌어진 교과서 내에서 여성문화는 물론 여성 자체가 전혀 무대에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다. 일본

(1) 자국 여성문화유산의 위상

일본의 역사를 다루는 일본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일본사 A와 일본사 B로 나누어져 있다. 일본사 A와 일본사 B의 차이점은 먼저

시기와 이수 단위의 차이가 있다. 일본사 A는 약 1800년대 이후인 근대와 현대까지 다루고 주 단위 시간은 2단위이다. 일본사 B는 선사시대부터 현대를 다루고 주 단위 시간은 4단위 이다. 일본사 A에는 6개 교과서 출판사에서 7종을, 일본사 B는 7개 교과서 출판사에서 11종을 출판하고 있는데, 이 중 각 주요 출판사의 출판 교과서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야마카와 (山川) 출판사에서 나온 일본사 A『현대의 일본사 (現代の日本史)』와 일본사 B『고교 일본사 (高校日本史)』교과서를 분석 대상 교과서로 선정하였다.

일본사 A『현대의 일본사』집필의 가장 큰 목적은 "현대의 일본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과 국제적 환경 하에 오늘 날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이해하고 앞으로 21세기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함" (현대의 일본사서문)이라고 되어 있다. 먼저 구성은 '역사와 생활' 중 5개의 주제 –의복의 변천, 교통통신의 발달과 국민생활의 변화, 현대에 남아있는 풍습과 민간신앙, 산업기술의 발달과 생활– 학습 부분과, 일본의 근대가 시작되는 역사적 배경인 개국과 유신, 입헌정치의 시작, 산업화와 국민생활의 변화, 1,2차 세계대전, 미군 점령 하의 일본 그리고 일본의 자립과 경제 성장 마지막으로 냉전의 종식과 국내 정치의 재편성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정치 경제에 치중된 역사서술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일본사 B인『고교 일본사』역시 "국제화 시대에 일본인으로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목적" (고교 일본사 서문)을 가지고 집필되었는데, 일본사 A와 다른 점은 교과서 서두에 '사료를 읽다(資料を読む)' 코너를 두어 한 가지 사료를 두고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같은 시기에 일어난 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른 두 개의 기록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등, '사료와 역사적 사건'은 "고정된 사실이 아님"을 교과서 시작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교과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정치

구조의 변화와 국가 체제의 성립, 법 체제의 변화, 가시적 경제 발달 등에 무게를 두며 '사람들', '국민', '노동자'와 같은 중립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 역사적 틀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여성과 소수자의 배제라고 하는 몰성적 시각에 입각해있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하 각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 성 중립성, 성 특정성, 성평등 지향성 등이 각각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가) 성 중립성

> 우리들 일본인의 의식주 생활은 근대에 들어 크게 변화하였다. 빵과 커피의 보급, 인스탄트 식품의 발명 등 식생활의 변화 …등도 생각해보자. 우리들 대부분은 일상생활에서 양복을 입고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양복은 도대체 어느 때부터 일본인의 생활에 들어온 것일까(현대의 일본사 p. 7).

위의 서술은 '우리들 일본인'이란 지시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본인 보편의 의복 변화의 전개란 성 중립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서에는 각 시대별로 7장의 사진을 싣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각 설명은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설명하며, 의복의 변화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는지에 관한 설명도 잊지 않고 있어 일견 성 인지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사진 Ⅲ-5〉에 대한 설명은 "양복과 키모노를 입고 있는 사람의 차이를 보자" (현대의 일본사 p. 7) 라고 하며 자전거와 마차를 사용하는 사람은 모두 양복을 입고 있어 "양복은 기능적 측면에서 채택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어 〈사진 Ⅲ-6〉에 대한 설명에서는 활동성이 높은 여학생의 경우 양복을 입지 않은 것은 "여자는 여자답게라고 하는 사고방식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현대의 일본사 p. 8) 고 하며 전통의상과 양복 착용에서 나타나는 성 차별성에 대해 학습

〈사진Ⅲ-5〉 문명개화의 풍경

호 모순되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양복 착용에 있어서 '기능'을 강조하던 〈사진 Ⅲ-5〉를 보면 사실 자전거를 타는 남성은 양복을 입었지만 인력거를 끌고 있는 남성은 전통의상을 입고 있다. 또한 "여성들은 귀부인들을 예외로 양복을 입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현대의 일본사 p. 7)라고만 서술하며 왜 여성들의 경우 기능적 이유가 더 필요했던 서민층 여성은 양복을 입지 않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양복이 기능적 이유에서 채택되었다는 설명은 계급과 성의 관점에 있어서 '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로 기술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사진 Ⅲ-7〉 동경 지하철 개업이란 사진을 설명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복차림을 하고 있다"(현대의 일본사 p. 8)라고 서술하고 있지만,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 여자는 어린이를 포함하여 단 2명만이 양복을 입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란 성 중립적 단어는 시각적으로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전통의상을 입고 있는 많은 여성들을 은폐한다.

그리고 7장의 사진을 설명하는 텍스트를 살펴보면, 많지는 않지만 자에게 정보를 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정한 언급 외에는 의복의 변화라는 부분의 서술 방식은 성 인지적 태도를 일관적으로 취하지 않고 있어 설명은 상

〈사진Ⅲ-6〉 메이지 셈본 교과서

〈사진Ⅲ-7〉 동경지하철 개업

남성 의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모던 걸과 함께 등장했던 모던 보이의 양복 스타일, 해방의 기운이 감돌며 유행한 장발형 머리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거의 모든 텍스트는 여성의 패션의 변화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고, 무엇보다 5장의 사진은 모두 여성의 이미지이다. 왜 양복 착용 이유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가능'이라고 하는 중산층 남성 중심의 시각을 유지하고 서민이나 여성의 입장은 배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션변화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미지를 재현하는데 있어서는 오직 '여성'이란 성으로만 가득 찼을까. 이는 전형적으로 남성 중심적 태도가 여성의 일을 전형화하고 여성의 이미지를 대상화해 온 동일한 맥락에서 '패션과 유행은 여성의 일'이란 시각에서 역사 교과서를 서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사진 Ⅲ-12〉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근대적 행동양식과 맞지 않는 키모노가 착용되는 것은 일본적 우아함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 (현대의 일본사 p. 10)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사진 Ⅲ-12〉에서 키모노를 입고 있는 성은 명백히 여성이고 남성은 제복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여성의 우아함', '남성의 씩씩함'을 대비시키던 과거 생물학적 결정론이 조장하였던 여성과 남성에 대한 전형적 성 특징에 대한 편견, 즉 '수동적 여성'과 '진취적 남성'을 지지하는 성차별적 역사서술이다.

〈사진Ⅲ-8〉 쇼와 초기의 모던 걸

〈사진Ⅲ-9〉 전시 하의 복장

〈사진Ⅲ-10〉 다채로운 여성복장

〈사진Ⅲ-11〉 젊은여성들의 새해맞이 신사참배

〈사진Ⅲ-12〉 올림픽 개회식

〈사진Ⅲ-13〉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가족

이 밖에도 두 권의 일본사에는 성 중립적이지만 성 또는 성역할의 전형화를 통한 성 차별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일본사 A와 일본사 B는 도시화와 대중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라디오의 보급을 설명하기 위해 똑같은 사진을 싣고 있는데 둘 모두 어머니와 아이들만 있을 뿐인데도 이 사진을 '쟈부다이(낮은 식탁)를

둘러싼 가족' (현대의 일본사 p. 100; 고교 일본사 p. 245)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사진 Ⅲ-13〉. 더구나 텍스트에는 "타이쇼 (大正)시대부터 쟈부다이가 유행하고 한 가족이 둘러앉아 라디오를 듣는 풍경은 새로운 가족의 모습으로 등장하였다"(현대의 일본사 p. 100; 고교 일본사 p. 245)라고 기술하고 아버지가 부재한 가족 구성원을 '가족'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근대를 관통하여 살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사적 영역에서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부재는 어머니의 부재와 달리 늘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가족 구성원들은 '가내 (家內)'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에 함께 있지 않은 아버지의 자리를 상상하며 '한 가족'이라고 하는 유대감을 가졌다. 이것은 근대의 성차별적 담론, 즉 '남성은 공적 공간, 여성은 사적 공간'이라고 하는 성 분리 이데올로기와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사진이 찍혔던 당시에도 사적 공간에 있는 어머니와 아이들만 있는 모습이 '가족'이란 용어로 호명되었고, 이것이 다시 현대 교과서를 만드는 편집자들에 의해 그대로 수용됨으로써, 근대가 만들어 낸 성별 분업에 기초한 성 차별적 전제, 즉 '아버지는 공적 영역, 어머니는 사적 영역'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학습자들에게 전달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나) 성 특정성

일본사 기술에 있어서 여성이 단지 남성으로 대표되는 인간 일반에 가려진 것만은 아니다. 역사 기술에는 명백히 남성과 여성이 구별되어 이미지로 재현되거나, 텍스트 안에 호명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특정한 성을 재현하고 호명하고 있는 맥락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우선 고대사까지 다루고 있는 일본사 B인 『고교 일본사』를 보면 왕과 왕비 그리고 여왕의 업적에 대한 기술 부분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기술을 분석하여 보면, 왕은 정치 업적 중심으로 왕비

는 아들 생산 여부와 관련되어서만 언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왕의 업적은 홀로 주체적으로 성취한 것으로, 여왕의 업적은 신의 능력을 빌어, 또는 남자 형제의 도움을 받아 이루었다는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 왜에는 2세기 후반 대란이 일어나 지역적 연합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각국의 왕은 공동으로 야마타이코쿠 (倭大國)의 여왕 히미코 (卑弥呼)를 추대하여 야마타이코쿠를 중심으로 한 30여개의 소국의 연합이 이루어졌다. 야마타이코쿠는 제정일치기로 여왕 히미코는 신을 섬기는 무녀로서 주술로 사람을 이끌고, 남편도 없이, 남동생이 정무를 도와 나라를 다스렸다고 한다. 또 야마타이코쿠는 신분의 차가 확실하고 법질서도 있었다. 세금도 징수하고 시장도 열려 소국들 사이에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교 일본사 pp. 19-20).

고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아직 분리되지 않은 제정일치 사회라는 주지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왕에 대해서는 신을 섬기는 남자 무당이라 서술하지 않고 오직 여왕에 한해서만 신을 섬기는 무녀라 기술하고 있음은 명확히 여성의 성을 미신 또는 주술과 연결하려고 하는 성 차별적 서술이다.

『고교 일본사』에 비해 일본사 A인 『현대의 일본사』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역사 공부를 즐겁게 하고 시각적 효과도 높이기 위해 시각적 자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매 페이지마다 평균 3장 이상의 그림과 사진이 싣고 사진을 설명하는 짧은 글만 읽어도 일본 근현대사의 흐름을 쉽게 알 수 있게 구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적 사진의 재현 방식에는 특정한 성 차별적 발상이 작동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우선 양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 400여 장의 사진 중, 도표와 풍광 사진을 제외하고, 인물을 싣고 있는 사진 중 남성만을 담고 있는 사진은 100점 이상인데 비해 여성만을 담고 있는 사진은 20여 장도 되지 않는다. 이 중 남성 이미지는 절대적으로 정

〈사진Ⅲ-14〉
조선통신사 행렬

〈사진Ⅲ-15〉
이와쿠라(岩倉)사절단

〈사진Ⅲ-16〉
새로운 사상과 학문

〈사진Ⅲ-17〉
현대에 남아있는 풍습과 신앙

〈사진Ⅲ-18〉
동경의 가두 풍경

치적 협상을 통해 국가를 위기적 국면에서 구출하는 장면, 경제발전을 통해 국가에 부를 가지고 오는 장면 등에 정치가, 사업가, 사상가, 무역사절단 등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사진Ⅲ-14〉〈사진Ⅲ-15〉〈사진Ⅲ-16〉.[13]

하지만, 여성 이미지의 경우는 신부인협의회 제1회 총회에서 인사하는 이치카와 후사에(市川房技)의 모습, 잡지 『청탑 (青鞜)』을 창간하여 여성해방 운동을 펼친 히라츠카 라이초(平塚 らいてう), 전후 총선거에서 79명의 여성 후보자 가운데 39명이 의석을 확보하여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의 단 세 장의 사진[14]을 제외하고는 새롭

[13] 해당사진은 각각 『현대의 일본사』, p. 29, p. 46, p. 101에 수록
[14] 각각 『현대의 일본사』, p. 97, p. 134에 수록

게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의 복장을 하고 있는 여성들–〈사진Ⅲ–8〉〈사진Ⅲ–10〉〈사진Ⅲ–11〉–[15], 신사에서 소원을 빌고 있는 여성들, 해방의 분위기 속에서 미군에게 꽃을 주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사진 Ⅲ–17〉〈사진Ⅲ–18〉.[16] 이는 문명과 환경을 주도하거나 변화시키는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는 남성과 대비되어 단지 남성이 가져온 문명과 평화의 혜택을 받는 수동적 존재로서의 여성, 스스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남성과 대비되어 단지 초자연적 힘에 기원하는 무기력한 존재로서의 여성 이미지를 재현하여 기존의 '진취적 남성, 수동적 여성'이란 성별로 전형화된 이미지를 조장하는 경향이 교과서를 통해 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늘 역사에 희생되고 가난과 전쟁에 고통을 받기만 한 무기력한 피해자로서의 재현의 장에 반드시 여성의 성이 선호되어 선택되고 있다〈사진Ⅲ–19〉〈사진Ⅲ–20〉〈사진Ⅲ–21〉.[17]

더욱이 현대의 일본사는 과거 몰성적 시각에 의해 사용된 시사 풍자화를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 즉, 과거 세계사적으로

〈사진 Ⅲ–19〉
1890년대 농가 모습

〈사진Ⅲ–20〉
백기를 든 소녀

〈사진 Ⅲ–21〉
전쟁 후의 생활

[15] 해당사진은 각각 『현대의 일본사』, p. 17, 18에 수록.
[16] 해당사진은 각각 『현대의 일본사』, p. 17과 '독립한 일본' 부분에 수록.
[17] 해당사진은 각각 『현대의 일본사』, p. 82, 122, 135에 수록.

제국주의가 확장되어 가운데 힘을 갖게 되는 국가와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자본가를 풍자하기 위해 사용된 남성의 이미지와 그와 반대로 힘을 갖지 못하게 되는 약소국 또는 자본가에 빌붙는 의존적 존재로서 선택된 여성의 이미지를 아무 비판 없이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재현하고 있다.

〈사진 Ⅲ-22〉 열강구락부 신년회

20세기를 맞아 점차 세계열강의 일원이 되었다고 득의양양해하는 일본을 풍자한 것
(1901년 1월 5일 자 『마루마루진몽 (団団珍聞)』)

〈사진 Ⅲ-23〉 한국합병

일본과 한국 관계는 내연의 관계와 같았고, 이제 혼인신고만 하면 사실혼 부부가 된다고 하는 풍자화

〈사진Ⅲ-24〉 벼락부자

대전 이후 경기를 타고 벼락부자가 된 해운업자를 풍자한 그림

〈사진 Ⅲ-22〉과 〈사진 Ⅲ-23〉, 〈사진Ⅲ-24〉[18]는 각각 열강에 합류된 일본, 한국을 합병하는 일본, 점점 부를 축척한 자본가의 등장을 풍자하기 위해 당시 신문과 잡지에 실린 풍자화들이다. 그런데, 교과서 서술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서 왜 힘을 가진 존재가 당연히 남자로 표상되고, 힘을 갖지 못한 존재는 모두 여성으로 표상되는지에 대한 보완적 설명을 생략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젠더에 민감한 역사적 시각을 기를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서술은 과거에 생산된 성차별적 시각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수용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대 일본사는 근대가 만들어 낸 성별 분업에 대한 어떤 비판적 사고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역사의 보편성으로 사고하도록 학습자를 오도할 위험을 곳곳에 내포하고 있다. 남성은 공납을 바치고 있는 사람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로, 석탄을 캐내는 노동자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여성은 단지 직기 앞에 앉아 있거나, 실타래를 들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으로 나온다. 이는 근육이 있고 힘을 요하는 노동은 남자가, 그렇지 않은 노동은 여성이 담당했다고 하는 기능주의적 입장의 남성 중심적 노동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재생산하는 것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힘이 들지 않은 노동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남성 중심적 사고에서 가능한 진술이고, 실제 1차 년도에 예로부터 직물을 짜 왔던 많은 여성들은 "남자들은 놀기만 했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마루 끝에 직기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꼼짝 못하고 일하고 있는 엄마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여 자신은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며 여성이 수행했던 노동강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었다. 더구나 쇠망치와 실타래의 대비는 노동의 도구와 원료라고 하는 불평등한 배치이며, 남성과 달리 여성은 노동자뿐 아니라, 가사와 양육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었던 여성이 놓인 노동의 이중적 억압성을 간과하게 한다〈사진 Ⅲ-25〉.[19]

---

[18] 해당사진은 각각『현대의 일본사』, p. 62, 66, 96에 수록.
[19] 해당사진은『현대의 일본사』, p. 72에 수록.

〈사진 Ⅲ-25〉 성별 역할 전형화

1920년(大正 9년) 토쿄 마루노우치(丸の内)에 세워진 일본공업구락부 회관 정면에 실타래를 든 여성과 망치를 든 남성의 조각이 세워졌다. 방적업은 19세기말 산업혁명 중심이 된 일본의 중요산업 중 하나이고 석탄은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었다.

물론, 텍스트 중간에 섬유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의 고통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고통 받는 노동자이고,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그들에게 좋은 조건을 가져다 준 주체는 남성으로 서술된다.

> 산업의 발달로 노동자 수는 급증하였고 영세한 농가의 차남, 삼남 또는 딸들이었다. 그들은 가난한 가계를 위해 소학교 4년간 의무교육이 끝나기 전에 일하러 보내졌다. 노동조건은 아주 힘든 것이고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이었다. 또 민간이 하는 대규모 방적회사에서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여자(工女)로 주야 2교대 12시간 노동, 휴일은 격주 1일, 일급 7-25전 정도였다. 소규모 공장이 많은 제사업이나 섬유업에서는 노동조건은 더 열악하여 하루 16-17시간 노동도 드물지 않았다. 여공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공장과 기숙사의 환경이 양호한 것이 아니어서 폐결핵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
> 일청전쟁 후 미국에서 귀국한 카타야마센(片山潛) 등이 노동조합기성회(勞動組合期成會)를 결성하여 노동조합 운동을 시작하였다. …한편 정부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을 완화시키고 그 협조를 목적으로 1911년(明治 44) 아동노동의 금지, 소년, 여성 취업시간의 제한, 경영자의 보상의무 등을 포함하여 공장법을 제정하여 5년 후에 실시하였다(현대의 일본사 pp. 73-75).

이와 함께 카타야마 센의 남성 인물 사진을 함께 실음으로써 결국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 받던 여성 노동자를 구원한 것은 '미국에서 돌

아온 남성'과 '국가'였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 『현대의 일본사』는 "패션과 유행은 여성의 일"이란 성 차별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 제1차 세계 대전 중 유럽에서 단발과 미니 스카트가 유행했는데 이것이 일본에 들어와, 단발에 하이힐을 신고 영화, 춤, 운동을 즐기고 자전거를 타고 개방적이고 향락적인 젊은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초비 히게', '랍빠 바지', '스데키'라고 하는 스타일을 했던 모던 보이도 등장하였다. … 패전 후, 점점 해방의 기운이 감돌며 남성의 머리는 장발로 변하고 다채로운 색의 의상을 입었으며 일본인 2세들이 즐겨 입던 하와이 풍 남방을 입은 남자들도 거리에 나타났다. … 화려한 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은 합성섬유 제품이나 나이론 양말에 정신없이 빠져들었다 … 생활권의 확대는 눈부신 것이었다. 메이지 시대 이후 토쿄에서 유행한 여성 패션은 곧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현대의 일본사 pp. 8-13).

이상과 같은 기술을 살펴보면, 패션과 유행의 새로운 풍조를 설명하는데 있어 남성과 여성 모두 등장하고 있지만, 확실히 여성이 양적인 면에서 많은 부분에 할애 되며 세밀하게 기술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남성은 마치 '이성적'으로 유행의 변화를 수용한 것처럼 패션과 유행의 변화와 거리를 두고 설명이 되고 있지만, 여성은 '이성을 잃고' 빠져드는 모습으로 서술되고 있다

(다) 성 평등 지향성

성 평등성에 대한 분석은 현 일본사 교과서 내에서 성 차별성을 얼마나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유도하고 있는지, 또한 역사적으로 여성의 삶과 업적에 대해 얼마나 올바르게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현대 일본사』와 『고교 일본사』에는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남성과

여성의 역사적 경험이 달랐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열악한 역사적 환경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가진 능력을 펼치고, 여성의 인권을 위해 활동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가령, 고대사까지 다루고 있는『고교 일본사』에서 7세기 이후 재능 있는 여성들에 의한 카나(仮名) 문학의 발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문화의 국풍화(國風化)를 나타내는 것이 카나(仮名)의 발달이다. 원래 카타카나(片仮名)는 불교의 경전을 읽기위해 승려들이 만든 것이다. 또 히라가나(平仮名)는 만요가나(万葉仮名)를 흘려 쓴 것으로 주로 귀족 여성들 사이에서 사용되었다. …한시를 대신하여 와카(和歌)가 유행하자 10세기 초 천황의 명령에 따라 와카집(和歌集)이 편찬되었다. …카나 일기와 이야기도 유행하여 무라사키 시키부 (紫 式部)『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세이쇼 나공(清少納言)의 『마쿠라노소시(枕の草子)』등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궁정여성에 의해 작성된 것이었는데, 그것은 남성이 공식적으로 한문을 사용하고 여성이 카나 문자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도 있지만, 당시 섭정정치 시대에 재능 있는 여성이 많이 궁중에 들어왔기 때문이다(고교 일본사 pp. 54-55).

이렇듯, 카나문학이 여성에 의해 발달한 것은 단지 여성이 남성보다 카나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재능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고 명시하며 여성의 능력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두 권의 역사 교과서는 근대에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읽고 쓸 줄 알게 되었다고 기술하는 한편 여성과 남성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도 명시하고 있다.

> 마을의 아이들도 테라코야(寺子屋)에서 배우게 되었다. 그 결과 1870년(明治 3) 이후 남자의 40-50%, 여자의 15%가 한자와 카나(仮名)가 섞여 있는 문장을 읽고 쓰고 산술을 할 수 있고, 간단한 일본의 지리와 역사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 (현대의 일본사 p. 27).

이어 남성보다 낮았던 여성의 취학률이 점점 상승되며 여성에 의해 여성을 위한 학교가 설립되었음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 여자의 취학률은 남자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그러나 1890년 이후 취학률은 급속히 상승하여 1910년(明治 43) 98%를 넘어 남녀 간 차이도 거의 없었다. … 여자를 교육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되어 메이지 초년 정부는 여자사범학교를 설립하여 교원을 양성하였다(현대의 일본사 pp. 77-78).

그리고 이러한 설명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싣고 있는데 하나는 여자영학숙(女子英學塾)〉의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이 학교를 세운 츠다 우메코(津田梅子)의 인물 사진이다. 첫 번째 사진은 1900년(明治 33) 개교 직후 학교의 교사 앞에 서있는 여교사와 여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두 번째 사진 속 인물인 츠다 우메코 津田梅子에 대해서는 "8세에 미국에 유학하고, 귀국 후 여자영학숙을 설립하여 여자교육에 힘썼다" (현대의 일본사 p. 78)고 기록하며 역사 속 여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문학'의 등장 부분에서 남성 문학가인 츠보우치 쇼요(坪內逍遙), 모리 오가이(森鷗外), 나츠메 소세키(夏目漱石) 등과 함께, "서민의 애환을 섬세한 필치로 그린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 1872-1896)와 정열적 단가와 시를 노래한 요사노 아키코(與謝野晶子 1878-1942)와 같은 여류작가도 활약하였다" (현대의 일본사 p. 79)고 기록하고 있다.

1920년의 호황이 끝나고 경기의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일본 노동 총동맹, 일본 농민 조합이 결성되면서 이와 함께 활발해진 여성 운동에 대한 언급도 구체적이다.

> …지식인 사이에서는 동경 제국대학의 신진카이 (新人會) 등과 같이 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적인 계몽단체가 만

> 들어졌다. 여성운동 분야에서도 1911년(明治 44)에 히라츠카 하루(平塚明 1886-1971, 히라츠카 라이쵸) 등이 청탑사(青鞜社) 등을 결성하여 잡지 『청탑 (青鞜)』을 창간하여 선구적 여성해방운동을 펼쳤다. 1920년(大正 9) 히라츠카와 이치가와 후사에(市川房枝) 등은 신부인협회를 조직하여 부인참정권 운동을 추진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1922(大正 11)에 치안경찰법을 개정하여 여성이 정치집회를 열거나 참가하거나 하는 것을 인정하였다(현대의 일본사 p. 97).

이러한 내용과 함께 신부인협회 제1회 총회에서 인사하는 이치가와 후사에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이치가와는 부인참정권 운동의 중심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참의원 의원이 되어 여성차별의 철폐와 정계 정화에 진력하였다"(현대의 일본사 p. 97)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히라츠카 라이쵸에 대해서도 그녀의 인물사진과 함께, "『청탑』 창간호에 '원래 여성은 태양이었다'고 선언하며 여성해방을 주장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후는 평화운동에도 활약하였다"(현대의 일본사 p. 97)고 소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 평등적 서술은 여전히 성차별적 시선과 교차하며 성 평등적 관점의 역사적 정보를 주면서도 성차별을 내포하는 이중성을 보이는 모순이 발견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함께 부부로서 사회운동을 하였지만 여성은 남성과 결혼한 아내로써 표현되고 있는 점이다.

> 무정부주의자인 오스기 사카에(大杉榮)와 처인 여성운동가 이토 노에(伊藤野枝) 등도 (관동대지진 이후) 헌병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현대의 일본사 p. 98).

또한 근대를 기점으로 하여 기존의 신분제의 폐지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졌다고 언급하며, "기존에는 남녀 사이에도 권리와 의무가 달랐다.… 하지만 특히, 유신 이후에는 통치하는 자와 통치 받는 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졌다"(현대의 일본사 p. 23)고 '평등'을 강조는 가운데 근대 이후 새롭게 재편되는 성 차별의 구조변화에 대

해 학습자들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반면, 『고교 일본사』에서는 근대 이후 사민평등 (四民平等)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현대의 일본사』와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즉 "에도시대 소위 천민이라 분류되었던 집단에 대한 해방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들은 주거, 결혼, 직업 선택에 있어서 여전히 차별을 격고 있었다"(고교 일본사 p. 188)라고 기록하며 평등해지는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계급적 불평등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언급은 누락되어 있다. 즉, 두 권의 교과서 모두 젠더 관점에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오해와 무관심을 불러올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일본사』에서는 간략히 한 눈에 알 수 있는 일본의 근현대사를 다루고, 『고교 일본사』에서는 "사료를 누가 기록하느냐에 따라 기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언급하며 사료를 읽어내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근대를 기점으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해졌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후자는 근대 이후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젠더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양자 모두 성인지적 관점에 있어서 문제적인 역사 텍스트로서의 공통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의 위상

일본의 세계사 교과서는 일본사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세계사 A와 세계사 B로 나누어져 있다. 세계사 역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야마카와 (山川)출판사의 세계사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야마카와에서 출판되고 있는 세계사는 일본사와는 달리 A와 B가 반드시 시대에 의해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사 A (3종)와 세계사 B (3종)는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편집이 되어 있는데, 이 중 전 시대를 다루면서도 난이도는 높지 않아 더 일반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세계사 A 3종

교과서 중에서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주체적인 학습”(세계의 역사 서문)을 강조하고 있는『세계의 역사 (世界の歷史)』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성 중립성, 성 특정성, 성 평등성이 각각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가) 성 중립성

『세계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적 사건 중에서 “21세기 국제사회를 어깨에 짊어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60개의 테마를 선정하여 시각적 이해를 고양하는 560점이 넘는 사진, 지도, 도표”(세계의 역사 서문)를 싣고 있어 일본사 A와 같이 텍스트와 함께 사진의 재현 역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는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서문에는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에 중점을 두고 있음이 서술되어 있다.

> 제1부는 4개의 지역세계(각각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등지에서 어떤 풍토와 사람들에 의해 고대의 종교와 문화가 만들어지고, 독자의 정치와 사회가 만들어졌는가를 기록하고 있다. 제2부는 대항해시대에서 19세기까지 다루며, 풍부한 아시아를 향해 유럽 사람이 항해를 시작한 이래 각 지역세계 사이의 교섭은 밀접해지고, 세계는 일체화로 향하였다. 이 때 유럽이 아시아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도록 한다. 제3부는 20세기인데 이 시대는 세계전쟁과 과학기술, 그리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달에 따라 세계의 일체화가 극명해지는 가운데 환경과 민족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가 구축해온 문명을 받아 발전시키기 위해 21세기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세계의 역사 서문).

이렇듯 교과서의 시작 부분에서 세계, 국가, 종교와 문화 그리고 사람,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보편적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 성 중립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풍토와 사람들을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일

본, 한반도(조선반도), 베트남 등지의 농경문화, 중국 동북부 지역의 수렵문화, 몽골 등지와 같은 고원지대의 유목 문화 등이 특정한 성을 지칭하지 않으며 서술되고 있다. 또한 농경을 중심으로 했던 동 아시아에서는 사회의 질서와 안정된 생활을 위해 많은 노동력을 동원하여 관개시설을 정비했으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강력한 지배자와 조직을 갖추고, 과거제를 실시하고 유교의 영향으로 중국의 통치체제가 유지 될 수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세계의 역사 p. 9).

이와 같이 세계사 교과서는 텍스트 상에서는 각 문화권이 어떠한 풍토에서 어떠한 우수한 문화를 이룩하여 강력한 국가 통치 체제 완성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되었는가에 대해 성중립적 기술을 하고 있지만, 각 문화권의 이해를 돕는 사진의 선별은 극히 남성 중심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사진Ⅲ-26〉〈사진Ⅲ-27〉〈사진Ⅲ-28〉.[20]

〈사진 Ⅲ-26〉 몽골의 초원그림

〈사진Ⅲ-27〉 과거제도

〈사진Ⅲ-28〉주희

〈사진Ⅲ-29〉기사임명식

[20] 해당사진은 각각『세계의 역사』, p. 9, 11에 수록.

〈사진Ⅲ-30〉 농촌의 풍경

중세의 역사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시대에는 생명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연을 맺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러한 결연을 토대로 성립된 것이 봉건사회 (세계의 역사 p. 29)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하지만 봉건사회를 설명하는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결연"이란 결국 왕과 제후, 기사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들이고 중세를 살아간 여성들은 어떠한 토대와 관계 속에 살아갔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중세사회 모습의 효과적 전달을 극대화 한다고 선별되어 실려 있는 사진도 밭을 가는 남성 농부의 모습과 기사 임명식 등 모두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진Ⅲ-29〉 〈사진Ⅲ-30〉.

이렇듯 텍스트에서는 성 중립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미지의 선별은 남성 또는 남성의 일만이 선별되어 있어서 이러한 교재로 세계사를 배우는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남성의 역사만을 배우게 되고, 동 시대의 여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여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 밀러의 비너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다빈치의 모나리자 등 남성 작가에 의해 표상된 여성(세계의 역사 p. 26, 62, 65)으로 역사적 맥락과는 동떨어져 있는 바라보아지는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여성은 '인류'란 보편 명사에 가려져 중세를 지나 근대에 이르고 있다. 근대사 서술은 무엇보다도 전쟁과 세계 공황과 같은 사건과 함께 공업사회의 성숙, 대중문화의 확산 그리고 소비문화의 등장 강조되어 서술되고 있다. 하지만 공업화의 성숙에서는 석탄, 석유, 자동차 등의 산업만이 발달했음을 서술하고 그 노동을 수행한 주체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여성들의 막대한 노동력에 힘입어 발전한 섬유 산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세계의 역사 p. 118).

대중 사회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노동자'와 '화이트 칼라'와 같은 성 중립적 언어를 선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선택은 당시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며, 남성과 같이 일한다고 하더라도 차별화된 임금을 받거나, 현실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가정주부화되어 가던 '젠더화되는 근대의 역사' 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근대 이후 세계사 속 여성 역시 위대한 화가의 작품 속에서 만나볼 수 있을 뿐이고, 그 여성들은 "20세기 여러 가지 여성상"(세계의 역사 p. 121)이란 특별한 타이틀을 달고 처리되어있을 뿐이다.

(나) 성 특정성

『세계의 역사』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 교과서에서는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170여 페이지의 교과서에 560점이 넘는 사진을 싣고 있다. 일단 시각적으로 재현된 세계의 역사 속에 그러나 여성의 인물 사진은 단 6점에 불과하다. 쿄토 (京都)의 절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알려진 길상천(吉祥天) 상, 마리아 테레사 여왕, 3·1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여학생들의 모습, 경제 부흥에 힘쓴 영국 대처수상, 동남 아시아의 정보산업 관련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 국제연합의 고등변호사를 지낸 오가타 사다코(緖方貞子) 여사의 모습 등이다(세계의 역사 p. 16, 73, 140, 162, 168, 171). 이에 비해 남성은 유교의 본질을 실천적 논의로 이끌어 간 주희,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대항해 시대를 연 콜롬부스와 마젤란, 종교 개혁가 루터, 계몽시대의 루소와 로크, 그리고 현대의 정치가, 학자 등에 이르기까지 수적으로 수백 점에 이른다. 더구나 여성을 재현하고 있는 이미지에서는 여성의 성을 전형화하는 기술을 하거나, 역사적 의미가 탐구되지 않고 세계사의 흐름과 동떨어진 배경 인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마리아 테레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마리아 테레사(재위: 1740–1980)는 여자로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프로이센은 이에 반대하여 전쟁에 이르기까지 되었다. 하지

만, 어려운 상황을 잘 인내하여 개혁을 단행하였다. 16명의 자녀 중에 막내가 루이 16세의 아내가 된 마리 앙트와네트이다"(세계의 역사 p. 73)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남성의 업적을 기술하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지도력' 또는 '결단력'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던 것에 비하여, 여성의 경우는 '인내심'으로 개혁에 성공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히 여성의 성적 특성을 전형화하는 생물학적 결정론에 기반한 성차별의 기술 방식이다. 더구나, 개혁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는 전혀 기술하지 않고 그녀가 몇 명의 자녀를 낳았는지 상세한 정보를 주며 마리 앙트와네트가 루이 16세의 아내가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이고 있다. 이는 역사 기술의 태도가 여성을 역사의 각 국면에 주체로서 기술하기보다 여전히 출산을 하는 생물학적 성으로, 부계혈통에 소속되는 성으로, 그리고 정사보다는 야사에 가까운 이야기에 배치하려는 남성 중심적 시각에 입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에서 민족운동이 활발하여졌다고 기술하는 부분에서 제시되고 있는 3·1 독립 운동을 하고 있는 여학생들의 모습(세계의 역사 p. 140)이나, 세계 경제가 단일화되어 가는 가운데 확산되는 정보산업에 대해 기술하는 부분에서 제시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마이크로 칩 생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세계의 역사 p. 168)은 각각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민족 운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노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 이로써 민족운동 안에 남성과 여성이 놓인 다른 맥락, 세계화 되는 가운데 여성의 노동이 갖는 특별한 의미들이 이 세계사 교과서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가질 수 없다. 또한 국제연합의 고등변호사를 지낸 오가타 사다코(緖方貞子) 여사의 모습이 나오지만, 역시 기술의 중심은 오가타 사다코 여사가 아니라 "분쟁에 의해 생긴 난민 구제에 노력한 국제 연합"(세계의 역사 p. 171)이다.

한편 오스만 제국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커피 문화가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 16세기 오스만 제국에서는 커피를 마셔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해 대격론이 일었다. 오스만에서는 사람의 모든 행위가 반드시 해야 하는가, 해도 좋은가, 해서는 안 되는가 … 등으로 구별되는데 가령 예배드리는 것은 “해야 하는 일”, 이교도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이 중 커피를 마시는 일은 어디에 속하는지 당시 사람들은 고민하였다. …그리고 찻집은 전통적으로 남성만의 세계였다. 한편 여성은 친척과 친구의 집에 모여서 마셨다(세계의 역사 pp. 58-59).

이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오스만 제국의 커피 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 총 8장의 사진 중 커피 열매를 담은 단 하나의 사진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남성은 각각 찻집에 앉아 있는 모습, 차를 만드는 모습, 차를 마시는 모습 등으로 나타나는 반면 여성이 차를 마시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슬람 문명에서 살던 현실 속 여성들은 ‘전통’이란 이유로 찻집이란 공적 공간에서 배제되었으며, 현대의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다시 남성중심적 역사 서술 태도에 의해 그녀들의 이미지가 배제되고 있다. 이로써 여성은 커피를 소비하고 커피 생산을 위해 노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이야기하는 역사에서는 누락되었다.

또한 일본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일은 패션에 몰두하는 일이란 성 전형화가 발견되고 있다. 전후 세계 경제가 다시 부흥의 기운을 타고 회복되는 가운데 특히 나일론 제품과 텔레비전의 보급 그리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텍스트 내용에서는 일본사 A처럼 ‘향락적인 여성’이라든가, ‘패션에 정신없이 빠져드는 여성’과 같은 여성에 대한 가치 판단적인 특정한 언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일론〉이란 제목을 달고 스타킹을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을 싣고 있는데 이 사진 속 대부분의 인물은 여성이다. 스타킹은 여성이 신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한 사진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진 속 인물 중에 시선을 끄는 것은 줄을 서 있는 여성들이 아니라, 길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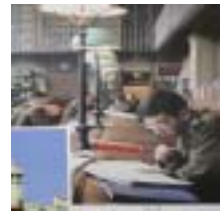
닥에 주저앉아 남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스타킹을 신고 있는 여성의 모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 여성을 주시하며 웃고 있다 (세계의 역사 p. 156). 비록 세계사 교과서에는 패션 부분에서 여성에 대한 가치 판단적 언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길바닥에 앉아 스타킹을 신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텍스트에 굳이 싣는 것은 '패션에 정신 없이 빠져들고 있던 여성'이란 언설의 시각적 재현의 다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진Ⅲ-31〉 나일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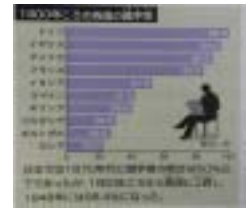
이와 대조적으로 학교의 역할을 다루는 부분을 보면, 국민 의식 향상에 교육이 기여한 바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19세기 여러 나라에서 초등교육이 보급되었으며 문자 해독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계급적 격차가 있었고, 서민층의 자녀들까지 교육을 받게 된 것은 선진국에서도 20세기 중반부터였다고 하는 계급 인지적 기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보급과 확산에 여성의 문맹률과 교육 혜택률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였는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함께 신고 있는 참고 사진 속 교육을 받는 사람의 모습은 모두 남성이고, 교육률의 변화를 나타내는 도표 속 아이콘 역시 의자에 다리를 겹치고 앉아 신문을 보는 명백히 남성으로 보이는 아이콘을 사용하고 있다(세계의 역사 pp.124-125).

〈사진Ⅲ-32〉
중국의 소학교 풍경

〈사진Ⅲ-33〉
프랑스도서관풍경



〈사진Ⅲ-34〉
식자율 도표



(다) 성 평등성

동아시아 해역의 교류와 일본, 프랑스 왕국, 봉건사회의 형성, 예수회 등 카톨릭 수도회의 포교, 전쟁과 눈부신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거시적 역사 서술의 틀은 이미 이름을 가지고 공적영역에서 활동하도록 배치되어 있던 남성의 성만을 역사 속에 등장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세계사 교과서 안에서는 남성과는 다른 역사 속에 여성이 살아왔다는 것을 학습자들이 알 수 있도록 언급하거나, 여성의 역사적 성취를 올바르게 평가하려는 태도는 극히 적은 부분에 그치고 있다.

여성의 역사적 업적을 평가하는 것은 러시아의 역사를 기술하는 가운데 18세기 후반 여제가 된 에카테리나 2세에 대한 부분과 영국의 대처 수상에 관한 부분 뿐이다.

> 18세기 후반이 되면 여제 에카테리나 2세가 농민반란을 진압하고 영토를 확장하여 흑해에 진출하고 폴란드를 분할하였다(세계의 역사 p. 73).

영국의 대처 수상의 경우에도 경제 부흥에 힘쓴 부분이 강조되고 있으나(세계의 역사 p. 162), 이러한 역사 기술은 여전히 정복자 중심의, 그리고 힘과 경제적 부의 달성에 가치를 두는 남성 중심적 내러티브이다. 따라서 "농민반란을 제압하고 경제 부흥을 이루었다"는 역사적 업적에 대한 평가는 정작 여성들이 어떠한 주체성을 가지고 역사의 국면들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탐구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사 분석에 있어서도 살펴보았듯이, 세계사 서술에 있어서도 남녀가 동등하게 서술되고 있는 것으로 가정되나, 여전히 여성은 남성의 아내라는 지위로 역사 속에 자리매김 되고 있다. 즉, 프로테스탄트의 확산을 다루는 부분에서 "오란도 총독이었던 윌리암과 그의 처 메리는 모두 왕가의 피를 이어 프로테스탄트를 열심히 믿었다"(세계의 역사 p. 71). 이렇듯 역사가 여성을 위해 남겨놓은 자리는 역사적 사건

의 배경으로서, 또는 힘과 지배의 논리로 남성과 같은 업적을 남겨놓은 경우이거나 아니면 고작 남성의 아내로서 일뿐이다.

2. 탈국가적 움직임과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의 변화 가능성

이상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 고등학교 과정의 공식 역사교과서에 대한 성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 역사에서 여성이 어떠한 역사적 위상을 부여받고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살펴보았다. 3개국에서 공통적으로 남성이 역사의 주역으로서 확고한 위치에 서 있었던 것으로 당연시되는 경향이 짙었다. 반면, 일견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서술 속에서 여성은 생략되었고, 여성임이 분명히 명시되는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역사의 장에 등장하는 것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그 마저도 남성이 주도하는 역사 흐름 속에 소극적으로 서 있는 대상 내지 남성의 부속물로, 역사의 피해자로, 역사의 흐름에서 뒤떨어지는 존재로 위치 지워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민족국가를 넘어선 동북아 차원의 역사적 흐름은 전적으로 남성에 의해 이루어져온 것으로 표상되고 있다. 주희 등이 사상의 발전을 이끌고 홍수전, 캉유웨이, 쑨원, 마오쩌뚱, 메이지유신의 주체 등이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백, 두보, 백거이, 왕희지, 구양순 등이 동북아 전반의 문화적 격조를 높여온데 비해, 여성들은 이러한 흐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담론 속에서 간간히 드러나는 여성들은 민족별로 철저히 구분된 세계 내에서 오직 민족의 성원으로서만 가시화되고 민족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헌만을 인정받는다. 중국의 여성들은 사회주의 혁명에 의해 해방된 여공, 반청혁명에 가담해 새로운 국가 건설의 기틀을 세운 추진, 문학작품을 통해 공산당의 토지개혁의 의미를 고양시킨 딩링일 뿐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해 교육에 힘쓴

교육자로써, 또한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성들의 역사 속 위치는 남성에 비해 현저히 가시화 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국가에 의해 구원된 여성노동자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역사의 흐름과 역행하는 타자화된 시간 속에 신사에서 소원을 빌거나 전통 키모노 의상을 고수하면서 "우아한"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사람 또는 민족의 기초인 가족의 핵심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명성황후나 일본군위안부, 근로정신대 등 민족갈등의 최대피해자이거나 일제의 침략에 대항해 분연히 일어선 열사의 모습이 두드러진다.

동북아 3개국의 국사 및 세계사 교과서에서 여성은 남성이 주도하는 역사의 장을 꾸미는 배경이거나 남성이 행하는 행동의 대상 정도로 간주되거나 민족구성원으로서만 존재하면서 동북아 역사의 흐름과는 전혀 무관했던 것으로 전제된다. 그런데, 그 마저도 자국 여성에 한해서이고, 지역 내 다른 국가의 여성은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존재가 드러난 소수의 경우에도 '전족의 피해자'나 '게이샤'처럼 힘없는 피해자로서 남성에게 구원되거나 남성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 역사의 방향은 물론이고 자신의 삶조차 변화시킬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거나 서태후처럼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극히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다.

결국 동북아 각국의 공식 역사담론에서 여성은 '그림자'라고 할 만큼 역사주체로서의 위상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만들고 계승해온 유무형의 풍부한 상징, 즉 다양한 형태의 여성문화유산은 그 존재조차 무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국 여성은 '민족', '국가'와의 관련 속에서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고 역내 다른 국가 여성들은 철저히 무시하는 민족주의 담론을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성과 여성이 그간 역사 주체로서 쌓아온 역량을 토대로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함께 형성하고 평화롭고 평등한 동북아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이 문제에 답하기 이전에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있어 여성의 위상과 공동체 형성의 문화 자원으로서 여성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대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세계 각지에서 탈국가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동북아 지역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 분야에서 민족국가의 틀을 초월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의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이 시도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지난 4년간 동북아 3개국의 학자와 교사,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각국의 민족주의 역사기술을 탈피해 탈국가적 차원의 역사적 관점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물로서 대안교과서『미래를 여는 역사』를 발간하였다.

『미래를 여는 역사』는 여러 가지 점에서 공식 교과서와 비교된다. 역사의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이분법에 매여 다른 측면은 조명하지 못했던 동북아의 근현대사에 대해 이 책에서는 동북아 3개국이 걸어온 역사의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하고 각국의 역사를 지역적 맥락에서 조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와 가해는 동북아 역사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 역사적 갈래의 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도 민족주의적 역사기술과는 차이가 있다.

동북아 역사에 있어 여성의 위치에 있어서도 공식 교과서와는 사뭇 다른 접근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여성의 존재에 무관심한 채 성 중립적 개념을 사용해 남성 중심적 해석을 용인내지 유도하는 공식교과서에 비해『미래를 여는 역사』는 남성과 함께 역사의 장에서 다양한 실천을 전개해온 여성의 존재를 표상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9세기 초 일본의 직물공장(미래를 여는 역사 p. 25)이나 중국 청대의 수공업 방직(미래를 여는 역사 p. 29)분야가 여성의 손에 의해 이끌어졌음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독립신문이 단지 남성에 의해 발간되고 소비된 것이 아니라 여성독자층이 중요한 부분을 했음을 명시하고 있다(미래를 여는 역사 p. 61). 또한 단지 몇몇 남성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오해되는 신해혁명에 가담한 저명한 여성당원 추진(미

래를 여는 역사 p. 82)을 비롯해 굵직굵직한 역사적 계기마다 동북아 3개국의 여성들이 자리해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서태후와 전족의 피해자, 게이샤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공식교과서 상의 동북아 여성에 비해 사회의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인 많은 여성들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공식교과서에서는 무시되는 여성의 삶을 역사의 중요한 일부로 통합해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19세기 말-20세기 초 한, 중, 일 3개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새로운 여성상인 '신여성'을 역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통합하는가 하면(미래를 여는 역사 p. 120, 122, 123) 역사적 주제로 인식되지 못했던 여성 머리모양의 변화가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일깨우기도 한다(미래를 여는 역사 p. 113).

> 개항을 하기 전 처녀들은 댕기머리를 하고 부녀자들은 쪽머리를 하였습니다. 머리 모양은 여자들이 학교에 다니고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댕기의 길이를 짧게 하고 한 가래를 두 갈래로 땋거나, 비녀 대신 망을 씌우거나 핀을 꽂는 정도였습니다. 1930년대가 되면서 단발이 유행하였습니다. 머리 모양의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머리 모양은 신여성의 상징이었고 여성 해방의 상징이었습니다(미래를 여는 역사 p. 113).

여성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있어서도 부정적 인물이나 소극적 대상의 위치에서 벗어나 뚜렷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적극적 실천을 전개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식교과서에서는 근대여성교육이 시작되면서 쏟아진 사회적 비난과 통제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비해(한국근현대사 p. 63), 『미래를 여는 역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학생 교육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여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인 여성들의 성취를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신해혁명과 공산주의 혁명운동, 한국의 민족해방 운동을 벌이는 동시에 투철한 신념과 의지로 여성에 대한 압박을 철폐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

했던 여성들 속에서 역사를 개척한 동북아 여성을 발견할 수 있다.

> 천톈쥔(1904-1928)은 … 중국공산당에 가입 … 여성운동에 투신하여 광둥여성해방협회 부주석을 맡았습니다. … 늘 거친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일하는 여성들과 함께 집안일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남녀평등, 봉건적인 압박 반대 등 여성해방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 옥중에서 천톈쥔은 숱한 고초를 당하였지만 끝내 굴복하지 않았습니다(미래를 여는 역사 p. 108-109).

또한 여성의 지위향상에 있어 남성들의 보호와 시혜를 부각시키는 공식교과서와 달리, 여성의 지위 향상이 중요한 역사적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 여성 자신들의 문제의식과 실천운동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 (중국) 여성들은 교육을 받게 되면서 사회무대에 등장하였고, 오랫동안 억압받던 정신적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성지식인들은 여성해방의 선봉이 되었습니다(미래를 여는 역사 p. 116).

> 히라쓰카 라이초[21](1886-1971)는 일본의 신여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1911년 일본 최초로 여성이 만드는 여성잡지 『세이토(靑鞜)』를 발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히라쓰카는 "원시, 여성은 태양이었다"는 말로 상징되는 여성해방 선언을 발표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히라쓰카는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성보호운동, 부인참정권운동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사회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였습니다. … 여성을 억누르는 기존의 사회제도와 관습을 거부한다는 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미래를 여는 역사 p. 122, 123).

물론 동북아의 근현대사를 점철한 갈등과 전쟁으로 여성들은 뼈아

[21] 히라츠카 라이쵸로 표기하기도 하며 히라츠카 하루라고도 한다.

픈 고통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미래를 여는 역사 p. 148, 150, 151, 152, 153, 156, 157, 167, 168, 169). 이점에 대해 『미래를 여는 역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역사의 희생자로만 바라보는 대신 고통 받던 한국과 일본의 여성들이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제소를 하고 사실 인정과 배상을 촉구하는 한편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일본군의 만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당당히 노력하고 있는(미래를 여는 역사 p. 158, 171, 230, 231)모습을 통해 고통의 역사를 극복하고 동북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노력하는 역사 형성의 주체로서의 위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함께 가해자로서의 일본 민족에 가려진 일본 여성의 삶에 대해서도 폭넓은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한 여성들도 있지만(미래를 여는 역사 p. 174), 또 다른 한편으로 일본 여성들은 전쟁수행을 위해 여러모로 통제 당하고 가족과의 이별과 가족의 사망, 자살, 살해 등 심각한 고통을 받았음을(미래를 여는 역사 p. 176-180, 183) 제시함으로써 민족에 따른 가해-피해 구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본 여성들이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도야마현 어촌 여성들처럼 쌀 반출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가하면(미래를 여는 역사 p. 120) 하세가와 데루와 같이 "옳지 못한 것에 피를 흘려서는 안된다."라며 적극적인 반전평화운동(미래를 여는 역사 p. 175)을 펼쳤던 바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 여성들은 단순한 역사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아니라, 전쟁에 대항하고 갈등의 역사를 넘어 평화로운 질서를 추구하기 위한 공통의 희망을 가지고 실천을 벌여왔다. 특히, 민족적 배경을 뛰어넘어 폭압의 질서를 극복하고 동북아의 역사 발전을 위해 투신한 여성들의 존재는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에 있어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다.

> 가네코 후미코(1903-1926)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1923년 간토 대지진때 한국인 박열과 함께 검거되어 황태자를 폭탄으로 살해하려 했다는 '대역죄'로 사형판결을 받은

여성입니다. … 3·1 운동을 목격했을 때에는 강자에 대한 반감에서 “남의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감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권력을 부정하고, 인간은 평등하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상을 가졌습니다. 나아가 갖가지 법률이나 충군애국, 여자의 순종과 같은 도덕은 “불평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사람들을 지배 권력에 종속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그 권력의 대표가 바로 천황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9세 때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지향하던 (한국인) 박열과 … 후테이샤를 결성했습니다. 조선의 독립과 천황제 타도를 지향하던 두 사람은 폭탄의 입수를 계획하기는 했지만 실현하지 못한 채 검거되었습니다.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하여 동지로서 박열을 사랑하고 피억압자와 연대하였으며, 자신의 사상에 따라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미래를 여는 역사 pp. 106-107).

2000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일본군 ‘위안부’제도(또는 성노예제)를 재판하는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 법정’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는 피해여성의 호소에 답하여,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 이 법정은. … 민중 법정이었습니다. 또한 가해국 일본과 6개 피해국(한국, 북한, 중국,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연대로 개최한 국제법정이기도 했습니다(미래를 여는 역사 p. 239).

『미래를 여는 역사』는 동북아 여성사만을 전문적으로 다룬 교과서도 아니며 근현대사만을 포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에 있어 여성의 위상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동북아 각국의 역사에서 여성들이 다방면에 걸쳐 활약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유산을 생산하고 남겼다는 점이다. 그리고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가로막고 있는 역사적 질곡을 직접 체험했을 뿐 아니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천 의지는 과거의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와 평

등,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 핵심적 요소로 중시되어야 한다. 특히, 동북아의 역사적 질곡 속에서도 여성들은 민족적 피해와 가해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 동북아 차원의 연대와 교류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동북아 여성들은 근대사의 모순과 분열 속에서도 여성운동을 발전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가부장적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새로운 여성상의 출현과 같은 일정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을 기초로 각국의 여성들이 걸어온 역사의 길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실체는 한층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Ⅳ

여성문화유산에 관한 동북아지역의 조직 역량

역사주체로서 여성의 위상과 여성문화유산의 존재와 가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부여된 위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기 위한 실천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이러한 실천은 다양한 주체에 의해 개인적, 조직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조직적 차원의 실천 주체는 크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각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문화유산을 정책의제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공공정책을 개발,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여성단체와 학계 등에서는 일반적인 여성문화유산 또는 특정한 유산을 중심으로 학술연구를 추진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며 박물관 또는 전시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대중적 행사를 추진하기도 한다. 물론 정부와 민간부문의 활동 양식이 완벽하게 구분된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에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관계 전문가가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조직의 성격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표Ⅳ-1〉 여성문화유산 관련 기관·단체 유형

유 형	세부 유형
정 부 기 관	• 중앙정부의 관련부처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부처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박물관·전시관 (정부, 민간)	• 여성문화유산 일반을 다루는 박물관·전시관 • 특정 여성문화유산에 특화된 박물관·전시관
학 술 단 체	• 여성사 연구 단체
생 산 자 단 체	• 특정 여성문화유산 생산자 단체
여성·시민단체	• 여성문화유산에 특화된 단체 • 여성문화유산를 활동주제에 포함하고 있는 단체

이러한 분류틀을 기초로 이 장에서는 동북아 3개국에서 여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주요 조직이나 기관, 단체를 살펴보고 탈국가적 차원의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를 구축, 발달시킬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을 가늠하고자 한다.

1. 한국

우리나라에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형성된 것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성사 연구가 시작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표Ⅳ-2〉 여성문화유산 관련 주요기관·단체: 한국

유 형	주요 기관·단체
정 부 기 관	•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등 • 서울시,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등 • 한국여성개발원, 재단법인 서울여성,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등
박물관·전시관	• 여성사 전시관 • 명성황후 기념관, 유관순 기념관 등 • 여성생활사 박물관, 자수박물관, 한산모시관, 김만덕 기념관 • 일본군위안부 역사관(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사이버전시관(여성부)
학 술 단 체	• 여성사연구회, 한국여성연구원,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분과, 한국여성사학회, 한일젠더사연구회 등
여 성 단 체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여성향토문화연구원, 제주여민회 여성문화 발굴단, “여성인물을 화폐에!” 시민연대 등 • 또 하나의 문화,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여성문화예술기획등
생 산 자 단 체	• 한국자수문화협의회, 궁중복식연구원, 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 등 • 강강술래보존회, 씻김굿보존회, 놋다리밟기보존회, 저산팔읍길쌈놀이보존위원회 등

한 여성인물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나타나고, 여성들이 생산, 계승해온 자수 등의 물질문화유산을 다루는 전시관이 생겨나는 등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몇몇 연구자와 문화애호가에게 제한되어 있었으며 여성문화유산의 개념도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말부터 급격히 변화하여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확산되고 개념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정부에서는 여성문화유산을 정책의제로 채택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 다투어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여성문화유산에 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나 교육, 전시,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기구나 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문화유산에 특화된 기구나 단체도 설립되는 등 조직적 기반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1) 여성·가족부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관심이이 가시된 것은 2000년대 이후로 특히 국가 여성정책기구인 여성·가족부(당시 여성부)가 설립된 다음해인 2002년 부처 산하에 여성사 전시관[22]이 설립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2003년부터 시행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에서 사회·문화분야 여성참여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5-3-4)여성 역사인물 및 여성관련 문화재 발굴'을 정책과제로 채택하면서 여성문화유산은 국가 여성정책의 하나의 의제로 통합되었다.

[22] 여성사 전시관에 대해서는 이후 다시 기술함.

〈표Ⅳ-3〉「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중 여성문화유산관련 정책과제 및 추진성과*

정책과제[23]	• 지역의 생활문화 복원 작업 지원 • 여성인물 및 여성문화유산 발굴 지원 • 여성사 전시관 운영
2003 추진 성과	○ 여성사 전시관운영 • 여성사 관련 자료수집, 아카이브 기본자료 구축 - 여성학 이론서, 단체활동사, 여성정책, 사진집 등 단행본 400여권 - VHS, DVD 등 각종 영상물 100여개 • 특별기획전, 복합문화프로그램 운영 - [가족과 호주제], [개관1주년 기념 특별기획전]개최 - 성평등체험프로그램 운영 • 상설전시장 전시내용 보완 - 여성단체운동 관련 전시내용 확충(53개→176개 단체) - 영문 안내자료 제작, 다국어자동안내시스템 설치 ○ 여성문화유산 발굴 및 여성참여 확대 • 여성생활문화유산 발굴, 공개전시 추진 - 중요무형문화재 공예기능 중 여성관련 종목 발굴 (한산모시짜기, 매듭장 등)
2004 추진 성과	○ 여성인물 및 여성문화유산 적극 발굴 추진 • 문화관광부 선정 2005 이달의 문화인물'에 역사 속 여성문화예술가 적극 발굴 추진. 2005년 한해동안 3인 선정 ○ 여성인물 및 여성문화유산 발굴 지원 • 여성 생활문화유산 발굴, 공개 전시 추진 • 중요무형문화재 공예기능 중 여성관련종목 발굴(화혜장) •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여성 전승자 확대

자료: 여성부「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2003년도 시행실적 및 2004년도 시행계획」(2004).
여성부「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2004년도 시행실적 및 2005년도 시행계획」(2005).

* 추진성과는 여성·가족부 뿐 아니라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가 추진한 성과를 포함하고 있음.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여성문화유산과 관련해 여성인물과 여성문화유산 발굴을 지원하고 여성사전시관을 운영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계획 하에서 여성·가족부는 매년 여성문화유산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여

[23] 이외에 '문화재 애호운동에 여성참여 및 활동 지원'이 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성사 전시관의 운영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

이처럼 최근들어 여성문화유산이 국가 여성정책의 의제로 통합되고 여성사 전시관이 설립되면서 정책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사업은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여성사 전시관을 [여성역사 미래관(박물관)]으로 확대,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한때 수립했으나 더 이상 구체화하지 못하고 계획 자체가 무산된 상태로 정책이 소극적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2005년에는 여성·가족부가 직접 운영하던 여성사 전시관을 외부위탁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사업이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2) 문화관광부

여성부 이외에 여성문화유산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두고 있는 부처는 문화관광부로 다양한 문화자원의 일부로 여성문화유산, 특히 문화예술분야의 여성인물과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여성국극 지원, '바리공주'나 '영원한 사랑 춘향이'와 같은 여성인물을 조명하는 전통연희극 공연 지원, 이달의 문화인물로 신사임당, 나혜석, 허난설헌, 정부인 안동장씨 등 여성인물을 고려한 점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관련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2002년 여성문화교실을 개최하면서 '우리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여성의 삶과 지혜', '우리 옛 그림 속에 나타나는 여성들의 모습' 등 여성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강좌를 포함한 바 있다. 이외에 2004년에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한 문화콘텐츠화 사업에서도 기생의 문화와 예술, 조선의 궁중여성처럼 역사 속에서 간과된 여성들과 관련된 디지털콘텐츠를 개발하고 무속과 전통장신구처럼 여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사업도 포함하였다.

이처럼 문화정책분야에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부분적으로나마 형성되어 있었던 데 더해 2003년 문화관광부 내에 여성문화TF

팀[24]이 설치되면서 여성문화유산정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여성문화TF는 양성평등한 문화시민사회 구현을 문화정책의 주요한 가치로 통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여성문화유산을 발굴, 계승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는 것을 과제로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여성문화인물 발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문화인물을 광범위하게 집중 발굴하여 이달의 문화인물 사업에 적극 추천하였으며, 역사속의 여성문화예술인을 재조명하는 사업도 추진하였다.

특히, 여성문화TF에서는 여성문화유산의 가치를 계승, 확산할 수 있는 대중적 프로그램으로서 여성문화유산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코스로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그 일환으로 2004년에는 (사)또하나의 문화와 협력하여 해남에서 '여성문화 테마관광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국 각지의 여성문화유적을 잇는 테마관광 프로그램 개발작업에 착수하였다. 구체적으로 역사 속 여성 인물로 선덕여왕, 진덕여왕, 명성황후, 신사임당, 논개, 허난설헌, 유관순, 나혜석, 안성 바우덕이, 여성국극의 임춘앵, 황진이 등과 관련된 유적지 관광과 고정희 백일장, 나혜석 거리 축제, 토지문학제, 혼불문학제 등 여성문화예술가들의 존재와 정신을 뒤새길 수 있는 여성문화제 관광,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 장인들과 여성무형문화재와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체험관광 등을 기획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관심은 문화정책의 비전인 「창의한국(2004-2008)」에도 수렴되어 중장기적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를 기초로 여성문화TF에서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여성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여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관광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임시조직인 여성문화TF팀만으로는 체계적인 정책 수립-추진에 한계가 있었

[24] 2003년 제2기 문화행정혁신위원회 16개 TF중 하나로 구성되어 2005년 초까지 기능하였다.

〈표Ⅳ-4〉「창의한국(2004-2008)」중 여성문화유산관련 정책과제

○ 2005 '이달의 문화인물'사업에 여성문화인물 집중 발굴 -문화예술·여성문화 관련 단체와 지자체 등을 통한 여성문화인물 발굴·추천 -각 분야별 자문위원회 구성과 검증을 통한 문화인물 선정 ○역사 속의 여성문화예술인 재조명 프로젝트 개발 ·여성문화예술가의 삶과 예술활동에 대한 연구 지원 ·여성문화예술가의 작품 출판·전시·공연 등 기념 문화행사 지원 ○여성문화 체험관광상품 개발 ·역사 속의 여성문화예술인 적극 발굴, 관련 문화재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한 여성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중·고교 등 학교 수학여행 연계를 통한 여성문화체험 프로그램 코스 적극 모색

자료: 문화관광부, 『창의한국』(2004), pp. 152-154.

으며 물적, 인적 자원도 크게 제한된 상황에서 몇몇 사업이 단기적으로 추진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 게다가 여성문화정책 전담부서에 대한 여성문화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성문화TF팀이 정규조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2005년 초 사라지면서 정책 추진역량이 급격히 약화되었고 그간 뿌려놓은 여성문화유산 정책의 씨앗마저 사라질 우려가 크다.

(3) 지방자치단체

여성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이외에도 서울시와 경기도, 제주도, 경상북도 등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그 관심도가 현저히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분권화의 진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문화자원으로서 지역출신 여성역사인물과 관련된 유적이나 유물을 중심으로 여성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식해 여성정책의 한 분야로 통합하기 시작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여성정책연구기관이나 여성발전센터 등이 설치되면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정책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와 경상북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는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해 설화나 민속연구, 구술사 등의 방법론 기초로 지역의 특수한 여성생활문화를 재구성하고 묻혀져 있던 다양한 여성문화유산을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표Ⅳ-5〉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문화유산관련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정책계획	세부과제
경 기 도	경기도 여성발전 5개년계획	○ 경기 여성문화유산 발굴 • 도내 여성인물 및 여성문화유산 발굴, 홍보 •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복원 • 여성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일반의 인식 제고 및 학생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
강 원 도	제2차 강원여성개발계획 (2003-2007)	○ 지역 역사, 인물 발굴 및 선양, 역사유적의 복원시 여성참여 확대 • 시 · 군별 전통문화연구회 연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사연구방법론 교육 및 워크숍 실시 • 강원여성역사인물집 발굴 ○ 선각여성들의 지속적인 발굴과 선양 ○ 자랑스런 강원여성 발굴 및 시상(매년) ○ 신사임당, 허난설헌 축제(민간단체 주관)
경 상 북 도	경상북도 여성발전 장기계획 (1995-2020)	○ 여성예술인 발굴 육성 • 내방가사CD작업 추진(2000) ○ 여성사 박물관 건립 (2015-2020) ○『경북여성사』출간(2004):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서적) 경북여성사: 경북여성의 삶의 원형을 찾아서 • (CD) 경북여성사: 경북여성의 삶의 원형을 찾아서 •『경북여성사』발간기념세미나 개최
제 주 도	제주시 여성정책 (2000-2002)	○ 제주여성사 정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생존해있는 여성들의 구술적 자료의 확보 및 증언자료집 발간 • 김만덕, 해녀 활약상 재조명을 위한 학술 용역 ○ 여성의 생활사 중심의 문헌자료집 발간 • 제주여성사자료총서1: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 사진자료집 발간 (2001) ○ 여성주간 행사로 여성문화유산답사지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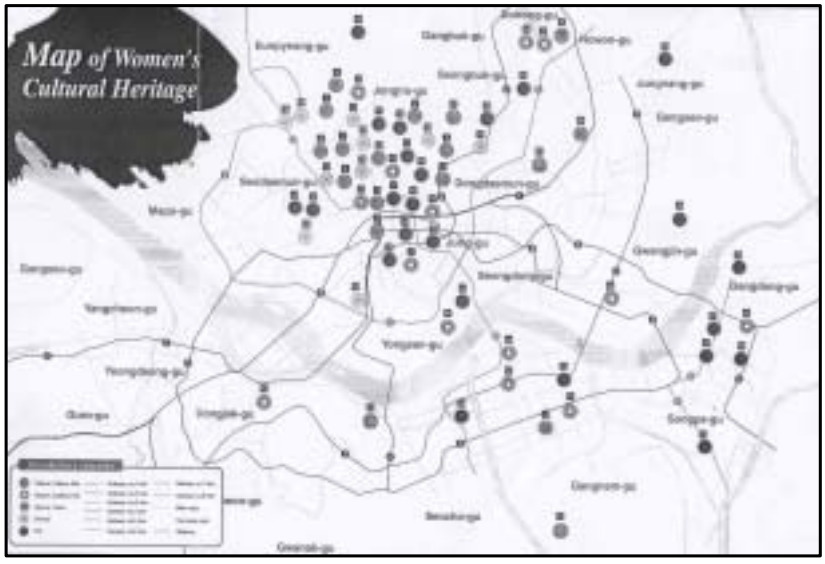
〈표Ⅳ-6〉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추진성과

지방자치단체	사업 추진성과
서울시, (재)서울여성	• 여성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2003부터) • 제9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역사 속의 그녀들을 찾아서](2004) •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 'Herstory Tour in Seoul'(2005) • 조선여성의 멋과 문화전(서울역사박물관, 2002)
경기도	• 경기도 여성역사인물 조사(2000) • 경기도 여성역사인물 책자 발간, 배포(2001) • 『경기 여성발전사』 발간(2002) • 『전통종가 여성생활사』 발간(2004) • 여성실학축제 [축제로 만나는 규합총서] 개최(2004)
강원도	• 『강원도 여성사』발간(1996) • 강원여성역사인물 토론회(2004) • 강원여성문화유산지도 제작(추진중)
경상북도, 경북여성 정책개발원	• 『경북여성사』 발간, 기념세미나 및 체험마당 개최(2004) • 『신문으로 읽는 경북여성사』 발간(2005, 진행중) * 여성사 사이버 박물관 개발 계획
제주도, 제주도여성 특별위원회	• '깨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 워크숍 개최(2001) •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 사진자료집 발간(2001) • 제주여성, 일상적 삶과 그 자취 (신문기사자료집) 발간(2002) • 『제주여성, 시대를 어떻게 만났을까』』발간(2003) • 『구술(口述)로 만나는 제주 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발간(2004) • 『제주여성전승문화』 발간(2005) • 사이버 박물관 제주삼다관에 '여성관' 개설
전라북도	• 『전북여성발전 50년』발간(2000)
전라남도	• 『전남여성 100년』발간(2002)

〈표Ⅳ-7〉 여성문화유산관련 사업 사례:
[역사 속의 그녀들을 찾아서](2004, 서울시·(재)서울여성)

사 업	내 용
1) 세미나 [여성의 역사 다시보기]	목적: 서울에 거주했던 옛 여인들의 삶 고찰, 여성문화유산의 의의 조명, 공유 1부 1) 생활문화 속의 여성(명절, 축제, 의식주) 2) 여성문화유산 활용방안 사례발표1: 유럽의 사례 3) 여성문화유산 활용방안 사례발표2: 허난설헌 축제 2부 여성사전시관(여성부 건립) 특별기획전 관람: 근대교육과 여성문화와 관련 “여성, 배움을 통해 세상을 그리다”를 주제로 함.
2) 여성문화유산 답사 [서울의 여성사를 찾아서]	목적: 서울안의 여성문화유산 재발견, 역사와 일상에 묻혀 있던 유적지에서 역사 속의 여성들을 만남 - (코스1) ‘궁궐여성의 생활’ · 왕후와 후궁, 궁녀들을 중심으로 발굴 - (코스2) ‘신여성과 독립여성’ · 러시아공사관-정동교회-중명전-유관순기념관-서대문 형무소
3) 여성문화유산 지도 제작 및 테마 전시	- “여성문화유산지도: 서울의 여성사를 찾아서(Map of Women's Cultural Heritage: In Search of Women's History in Seoul)” ·서울시내 64개 여성문화유산의 위치와 내용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한 지도 제작, 배포, 전시 ·궁에서 찾아보는 여성문화/ 조선시대 왕비의 능/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는 여성사/ 여성의 생활문화를 볼 수 있는 전시관/ 근대여성교육기관 - 여성문화유산 테마 전시: ‘수도 서울, 궁궐의 여인들’ ·조선왕조의 여성정치력의 발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왕비와 조선시대의 커리어우먼인 궁녀에 관한 전시
4) 수다콘서트 통?통!통-역사 속의 그녀를 만나자!	- 밥통? 어머니와 밥 그리고 여성의 일상적 삶/ 소통! 서로를 알고 소통하는 삶/역사 속의 그녀와 신나게 어울어지는 삶 - 시민참여 여성문화예술프로젝트 실시: 수다콘서트 공연

〈그림Ⅳ-1〉 여성문화유산지도((재)서울여성 제작)



▷경복궁(교태전, 자경전, 명성황후 시해터) ▷창덕궁(대조전, 낙선재, 연경당)

▷창경궁(통명전, 경춘전, 양화당) ▷종묘 ▷경희궁 ▷칠궁 ▷운현궁 ▷선희궁

▷이화장 ▷국립민속박물관 ▷북촌한옥마을 ▷떡·부엌살림박물관

▷인왕산 국사당, 치마바위, 선바위 ▷홍덕이네밭 ▷선잠단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 소재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작업을 기초로 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문화유산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 전시회를 벌이는가 하면 여성문화유적 지도를 만들고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을 다양화 하고 있으며 여성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는 등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2004년 실학축제의 일환으로 [축제로 만나는 규합총서]를 기획해 실학에 대한 남성 중심적 해석 하에서 잊혀졌던 여성실학자와 그녀의 저서[25] 등 여성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일반에 알

리기도 했다. 그리고 여성문화유산과 관련해 특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제주도에서는 사이버박물관 제주삼다관(http://www.jejusamda.com)에 '여성관'을 개설해 신화와 역사 속의 제주여성을 조명하고 제주의 특수한 잠녀와 관련된 도구나 그들의 삶, 공동체 등 다양한 여성문화유산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진을 통해 전통사회와 오늘의 여성의 삶과 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뭍과 바다를 넘나드는 억척스런 삶을 꾸려온 제주여성. 제주여성들은 제주 문화의 주체이자 살아있는 제주 역사다. 제주여성들이 빚어낸 삶과 공동체는 제주문화의 뼈이자 살이다(제주삼다관 '여성관' 중에서).

이밖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대표적인 여성문화유적이나 유물을 보존하고 관련 기념관이나 기념공원 등 여성문화유산에 특화된 공간을 조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북제주군의 해녀항일운동기념공원, 남원시의 혼불기념관, 전주시가 설립을 추진 중인 최명희 기념관, 서천군의 한산모시관, 천안시의 유관순열사 기념관, 여주군의 명성황후 기념관 등이다. 또한 남원의 혼불마을[26], 수원시의 나혜석 거리처럼 여성문화유산을 기념한 거리를 지정하기도 했다.

(4) 기타

여성·가족부와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에서도 여성문화유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정보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은 1990년대 초 한-중 교류가 본격화될 당시, 중국전국부녀연합회가 발간한 『중국여성운동사』를 번역, 발간함으로써 중국여성사 연구기반이 전무했던 당시 우리나라에 중국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촉발

---

[25] 18C. 여성실학자 빙허각 이씨와 그녀의 저서 규합총서를 소재로 한 축제이다.

[26] 남원시는 사매면 대신리 상신마을과 서도리 노봉마을을 혼불마을로 지정하였다.

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지역 차원의 여성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 확산하기 위한 연구[27]를 수행하는 한편, 2001년부터 한국여성사 지식정보자원 구축사업[28]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여성사 지식정보자원 구축사업에서는 기존의 여성사 연구 성과와 신문, 잡지, 사진 등의 사료 를 망라해 여성인물과 여성생활문화, 여성교육, 여성단체 등 주요 여성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정보DB[29]〈http://www.womenhistory.re.kr:7070〉를 구축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나. 박물관·전시관

문화유산을 집중적으로 표상하고 그에 대한 의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박물관이나 전시관은 문화유산에 대한 일반적 의식을 높이는 핵심적인 공간으로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990년대 이후 세계 각지에서는 여성문화유산에 관련된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여성문화유산 전문 전시관,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문화유산에 특화되지는 않았더라도 전시의 한 분야로 여성문화유산을 다루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상당수에 이른다.[30] 이 가운데, 여성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주요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성사 전시관

여성문화유산을 직접 표방한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문을 연 것은

---

[27] 양애경·김이선·김양희, 『여성문화유산의 현황과 지역문화자원으로의 활용 활성화 방안』(한국여성개발원, 2004).

[28] 한국전산원의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29] 2004년 말 현재 문자 76,327면, 이미지 15,295면, 동영상/음성 897면을 수록하고 있다.

[30] 국립민속박물관, 궁중유물전시관이나 대학 부속박물관에서도 여성들이 만들고 사용하던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로 특히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여성사 전시관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여성의 삶과 업적을 재조명하고 여성이 남성과 함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역사 발전의 축이라는 인식을 뿌리내리기 위해 2002년 문을 연 여성사 전시관은 근대 이후 여성들의 삶의 모습과 역사적 성취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전시관에서는 [위대한 여성: 할머니, 우리의 딸들을 깨우다]를 주제로 한 상설전을 조직하여 근현대 약 100년에 걸친 여성의 삶과 관련된 600여종 3000여점의 유물을 전시함으로써 여성 교육과 노동의 변화상을 확인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여성운동의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여성의 힘, 일상의 창조성](2003. 12. 9-2004. 2.1), [여성! 배움을 통해 세상을 그리다](2004. 7.1-10.31) 등의 기획전을 조직하여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고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해온 역사주체로서 여성의 존재를 확인하고 남성중심적 성별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여성들의 실천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전시 이외에 여성사 전시관에서는 구술사를 비롯해 여성사 연구의 바탕이 될 만한 자료를 발굴, 수집하여 여성사 아카이브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05년 9월-10월에는 '신여성'을 주제로 한 여성사 강좌를 개설하여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 구조에 대항해 새로운 사회 질서를 꿈꾸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신여성'들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고 의식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이처럼 여성사 전시관은 국내 최고의 여성문화유산 전문 전시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의 대표적인 여성문화유산 전문기관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고 예산과 인력도 크게 제한되어 있어 아직은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한때 제기되었던 박물관건립 계획도 백지화된 상태이다.

(2) 여성생활사박물관

여성문화유산에 특화된 박물관 중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여주에 위치한 여성생활사박물관이 그 대표적 예이다. 2001년 폐교를 이용해 문을 연 여성생활사 박물관은 여성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약 3,500점의 유물을 소장, 전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여성들이 만들어 사용했던 전통복식과 직물을 중심으로 바느질도구와 장신구, 부엌용기 등 여성들의 일상생활 전반과 관련된 유물도 상설 전시되어 있다.

상설전시 이외에 여성생활사박물관에서는 경기도가 주관한 여성실학축제(2004)에 참가하여 천연염색전을 개최하였고 고쟁이 등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던 물품을 소재로 특별기획전도 개최한 바 있으며, 천연염색 한-일교류전을 개최하는 등 동북아 차원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키워가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과 인원으로 박물관을 운영하는 데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3) 특정 여성문화유산 관련 박물관·전시관

위에서 살펴본 여성사 박물관이나 여성생활사박물관과 같이 일반적인 여성문화유산을 다루는 박물관, 전시관 이외에 특정한 여성역사인물이나 여성집단, 여성들이 계승해온 무형문화유산에 특화된 전시관, 기념관도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기념관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수한 문화를 발굴하여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기념관은 지역주민들이 결성한 단체가 중심이 되어 설립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전시관으로는 여주군의 명성황후 기념관과 천안시의 유관순열사 기념관, 남원시의 혼불문학관[31] 등이 있으며, 전주시의 최명희 기념관 등도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민간운영 전시관으로는 김만덕 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제주

[31] 작가 최명희의 작품세계를 기리기 위해 남원시가 2004년 개관했다.

의 김만덕 기념관과 개인이 운영하는 자수박물관, 떡/부엌살림박물관 등이 있다.

〈표Ⅳ-8〉 특정 여성문화유산관련 전시관

	운영주체	설립 연도	주요전시내용
명성황후 기념관	여주군	2000	명성황후 일대기와 시해사건 관련 유물
유관순열사 기념관	천안시	2003	유관순열사 일대기를 보여주는 유물과 영상물, 벽관체험코너
김만덕기념관	김만덕기념사업회	1978	김만덕 영정, 일대기를 그린 그림작품
혼불문학관	남원시	2004	소설 '혼불'소개, 소설내용 관련 전통민속(혼례, 장례, 놀이 등)재연, 베짜기 체험, 작가 사진, 집필실 등
한산모시관	서천군	1993	모시생산시연, 원료, 생산도구, 필모시, 모시옷, 기념품 등
자수박물관	개인	1976	병풍, 불교자수, 장신구, 보자기 등 자수작품
박을복자수박물관	개인	2002	자수예술가 박을복 작품
떡/부엌살림박물관	개인	2002	식기, 조리도구 등 부엌살림도구, 재래식 부엌 모형, 떡, 다식, 약과 조리도구 등

지역과 관련된 여성역사인물이나 물질문화유산을 다루는 기념관에서는 해당 인물의 일생과 역사적 행적, 업적 등을 글이나 그림 등으로 소개하거나 물질문화유산의 생산기술이나 도구, 유물을 다채롭게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역사인물의 경험이나 여성들의 생산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코너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외에 길쌈이나 자수 등 여성들이 생산, 계승해온 중요한 물질문화유산과 관련된 기념관을 중심으로 국제 교류활동도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과의 교류가 주를 이룬다. 한산모시관은 일본 소화촌의 가라무시 생산자들과 정기적인 상호 교류를 하고 있으며, 2004년에

는 일본의 저마기술보존협회 회원이 한산모시관을 방문한 바도 있다. 또한 자수박물관에서는 일본의 도쿄민예관, 오사카민예관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미술관과 교육회관 등에서 [보자기명품전](1986), [한국의 전통 보자기전](1990), [여성의 색채전](1993), [조선왕조시대의 자수와 직물](1995, 1996) 등의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처럼 전시공간이 늘어나면서 여성문화유산의 존재와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는 급속히 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시관, 박물관에서는 해당 여성인물이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역사의 발전에서 어떠한 위상을 차지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며, 성별을 초월한 문화유산으로 표상되는 경향이 짙다. 또한 자수나 길쌈 등과 관련해서도 생산기술과 지적자원을 발전시키면서 생산력 향상에 기여하고 물질문화유산을 발전시켜온 여성들의 존재와 그들의 삶 보다는 생산기술의 정교함이나 생산물의 형식적 아름다움이 강조되고 있어 역사 발전을 이끌어왔던 여성의 적극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역사 전시관은 동북아 역사에 있어 여성의 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특히 동북아의 미래를 여는데 있어 여성 참여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는 우리 역사 나아가 동북아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자 여성의 역사적 존재성의 어두운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여성들은 단순한 역사의 희생양이 아니라 갈등과 폭력의 역사 속에서 심각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아픔을 극복하고 미래의 평화롭고 인권이 보장되는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실천하는 역사적 주체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과거 역사 속에서 여성들이 겪은 아픔과 미래세계를 열어가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의 위상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는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정부와 민간단체에서는 이러한 점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전시관을 통해 표상하고 있다.

생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한 여성인권단체인 나눔

의 집이 1998년 개설한 일본군위안부 역사관은 일본의 전쟁범죄와 관련된 자료와 피해자들의 증언 채록, 위안소 내부 복원 공간과 각종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한 할머니들의 활동상을 담은 자료도 전시하고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건립하여 미래 역사의 방향을 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여성·가족부는 2005년 광복 60주년을 맞아 일본군위안부 역사관을 토대로 일본군 위안부 사이버 역사관 〈http://www. hermuseum.go.kr〉을 개관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본군 위안부전시관은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진척을 가로막는 폭력과 갈등의 역사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여성들이 직접 나서서 갈등의 극복을 모색하는 바를 표상하고 있다. 나아가 전시관은 국경을 초월해 동북아 나아가 동아시아 차원의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공동체의 진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일본군위안부 역사관은 일본 오사카인권박물관 그림전에 참가하여 일본군 위안부의 고통과 화해의 과정을 일본인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었으며 일본교과서 왜곡반대 국제캠페인에도 적극 참가하면서 동북아 역사에 대한 발전적 시각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사이버역사관에는 2000년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등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동아시아 여성들의 연대활동도 포함되어 있어 동북아의 역사적 발전을 이끄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주체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다. 학술단체

이상과 같이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다양한 여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개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 속의 여성의 존재와 여성의 역사적 삶과 경험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나아가 젠더의 관점에서 역사기술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 학문적 시도가 선행되었기에 가능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문화유산에 대

한 관심이 생겨난 것은 1970년대 들어 고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여성사의 흐름을 정리하고 항일운동기 독립운동과 교육활동,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역사적 장에서 활동했던 여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우리 역사에서 잊혀지거나 주변화 되어왔던 여성 개인과 집단의 존재를 규명하고 이들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고 여성사 방법론이 발달하면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학문적 성과는 꾸준히 쌓여왔다. 특히, 여성사에 대한 연구 관심을 공유하는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여성사 연구의 지평을 넓혀 가면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시켰던 것은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여성사 연구는 1972년 이화여대 한국여성사연구소의 설립과 함께 『한국여성사Ⅰ』(1972), 『한국여성사Ⅱ』(1972) 『한국여성사부록』(1972)이 발간되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하였다. 한국여성사연구소가 1977년 한국여성연구소(현 한국여성연구원)에 통합된 이후에도 한국여성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시대별로 수집, 정리하는 작업은 계속 추진되어 총 11권의 『한국여성관계자료집』이 발간되었으며, 1992년부터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사료인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여성사 사료를 발굴하여 현재까지 총 11권의 『한국여성사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우리나라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기반을 제공해왔다. 현재에도 한국여성연구소에서는 '여성생활문화역사자료정리사업' (2004-2005)을 수행하여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집대성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여성사 연구는 대학 내의 연구소 뿐 아니라 여성운동의 한 부문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1985년 여성사연구회 식민지 여성사팀의 결성은 여성사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사연구회에서는 근대 우리역사의 결정적 고비였던 식민지 시대를 중심으로 여성들이 직면한 질곡을 통하여 역사적 모순 속에서 여성문제의 전개양상을 이해하고 '근우회'의 활동 등을 통해 여성들의 주체성을 확인함으로써 가려졌던 여성의 역사를 새로 쓰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1989년 한국여성연구회(현 (사)한국여성연구소)로 통합된 이후에는 여성사연구실을 중심으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역사를 재구성하고 젠더관계의 역사적 맥락을 풀어내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여 『한국여성사: 근대편』(1992), 『우리 여성의 역사』(1999) 등을 발간하였다.

이처럼 1970년대부터 지속된 연구 활동을 통해 보다 다양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학문적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성과를 기초로 2000년대 이후에는 여성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 여성학회에서는 지배적 역사기술에서 역사적 주체로서의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분석하고 여성사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는 한편, 역사적 과정을 살았지만 잊혀지거나 주변적 존재로 간과되던 다양한 여성들의 삶과 경험, 역사를 끌고 나가는 여성들의 실천 등을 재구성하는 등 여성사 연구는 여성학계의 공론의 장에 본격적으로 통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4년에는 한국여성사학회가 창립되어 전문적인 여성사 연구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연구결과를 일반에 확산시키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여성사학회에서는 2005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에 여성사 패널을 조직하는 등 한국 여성사를 연구하는 외국인 학자들과 교류를 추진하고 신여성과 여성운동 등 동아시아 각국의 여성사를 비교분석하고 동북아 지역사의 전개과정에서 여성과 젠더관계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일 젠더사 연구회의 활동은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추진에 있어 여성문화유산의 가치와 학계의 활동방향을 정립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한일 젠더사 연구회는 그간 민족국가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 왔던 여성사 연구의 한계를 공감한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이 아시아, 특히 동북아의 상호 영향 속에서 여성사의 전개양상에 대한 연구관심을 교류하기 위해 1999년 결성하였다.

연구회에서는 2000년부터 2001년에 걸쳐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양국의 상호교류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면서 여러 면에서 흥미로운 비

교가 가능한 양국의 신여성에 대한 연구 성과를 교류하며 연구 관심을 발전시켰다. 제1차 심포지움은 [근대일본의 '새로운 여자'와 조선의 '신여성' 그 만남을 탐구한다]는 주제로 2001년 1월 일본 동경의 아오야마가쿠인(青山學院)대학에서 열렸으며, 그해 11월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근대적 여성상의 한일비교]라는 주제로 2차 심포지움이 열렸다.[32] 그리고 3차 심포지움은 2001년 8월 가고시마 국제대학에서 [가고시마, 일본, 한국의 새로운 여성들]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시켰다.

한일 젠더사 연구회는 초국가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여성사 연구 주제를 발굴하여 이를 중심으로 여러 국가, 특히 민족 차원에서 서로 심각한 갈등을 경험했던 양국의 연구자들의 교류의 장이었다. 그 존재와 활동은 여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초국가적 문화공동체의 추진 기반이 학계를 중심으로 그만큼 형성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2년 이후에는 가시적인 활동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어 그간의 교류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네트워크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외에 중국 여성사 연구기반이 점차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1990년대부터 국내에서 남성중심적 중국 역사 기술 속에서 가려졌던 여성인물과 그들의 역사적 성취를 재조명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기 시작해(김승심 1991) 1990년대 중반부터는 여성학 학술교류의 일환으로 중국여성사 학자들과의 교류가 추진되기도 했다.[33]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한국중국사학회 차원에서도 중국 여성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여성의 눈으로 본 중국역사] 국제심포지움(2002)을 개최하는가 하면 중국 여성사 연구자들이 모임[34]을 결

---

[32] 2차 심포지움을 토대로 『신여성: 한국과 일본의 근대 여성상』(문옥표 외, 2003)이 발간되었다.

[33] 1996년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가 주최한 [아시아 가부장제와 페미니즘 의식] 국제심포지움에 杜芳琴교수가 참가하여 "중국여성사연구와 여성의식의 상승"에 대해 발표하였다.

[34] 이화여대 중국여성사 연구실이 그 예로 2005년에는 『중국 여성, 신화에

성해 여성통치자와 여성문학가 뿐 아니라 여성들을 둘러싼 사회제도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중국 여성사를 조명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연구 기반이 한층 넓어지고 있다.

라. 여성단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계에서는 남성 중심적 역사 담론을 비판하고 여성의 역사적 위상을 재평가하며 잊혀져 있던 다양한 여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그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구성하는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여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전시관을 운영하거나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잊혀지고 간과되던 여성문화유산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고 여성문화유산을 통해 미래 동북아 역사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여성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다양한 여성문화유산 가운데에서도 여성단체에서는 역사적 질곡 속에서 고통 받은 여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여성을 역사의 일부로 부각시키는데 우선적 관심을 두었다. 특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을 비롯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은 동북아 역사 속에서 여성에 대한 현재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1990년 결성 이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해 지나간 역사 속에서 여성들이 직면했던 문제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역사의 질곡을 극복하고 여성들이 새로운 역사의 방향을 모색하는 중심에 서 있음을 확인시켜 왔다. 또한 위안부 문제를 동북아 여성 공동의 의제로 발전시키고 1992년부터 일본의 진보적 여성단체를 포함해 아시아 각국 단체가 참여하는 아시아연대회의를 조직하고 [2000년 일본국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을 일본에서 개최함으로써 여성이 앞장서 동북아 역사의 응어리를 풀고 미래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

서 혁명까지』를 발간하였다.

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라 국의 공식역사기술을 여성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새로운 역사적 관점을 형성, 확산하기 위한 실천으로 발전되고 있다. 특히,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가 대두된 2001년부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쟁과 여성인권센터와 일본의 여성·전쟁·인권학회를 중심으로 양국의 학자와 활동가 67명이 '한국여성공동역사교재편찬위원회'를 결성해 근대 한국과 일본의 여성의 삶과 젠더관계에 대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양국 역사교과서를 평가하고 한 나라의 역사를 넘어서는 공동 역사교재 편찬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드디어 최근들어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 『젠더 시점에서 본 일한 근현대사』가 발간되어 동북아 공동체의 진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표Ⅳ-9〉 여성단체의 여성문화유산관련 활동 사례

단체	주요 활동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 일본군위안부대책활동, 국제연대활동 •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편찬위원회 •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건립 추진(2006년 착공, 2007년 완공 계획)
또하나의 문화	• 고정희 추모여행(92~), 고정희상 시상(01~), 10주기 기념행사 • 여성문화테마관광코스 개발 전문가워크숍(04) • 여성테마여행 - 한국의 여성 불교 문화체험 - 고정희 시인을 중심으로 한 남도 여성문화예술체험 - 여성공간으로서의 서울체험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 허난설헌 여성문화축제(03)
제주여민회	• 여성문화발굴단 조직(05) • 여성문화발굴단 공개교육 "여성의 눈으로 역사·문화 바로보기"(05) • 답사 "제주의 여성신화를 찾아서"(05)
여성문화 예술기획	• 여성실학축제 기획, 주관(04, 경기도 주최)
한국여성 향토문화연구원	• 소서노기념사업회, 동아시아허난설헌연구회, 김금원기념사업회 등 추진 •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 답사프로그램 • 칠석문화잔치(04)

이외에도 또하나의 문화,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제주여민회, 여성문화예술기획 등의 단체에서 소서노[35], 허난설헌, 고정희, 빙허각이씨 등 장구한 역사 과정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역사의 방향을 이끌어 왔으면서도 잊혀지고 왜곡되었던 여성들의 존재를 되새기고 그 역사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향토문화연구원과 같이 여성문화유산에 특화된 단체도 등장하여 보다 다양한 여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여성단체에서는 교육과 답사, 축제 등을 통해 여성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실천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4년 '역사 속에서 무시되고 폄하된 여성인물 바로 세우기'를 주제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여성축제]이다. 이 축제는 주요 여성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진행한 것으로 역사 기록 속에서 웅녀와 신사임당, 선덕대왕, 허황후, 장화황후, 빙허각 이씨와 같은 여성인물에 대한 편린을 찾고 이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과거와 현대의 여성역사를 재창조하고 미래지향적인 양성평등문화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처럼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일반적 관심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화폐 도면에 남성인물들이 등장하는 현실이 지적되면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폄하 문제가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성 인물을 화폐에! 시민연대' 도 결성되어 남성인물이 점령하고 있는 화폐에 여성인물을 통합시킴으로써 여성문화유산의 가치 재평가를 도모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화폐에 등장하는 메이지 시대의 여성소설가 히구치 이치요가 알려지는 등 국내 여성문화

---

[35] 남편을 고구려 시조로, 아들을 백제 시조를 만든 이 놀라운 여성 소서노의 이름은 여태껏 주몽과 온조에 가려져 있었으나, 중국의 동북공정과 맞물리며 주목할 만한 우리 여성사의 인물로 새삼 부각되고 있다 〈http://h21.hani.co.kr/section-021115000/2005/07/021115000200507070567054.html〉.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점차 국외로 확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마. 기타

여성문화유산은 여성역사인물이나 여성 집단의 존재 자체와 그들의 삶과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표상하는 유무형의 상징, 즉 유적지나 유물 등의 유형 문화유산과 생활문화나 의례나 연행 등을 수행하는 기능과 기술, 지식 등의 무형문화유산을 포괄한다(김이선 외 2004: 26~29). 이 가운데 무형문화유산은 단지 과거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생산자들을 통해 오늘날에도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여성문화유산의 가치를 재구성하는 것은 단지 정부나 민간단체의 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길쌈이나 바느질, 자수, 매듭 등의 공예문화유산, 음식문화유산을 직접 생산하고 여성들이 행하고 즐기던 놀이와 의례, 행위예술 등을 수행하는 주체의 존재가 중요하다.

이러한 생산자들 중 일부는 무형문화유산 전승자로 지정되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으면서 그 기능과 기술, 지식을 전수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들이 생산하고 계승해온 문화유산이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 전승자 뿐 아니라 보다 많은 여성들이 기능과 지식을 교류, 공유하면서 여성문화유산의 미래 비전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여성생산자 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형의 여성문화유산은 생활공동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 계승, 확산된 것이지만, 더 이상 자연적인 공동체는 찾아볼 수 없으며, 대신 종목별로 전문화된 조직이 결성되어 있다. 자수와 복식 등의 분야, 근대의 여성문화유산인 여성국극 분야에서 조직된 단체가 그 대표적 예이다.[36] 이밖에 197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여성국극단[37]이 활동하기도

[36] 한국자수문화협의회, 궁중복식연구원, 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 등이 있다.

했고 여성농악단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

여성문화유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생산자 단체는 이처럼 몇몇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이외에 강강술래 보존회, 씻김굿보존회, 놋다리밟기보존회, 저산팔읍 길쌈놀이 보존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만, 이러한 조직에서 여성생산자들은 기술과 지식, 의미 생산의 주체라기 보다는 훈련과 동원의 대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강해(양애경·김이선·김양희 2004: 131) 진정한 의미의 생산자 단체로 보기 힘들다. 또한 자수와 복식 등의 분야에서 활동 중인 단체도 해당 분야의 기능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데 비해, 그것이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지니는 풍부한 가치, 문화유산과 함께 생활하며 웃고 울던 여성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문화유산 교류는 서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피상적, 형식적 교류에 머무를 우려가 크다.[38] 다만 최근 들어 여성국극과 여성농악단, 길쌈 두레 등의 존재와 그것이 여성들의 삶에서 지니는 의미에 대한 학술 연구가 추진되기 시작하고 있어 그러한 성과를 활용해 새로운 교류 방식을 모색한다면 보다 밀도 있는 교류의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중국

동북아 3개국 가운데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국가 중심적 사회체계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만큼, 민간단체나 학계 보다는 정부와 관련 기구가 사회 각 방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는 성별 구분 없이 혁명의 주체로서 모든 인민의 동등하고

[37] 여성국악단, 햇님국극단, 여성국극협회, 여성국악동우회, 국극사, 임춘앵국극단, 삼성국극단 등이 활동했었다.

[38] 한산모시 생산자와 일본 가라무시 생산자들의 교류는 그러한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김이선 외 2004: 120-121).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왔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공산혁명과 문화혁명 등에서 현저한 역할을 했던 여성인물과 집단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이에 더해, 최근 들어서는 정부 주도로 민간문화유산 발굴보호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별로 여성과 관련된 여서(女書)나 전지(剪紙)공예, 자수 등의 문화유산에 대한 대대적인 보존사업이 추진되고 부녀문화박물관도 설립되는 등 여성문화유산 인프라가 급속히 구축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시각이 국가가 주도하는 민족주의·중화주의 담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여성문화유산으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개방적인 자세로 동북아 교류를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국가 중심의 역사 담론을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동북아 네트워크가 발전될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표Ⅳ-10〉 여성문화유산 관련 주요기관·단체: 중국

유 형	주요 기관·단체
정 부 기 관	중국문화부 및 각 지방의 문화청, 중국민간문화유산긴급구조공정 중화전국부녀연합회, 호남성 강영현 (女書 관련), 내몽고자치구 허린걸현 (剪紙 관련), 하북성 울현 (剪紙 관련), (모계문화보호)
박물관 전시관	부녀문화박물관, 쑹칭링기념관(宋慶齡故居), 딩링(丁玲) 기념관, 추진(秋瑾) 기념광장, 여서(女書) 박물관 (건설예정), 위안부기념관 (건설예정)
학 술 단 체	양성시야(兩性視野), 천진사범대학 부녀연구중심, 중국부녀연구회 부련부녀연구소, 사회과학원 부녀연구중심,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성별법률연구중심, 북경대학 중외부녀문제연구중심, 북경대 법학원 부녀법률연구・복무중심, 화곤(華坤)여성조사중심 중국의 젠더와 발전, 중국부련노년부녀연구중심, 상해국제부녀비교연구중심 섬서성 부녀이론혼인가정연구회, 대련대학 부녀연구소 복단대학 부녀연구중심, 인민대학 성(性)사회학연구소, 절강대학 부녀연구중심, 내몽고사범대학 부녀연구중심 중산대학 부녀・성별연구중심, 광서(廣西)의대 부녀연구중심 동북사범대학 부녀연구중심, 광서부녀이론연구회 절강성 사회과학원 부녀・가정연구중심, 중앙미술학원 빗물질문화유산연구중심, 중남민족대학 여서문화연구중심 중국민간전지(剪紙)연구회, 중국여성문학위원회
여 성 단 체	농가녀(農家女)문화발전중심, 홍봉공정(紅鳳工程) 중국가정문화연구회
생산자 단 체	중국민간문예가협회, 허린걸현 전지협회 경양지역 부녀자 향주머니자수협회(慶陽巾幗香包刺繡協會)

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1) 중국 문화부(文化部)

중국 문화부에는 각종 문화 관련 활동이 있지만 여성문화만을 따로 겨냥한 것은 없고, 각종 문화생산단체들 중에서도 여성문화유산과 관련되는 것은 없다. 최근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문화부에서 주도

하여 중국문화를 소개하고 각종 정보와 소식교류의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웹사이트가 생겨나고 있다.[39]

문화부의 활동 중 여성문화유산과 관련될 수 있는 것은, 최근 각종 민간문화유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만들어진 중국민간문화유산긴급구조공정(中國民間文化遺産搶救工程)으로서, 이 프로젝트는 10년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된다. 프로젝트에서는 문자, 녹음, 촬영 등 현대기술을 활용하여 중국민간문화를 기록하고, 중국민속문화를 대표하는 실물들을 대량으로 수집·소장하며, 현(縣) 단위로 중국민속조사와 출판을 실시하고, 중국민간미술작품을 전면조사·등기·출판하며, 중국민속문화를 음악상품으로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프로젝트의 성과로는 현 단위로 출판되는 『중국민속지』 3천여 권, 대형총서 『중국민속도록』 시리즈, 『중국민속분포지도집』 시리즈 등이 있다. 중국민간문화유산긴급구조공정의 경비는 국가, 지방재정, 사회 각계의 후원 등에서 충당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현 중국정부의 민족주의 고취작업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부록1〉 참조).

또한 위에서 언급한 웹사이트(中華文化信息網)에 링크되어 있는 민간공예네트워크 사이트〈www.anumm.com〉에서는 여러 소수민족의 공예품이나 수예품, 그림, 민족 고유의 복식이나 장식품을 전시하여 팔고 있는데 상당수가 여성들의 작품이다. 이처럼 최근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각종 문화상품을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외에도 중국 문화부는 최근 내몽고자치구의 허린걸(和林格兒)현을 '중국민간 전지(剪紙)공예 예술마을'로 지정하였다(2003년 4월). 이러한 예술마을 지정은 문화부가 민간예술을 고양시키고 우수한 민간예술을 번영·발전시키고자 전국에서 펼치고 있는 작업이다. 이 지

---

[39] 中國文化網〈www.chinaculture.org〉, 中華文化信息網〈www.ccnt.com.cn〉 등이 있다.

역에서 전지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은 넓은 범위에 걸쳐있으며 숫자도 많아서, 70-80세 이상의 노인들부터 10대의 여자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지에 능하다고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중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여성문화유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관이나 단체는 없지만, 몇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와 대학이 협력하여 여성문화유산 보존, 진흥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특히 여서(女書)와 전지공예 등을 중심으로 연구회를 건립하고 해당 여성문화유산에 특화된 '마을'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을 통해 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 호남성(湖南省) 강영현(江永縣)의 중국여서문화 프로젝트

여서는 중국 호남성 강영현 일대에서 오랫동안 쓰였던 여성전용의 민간문자로서, 필법은 한자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쓰는 것이지만 특징은 글씨가 네모나지 않고, 모든 글자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한자와 달리 표음 부호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도 여서가 창조된 정확한 연대나 전파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40] 여성들은 자신이 쓰거나 보존하던 여서를 죽을 때 불태우거나 부장품으로 삼는 관습이 있어서 이는 여서가 널리 보존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여서문자는 20세기 신중국 건설과 함께 문맹퇴치운동이 전개되고 여성들이 한자를 배우게 되면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여서는 주로 여성들간의 서신 내왕, 시가 기록, 교제, 신세타령, 종교제사 등에 쓰였으며, 부채나 종이, 손수건 등 다양한 재료들에 씌어졌다. 여서 작품 중에는 한자 사본을 옮겨쓰는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여

[40] 여서의 기원과 작자 관련 여러 가지 설에 대해서는 심소희(2003) 참조.

성이 주역인 한자운문 사본-《梁山伯祝英台》, 《宿氏女》, 《賣花女》 등-을 이용하여 여서를 전수하는 과정은 일종의 문화교육 과정이었다(郝時遠 2000). 또한 심소희(2003)에 따르면, 강영현 지역 요족(瑤族)의 독특한 여성문화, 즉 함께 모여 베짜고 수놓고 바느질하면서 교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몇 가지 문화들이 여서 탄생에 기여하였다: 첫째, 강영현의 여성들은 의자매 맺기를 좋아하여, 결연을 맺으면 매 절기마다 여서로 축원 내용을 각종 재료에 써서 주고받았다, 둘째, 매년 음력 4월 8일을 여성기념일로 정하여 함께 여서를 읽고 노래하였다, 셋째, 여자들이 결혼 전 통곡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때 울며 부르는 노래도 여서로 씌어졌다. 또한 여성의 생활·생리·심리 등 여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특히 많은 것도 여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서에 대한 기록이 문자 형식으로 처음 나온 것은 1931년 7월 『湖南 各縣 調查筆記』였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하였다. 1979년 강영현 문화관에서 일하는 저우숴이(周碩沂)가 편집한 『江永縣文物志』에서 여서가 소개되면서 비로소 세상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부터 좀더 본격적으로 국내외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여서 전승인으로 손꼽히는 사람으로는 가오인셴(高銀仙, 1902-1990), 이녠화(義年華, 1907-1991), 양환이(陽煥宜, 1909-2004)가 있고, 그 중 최후의 전승인인 양환이가 2004년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세간에 여서의 맥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크게 야기하며 중국 내 많은 매체에 보도되었고, 2004년에는 『양환이 여서 작품집』이 발간되기도 하였다.

최근 중국 내에서는 여서의 맥이 끊기고 작품들도 소실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점점 팽배해져서 그 맥을 잇기 위한 노력과 계획이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중남민족대학(中南民族大學)에서는 2001년 5월 중국여서문화 구조

프로젝트 좌담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중국여서문화 구조프로젝트' 발의를 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내용으로는, 『중국여서문화연구총서』 출간, 여서문화박물관 건립, 호남성 강영현을 문화

〈사진Ⅳ-1〉
최후의 여서전승인 양환이

〈사진Ⅳ-2〉
가오인셴이 무한대학 교수에게 보낸 편지. 여서와 한자를 대비해 놓았음

〈사진Ⅳ-3〉
목간에 새겨진 여서

관광지역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중국여서문화촌'을 건립하기, 여서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이 계획되었다. 최근 2004년 4월에는 청화대학(淸華大學)에서 [중국여서전(展)]이, 그리고 2005년 3월에는 무한대학(武漢大學)에서 이 대학 여서연구중심과 중국민족민간문화보호프로젝트국가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중국여서예술전]과 학술토론회가 열렸으며, 국가문화부에서도 이러한 행사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TV 등 각종 매체에서도 크게 다루면서 일반인들에게도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강영현 정부와 중남민족대학은 공동으로 '전국여서연구회', '중국여서문화연구회', '중국여서문화연구총서 편집위원회' 등 전문적인 연구기구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처음으로 최초의 『여서자전(女書字典)』(岳麓書社)이 발간되었는데 여기에는 여서가 1,800여자 수록되었다.

특히 강영현이 앞장서서 정부 차원에서 여서를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인데, 여서 보존을 위해 강영현에서는 양

환이, 허얜신(何艷新), 허징화(何淨華), 후메이위에(胡美月), 이윈쥐안(義運娟) 5명에게 '여서 전승인' 호칭을 부여하였고 그 중 가오인셴의 손녀 후메이위에는 이미 100여 명의 제자를 배출해 내었다. 강영현은 세계문화유산 준비작업과정에서 『구전무형문화유산 소개총서: 여서편』이라는 책을 써서 출판될 예정이다.

여서의 보존·개발 노력에서는 여서의 본고장인 강영현 정부가 가장 앞장서고 있어서, 호남성 문화청과 호남성 부련과 함께 "강영여서생태박물관"을 건설하여 강영현을 여서문화생태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중이며, 1991년에는 강영현에서 열린 전국여서학술고찰토론회의 성과물로 여서 관련 각종 논문과 저작들이 나왔다: 『여서: 놀라운 발견』(趙麗明·宮哲兵, 1990), 『강영 '여서'의 수수께끼』(宮哲兵, 1991), 『중국여서집성(集成)』(謝志民, 1992) 등.

〈사진Ⅳ-4〉
여서학당 앞에 앉아있는 현지여성

〈사진Ⅳ-5〉
호남성 강영현 여서학당

특히 여서가 가장 성행했던 곳이요 저명한 여서 전승인 가오인셴의 고향인 보미촌(普美村)은 일명 '여서의 섬(女書島)'이라고도 불리우며, 현 정부는 2001년 여기에 여서를 전수하는 조그만 학당을 만들어 현재 후메이위에가 주말마다 여기에서 여서를 가르치는데, 1년을 한 학기로 하고 학비를 받지 않으며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와서 배운다.

또한 현 정부는 2002년 보미촌에 약 150만 위안(한국돈 약 2억원)을 투자하여 '보미여서문화촌'을 만들고 여서공예품가공공장을 세우

는 등 여서문화의 보존과 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일본에도 중국여문자연구회(中國女文字研究會)가 있어서 2004년에는 중국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와 공동으로 여서 관련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中國女文字研究』(明治書院, 2002)라는 책도 출판되었다. 여서 연구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유사한 문자현상들과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즉 일본의 '히라가나(平假名)'는 전통 한자에 비해 좀더 여성들이 많이 썼으며, 한국의 '언문(諺文)' 역시 여성이 발명한 것은 아니지만 여성이 주로 사용하면서 유지되고 발전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인터넷상에도 여서 관련 연구와 활동 소식을 모아놓은 웹사이트[41]가 있어서 관련자들 사이의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일반인의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여서는 1980년대 이후로 인류학, 민족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주목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유일의 여성문자라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소실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최근 강영현을 중심으로 활발한 보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민간유산구조 차원에서 여서 보존에 주목하고 있다.

▪ 전지(剪紙)공예유산 프로젝트

중국정부는 2003년 처음으로 민간전지예술에 대해 전국적 조사를 시작하였다. 약 3년 동안 전지문화유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실시될 이 조사를 통해 전지예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으로서, 이는 중국 민간문화유산 긴급구조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번 작업은 중국민간문예가협회에서 발의한 것으로서, 중국의 각종 민간문화예술에 대해 전면적 조사와 등록, 분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민간문예가협회

41 女書網〈http://www.hy-ns.com〉, 中國女書〈http://166.111.4.131/nushu/index.htm〉 등이 있다.

에서는 하북성(河北省) 울현(蔚縣)에 '중국전지예술마을'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중국전지예술연구기지'로 선정하였다. 현재 울현에는 전지전문마을이 25곳, 전지에 종사하는 민간예술인[42]이 28,000여 명 있다.

중앙미술학원 무형문화유산연구중심에서는 2002년 [중국 고등교육기관 제1회 무형문화유산 교육강의 토론회] 개최 후 여러 대학들과 연합으로 매년 1월 1일을 전국 '청년문화유산의 날'로 정하고 청년들이 국가문화유산 전승보호에 앞장서게 하기로 결의하였고, 지난 2004년 초 북경대학에서 제2차 '청년문화유산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전국 학생들이 전지예술 문화유산등록 지지서명에 참가하였다. 또한 중앙미술학원 무형문화유산연구중심의 주도로 중국정부 차원에서 중국민간전지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록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미 2003년 유네스코 예비명단에 들어갔다는 신문보도가 나왔다.

〈사진Ⅳ-6〉 대표적 전지예술가 쿠슈란의 작품

〈사진Ⅳ-7〉 전지예술가 가오진아이의 작업 모습

[42] 대표적인 전지예술가로는 쿠슈란(庫淑蘭, 1920-)과 가오진아이(高金愛, 1922-)가 있다. 쿠슈란의 전지작품은 중국 각종 민간예술전시회에서 대상, 금상 등을 탄 경력이 있고, 대표작품들은 프랑스, 미국, 독일, 동남아 등 여러 국가에 소장되어 있으며, 1986년 유네스코에 의해 '민간예술대사(大師)'라는 호칭을 얻었다. 가오진아이 역시 1992년 유네스코에 의해 '민간예술대사'로 지정된 중국의 대표적 민간예술가이다.

이와 함께 전지전문마을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내몽고자치구의 허린걸(和林格兒)현에서는 전지예술을 발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1998년 허린걸 전지협회(和林格兒 剪紙協會)라는 자치구 최초의 현급 전지조직을 만들었다. 최근 몇 년동안 이 전지협회는 70여 명의 민간전지공예가 노인과 신인들을 발굴·배양해 냈으며, 거의 소실될 뻔한 전지예술작품 6천여 건을 발굴해 냈고, 신인 발굴을 위해 전지예술을 현의 직업중학교 과정에 넣어 전통예술에 새로운 발전공간을 마련하였다.

허린걸현에서 만든 3천여 전지 작품들은 최근 몇 년동안 전국 각지의 미술전에서 상을 탔으며 1,600여 작품은 각종 잡지에 실렸다. 허린걸현 전지협회장 두안젠쥔(段建珺)의 작품은 건국50주년 전국전지전(展)에서 금상을 탔으며 101세의 장화뉘(張花女)의 작품은 여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최근 시장경제의 바람 속에서 허린걸 전지협회는 전지를 산업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외국에 진출하였다.

▪ 모계사회문화 보호프로젝트

모계사회의 풍습이 지금도 남아있는 마사족(摩梭族)이 사는 운남성(云南省) 영랑(寧蒗) 이족(彝族)자치현 근처의 리거촌(里格村) 후구호(瀘沽湖) 지역에서는 이 곳의 생태환경과 독특한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2004년 말 시(市) 주도로 2년에 걸친 공정이 시작되었다. 공정계획에 따라 그동안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살고 있던 주민들의 이주가 2005년부터 시작되었고, 이 지역은 민족문화생태시범촌의 기능을 갖춘 마을로 새로 건설될 계획이다. 새로 지어질 건물들은 마사족(摩梭族) 고유의 건축 및 생활방식과 촌락형태를 살려 지어질 것이며, 특히 모계사회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할머니 방(祖母房)'을 살리고 철문 사용은 금지되며 지붕은 작은 청기와를 사용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문화생태보호지역으로 유지될 것이다.

▪ 향주머니 자수 공예품 개발

이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들이 생산, 계승해온 자수유산을 수입원으로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예가 감숙성(甘肅省) 경양시(慶陽市)이다. 경양시는 중국민속학회에서 명명한 향주머니(香包)자수의 고향이다. 기록에 따르면 중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향주머니는 호남성 장사(長沙)의 마왕퇴한묘(馬王堆漢墓)에서 나온 것으로서 약 2천년 전의 것이고, 그 다음이 감숙성 경양시의 화지쌍탑사(華池雙塔寺)에서 출토된 것으로 약 천년 전의 것이기 때문에 경양지역 사람들이 '천 살 먹은 향주머니'라고 불렀다 한다. 경양지역에서 향주머니는 절기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촌민들은 단오절이면 일찍 일어나서 관습에 따라 종자(粽子)를 먹고 웅황주(雄黃酒)를 마시며 아이들은 가슴에 각종 동식물 모양의 향주머니를, 등에는 청개구리 모양의 향주머니를 달고 호랑이모양의 자수신발을 신고 다닌다. 이처럼 경양 향주머니는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민간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경양시와 서봉구(西峰區) 정부는 향주머니를 경양의 문화특산품으로 발전시키고 시장 개발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04년 3월에는 부녀자 향주머니 자수협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협회는 경양지역의 민간예술대사(大師)와 민속전문가, 향주머니자수 공예가 등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로서, 전체 회원이 108명이다. 현재 협회센터 전시장에는 각종 민속특산품 2,100여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가치는 69,000위안(한국돈 약 800만원)에 이른다. 또한 협회는 국내 유일의 향주머니전문 국제웹사이트를 만들어 선전과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9,000여건의 향주머니 민속작품이 팔려 10만여 위안(한국돈 약 1,300만원)의 수익을 냈다. 2002년에는 서봉구의 향주머니 생산량이 14만건 이상, 2003년에는 37만건 이상이어서, 향주머니 수익만 528만 위안(한국돈 약 7억원)에 달했다.

(3) 중화전국부녀연합회(中華全國婦女聯合會, 부련)[43]

부련은 중국의 대표적인 여성조직으로서 국내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민간조직(NGO)의 자격으로 대외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부련은 중앙정부기구의 '기타 국가기구 및 사회단체'에 속해 있고 정부에서 조직한 것이므로, 비록 정확한 의미에서의 정부기관이 아니고 사회단체(여성단체)이지만 정부 관련 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부련의 성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부록2〉참조).

부련에서는 『중국여성운동사』를 발간하는 등 역사 속 여성의 위상을 발굴하는데 관심을 가져 왔으나, 그 시각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련 사이트〈www.women.org.cn〉에서 소개하는 여성인물의 면모를 보면, 여자영웅열사, 여장군, 여관료, 여자사회활동가, 부녀공작자(婦女工作者), 중국 10대 여걸, 모범노동자 등의 하위범주로 분류되어 있다. 여자영웅열사는 물론 공산혁명에 참여했다가 희생된 사람들이고, 부녀공작자 역시 전국인민대표대회 당위원회 부위원장, 전국정치협상회의 부주석, 전국부련 부주석 등 모두 주요 정치활동에 참여했던 사람이거나 전국부련의 고위층에 국한되어 있다. 제1회 중국 10대 여걸로 선정된 사람들은 공군, 대만 천문대 대장, 북경 시정설계연구원 엔지니어, 십몇 년동안 승객들을 가족처럼 돌보았다는 흑룡강성 하얼빈 기차역 승무원 등 각 방면에서 '모범적인' 활동으로 잘 알려진 여성들이다.

위의 범주 중에서 문화와 조금이라도 관련되는 것은 여자사회활동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 포함된 사람들도 중국작가협회 당위원회 서기,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집행부주석,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부회장, 중국민주동맹 중앙위원회 주석 등으로서, 앞의 두 가지 외에

---

[43] 부련은 1949년 3월에 성립되었고 본래 명칭은 '중화전국민주부녀연합'이었다가 1957년 '중화인민공화국 부녀연합회'로, 1978년 '중화전국부녀연합회'로 개명하였다.

는 정치활동가들임을 알 수 있다.

부련은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중국의 여성 관련 민간조직 상당수는 부련에 소속되어 있거나 부련과의 관계 속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어서 사실상 중국의 여성 관련 단체에서 부련이 지니는 영향력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활동 중 문화와 관련되는 활동으로는 1996년부터 중국정부의 사회주의정신문명건설운동에 발맞추어 벌이는 문명가정 창건활동이 있는데, 다양한 가정문화활동을 통해 '문명가정'을 선정하고 각종 경연대회를 벌이며 건전한 가정문화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예로 [개혁과 우리 가정]이라는 주제의 토론회, 부부와 고부지간이 나와서 서로 칭찬해주기 대회, 근면검소한 가정 박람회, 가정윤리도덕지식 경연대회 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물, 화장실, 거주환경, 쓰레기문제 등 환경개선활동을 크게 벌이기도 한다. 이처럼 부련이 펼치는 활동은 철저하게 정부의 방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볼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문맹퇴치활동,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 및 기술훈련 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나. 박물관·전시관

(1) 부녀문화박물관(婦女文化博物館)

중국 최초의 여성문화박물관을 표방하는 섬서사범대학(陝西師範大學) 부녀문화박물관은, 1997년 저명한 여성학자 리샤오장(李小江)교수가 섬서사범대학 여성연구중심에 초빙되어 온 기간동안 자신의 소장품 4백여 점을 이 곳 여성연구중심에 관리를 맡겼다가 초빙기간이 끝나면서 섬서사범대학에 기증한 데서 시작되어, 여러 학자들이 여성문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준비팀을 꾸려 전국 각지에서 소장품을 모아 만들었으며, 정식 건물 건립을 위해 현재 기금과 소장품을 계속 모집중이다〈http://www.snnu.edu.cn/wcm〉. 박물관의 소장품은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되어 있다: ▷역사 속의 여성 ▷여서 ▷출산문

화 ▷여성문화유산 ▷직물의 역사.

여서 전시품으로는 부채나 목간, 손수건 등 다양한 소재에 씌어져 있는 여서작품들이 있으며, 직물의 역사 관련 소장품으로는 각 소수민족들 고유의 직물과 그 의미가 전시되고, 출산문화와 관련해서는 여러 지역의 민간풍속으로 전해 내려오는 수태와 출산 관련 상징물이나 인형, 민간 낙태약 등이 전시된다. 여성문화유산(女紅)으로는 유명한 전지예술가인 쿠슈란(庫淑蘭)의 전성기 전지작품들을 현재 소장하고 있다.

여성문화박물관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역사 속의 여성'이라는 범주에 어떤 여성들이 포함되고 있는지 하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전족폐지운동, 항일전쟁, 문화대혁명시기 등 중국역사상 중요한 시기마다 여성이 어떻게 관여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문화대혁명 시기 하남성(河南省) 휘현(輝縣)의 도로수리 일을 맡았던 농민들 중 등장한 젊은 여성농민으로만 구성된 '돌 여성부대(石姑娘隊)'는 남녀평등을 주장했던 이들로서, 아래 왼쪽 사진은 그들이 직접 만든 깃발과 도로수리시 사용하던 도구들이다. 또한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혁명을 노래하는 각종 극들이 만들어졌는데, 아래 오른쪽 사진의 윗부분에 있는 '홍등기(紅燈記)'에서 아버지는 결혼하지도 아이를 낳지도 않으며 심지어 할머니의 친자식도 아니지만, 이렇게 서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혁명에 헌신하는 진정한 '혁명가정'을 이룬다는 스토리이며, 오른쪽 사진 아랫부분의 '붉은 여군(紅色娘子軍)'은 여전사를 노래한 것이지만 결국 남성의 지도를 받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사진 가운데 있는 것이 남성주인공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성문화박물관에 전시된 '역사 속의 여성' 역시 철저하게 공산혁명사와의 연관 속에서만 서술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Ⅳ-8〉
'石姑娘隊'깃발과 사용도구

〈사진Ⅳ-9〉
공산혁명과 여성

(2) 쑹칭링 기념관 (宋慶齡故居, 北京 后海北沿 46號)

현재 쑹칭링 기념관으로 되어있는 곳은 본래 청조 마지막 황제인 푸이(溥儀)의 부친인 순친왕(醇親王)의 저택으로서, 신중국 성립 이후 정부가 여기를 쑹칭링의 집으로 하려 했으나 쑹칭링은 국가 일을 우선시하며 거절하였고, 이후 저우언라이 총리의 주도로 재건축하였다. 쑹칭링은 1963년 여기에 와서 일하며 생활하였고, 1981년 5월 29일 별세하였다. 그 해에 정부는 이 곳을 '중화인민공화국 명예주석 쑹칭링 동지 옛집(故居)'으로 명하고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요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삼았으며 이듬해 개방하였고, 탄생 100주년이 되는 1992년 이 곳에 정자(瑰寶亭)를 지어 기념하였다.

〈사진Ⅳ-10〉 쑹칭링기념관 입구

〈사진Ⅳ-11〉
쑹칭링기념관 입구에 있는 플래카드

이 쑹칭링 기념관은 중국 근현대사에서 탁월하고 훌륭한 지도적 정치가이자 여성운동가였던 쑹칭링이 지니는 여성인물로서의 가치보다는 철저하게 쑨원(孫文, 손중산)의 부인으로서의 쑹칭링, 그리고 국가와 공산당에 대한 애국충정을 기리는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현대 중국에서 여성인물이나 여성문화유산 관련 기념·보호활동이 가지는 일정한 한계를 보여준다.

위 사진에서 보듯 기념관 입구에는 크게 "쑹칭링 정신을 발전시켜 공산당의 선진성을 유지하자"고 쓴 플래카드가 걸려있으며, 기념관 안의 전시물은 모두 쑨원의 혁명정신을 쑹칭링이 이어받아 활동하였다는 점, 그리고 항일운동과 공산정권의 수립에 쑹칭링이 헌신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물론 쑹칭링은 남편 쑨원의 사망 후 쑨원의 뜻을 받들어 혁명활동에 계속 투신하며 평생을 산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혁명에 대한 본인의 열정과 의지에서 나온 것이었다. 쑹칭링은 어린 시절부터 전족을 하지 않고 일찍이 미국에 유학하여 서구식 현대교육을 받았고, 유학시절에도 학교잡지 『The Wesleyan』에 쓴 "조국은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제목의 글에서 청조의 정치적 부패를 바로잡고 전족반대, 사회개혁 등 변혁에 힘쓰는 것이 유학생이 할 일이라고 주장(이양자 1998 참조)하는 등 뚜렷한 사회의식을 가진 여성이었다. 이러한 점은 기념관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으며, 남편의 뜻을 받들었던, 그리고 국가와 공산혁명에 헌신한 여성으로서만 쑹칭링은 기념되고 있는 것이다.

〈사진Ⅳ-12〉
항일운동에 헌신하였음을
기념하는 사진들

〈사진Ⅳ-13〉
남편 쑨원의 뜻을 받들어
혁명활동한 것을 기념하는 사진들

〈사진Ⅳ-14〉 공산정권 수립을 맞이하는 사진들

〈사진Ⅳ-15〉남편을 그리워하여 비둘기를 좋아했다는 사진

〈사진Ⅳ-16〉쑹칭링이 평생 간직했던, 남편이 쓰던 욕실 매트

위의 마지막 두 사진은 이러한 한계적 요인을 명확히 보여주는데, 왼쪽 사진은 쑹칭링이 비둘기를 좋아했는데 이는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남편 쑨원이 비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설명과 함께 기념관 바깥 비둘기장에 진열되어 있다. 또한 기념관 안에는 쑹칭링이 평생 간직했던 남편 쑨원의 유품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위 오른쪽 사진에 나오는 욕실 바닥의 매트까지도 전시되어 있다. 이러한 기념관의 배치구도 속에서 쑹칭링은 탁월한 사회의식과 혁명정신을 지녔던 정치가이자 여성운동가로서가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 쑨원의 부인이자 공산혁명에 헌신한 사람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다.

(3) 기타

이외에도 딩링과 추진 등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는 여성인물을 기념하는 전시관이 설립되어 있다. 이 가운데 딩링기념관은, 공산당의 토지개혁을 그려내어 중국인 최초로 스탈린문학상까지 받은 유명한 작품인 『태양은 상간강을 비추고』의 배경지역인 하북성(河北省) 탁녹현(涿鹿縣)에 있는데, 스탈린문학상 상금인 5천 위안(한국돈 약 6만원)으로 지은 중국 최초의 농민문화관 건물이다. 2004년 딩링

〈사진Ⅳ-17〉
딩링기념관 전경

〈사진Ⅳ-18〉 추진생가

〈사진Ⅳ-19〉 추진 기념광장

탄생 100주년을 맞아 30만여 위안(한국돈 약 4,500만원)을 들여 새 건물을 지었다. 그 외에도 딩링의 고향 호남성 임풍현(臨澧縣)에는 딩링대극장, 딩링박물관이 있으며, 2004년에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활동과 국제 학술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추진(秋瑾)의 경우 정식 기념관이나 전시관은 없지만 인터넷상에 '추진기념관' 사이트가 있는데〈http://qiujin.chinaspirit.net.cn〉, 이 사이트가 소속되어 있는 민족혼사이트〈http://mzh.china5000.cn〉는 혁명영웅들을 기념하고자 공산주의청년단과 중앙당사(黨史)연구실, 국가당안국(國家檔案局)에서 만든 것이다. 이 외에도 추진의 고향 절강성 소흥시(紹興市)에는 추진기념광장과 추진 생가가 있다.

이외에 중국 최초의 군대위안부기념관이 상해시에 건설될 예정이다. 이는 상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건설예정지인 지역(崇明廟鎭)은 최근 세상을 떠난 상해 출신 위안부 주차오메이(朱巧妹) 여사가 살았던 곳이다.

다. 학술단체

여성사에 대한 연구는 부련과 연계되어 있는 중국부녀연구회와 몇몇 대학의 여성연구중심을 통해 이루고지고 있는데, 주로 중국여성사를 재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과 일본 등지의 대학이나 학회와 국

제교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요 단체를 보면, 우선 중국부녀연구회(中國婦女研究會)는 부련과 연계되어 있는 학술단체로서 '공산당의 기본노선을 따르고 실사구시적인 과학적 태도를 견지하며 학술의 민주화를 고양시키고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여 부녀문제를 연구한다'는 취지에서 1999년 12월 만들어졌다. 설립 이후 연구회는 여성학 연구 및 정부 여성정책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국여성사 연구를 통합하고 있다. 특히 부녀연구회에서는 쑹칭링 등 국가 발전과정에서 활약한 여성인물들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고 그 성과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에서 여성사 연구가 가장 활발한 곳은 천진사범대학 부녀연구중심이다. 천진사범대학 부녀연구중심은 중국 고등교육기관 중 최초로 성립된 여성연구센터 중 하나로 1980년대부터 일부 교수들에서 시작하여 연구와 강의가 이루어졌고 1993년 정식으로 센터가 세워지면서 해외중화부녀학회(海外中華婦女學會)와 함께 '중국여성과 발전' 심포지움을 개최하였고 1994년부터 농촌여성 관련 연구와 활동을 해왔다. 약 20명의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세미나와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부녀연구중심에서는 여성학 전반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성사 분야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여성사학과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여성과 발전: 지위, 건강, 취업』, 『사회적 젠더의 도입: 역사학 발전의 새로운 추세』, 『'여성' 관념의 변화』, 『국제여성운동』, 『중국역사 속의 여성과 젠더』 등의 저작들을 성과물로 내고 있다. 1987년 여성학 과정을 개설한 후 계속해서 여성사 전공 대학원생을 길러내고 있으며, 2000년부터 10여 개 대학의 학자들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여성학과 설립 촉진과 후원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부녀연구중심 주임을 맡고 있는 두팡친(杜芳琴)교수는 중국 여성사연구를 주도하면서 여성사 관련 해외학술교류를 가장 활발하

게 진행하고 있다. 1996년에는 일본중앙대학에서 열린 [공통성과 다양성: 아시아 여성사의 검토] 국제심포지움,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가 주관한 [아시아가부장제와 페미니즘 의식] 국제심포지움 등에 참여하여 중국 여성사 연구 성과를 동북아 연구자들과 교류하였으며, 2002년에는 한국중국사학회에서 개최한 [여성의 눈으로 본 중국역사] 국제심포지움에도 참가한 바 있다.

이외에, 사회과학원 부녀연구중심에서도 5·4운동 등 주요 역사적 사건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여성의 생활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북경대학 중외부녀문제연구중심 등에서도 중국여성사를 연구주제에 통합하여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연구과제로 '중국여성민간예술연구와 전시' 과제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정부와 대학 부설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여성사 연구가 진행되면서 여성역사인물, 특히 중국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현저한 역할을 했던 인물과 집단들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이들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기관은 중국 정부의 공식 담론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있는 만큼, 연구 경향과 관점이 제한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여성사에 대해서도 보다 자유로운 해석을 추구하는 학문적 움직임이 발견된다. 중국의 여성 관련 학술단체 중 가장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학자들의 모임으로 여겨지는 곳은 최근에 생긴 양성시야(兩性視野)로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단체라기보다 일종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체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3년 전 만든 홈페이지〈www.alleyeshot.com〉에서 다양한 학자들이 여성 관련 연구성과와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페미니즘(中國女性主義)』이라는 정기 학술지 발간, 세 번째는 중국페미니즘 학술문화살롱으로서, 매월 첫째 일요일 2-4시에 모여 매번 한 권의 페미니즘 관련 저작을 놓고 집중적으

로 토론하면서 학술문화교류활동을 하는 것이다.

양성시야에서는 외국 페미니즘 이론에 대한 연구와 토론, 중국의 여성 관련 현실과 문학·매체에 대한 분석, 교육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점 토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류를 통해, 중국정부나 부련의 영향력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여성단체

정부 중심적 사회체계로 특징지워지는 중국의 비정부단체는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민간여성단체라기보다는 주로 정부의 방침을 실제 적용하는 기관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들에서는 한국 여성단체처럼 역사 속 여성의 위상을 재발굴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여성문화유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여성들, 특히 빈곤한 농촌여성과 소수민족여성의 수입원으로서 전통자수공예를 개발하거나 건전가정문화확산 차원에서 '전통' 가정문화를 되살리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점은 음력 3월 3일 '여성의 날'을 부활시키려는 운동이 상해사범대학 여자문화학원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견 여성들이 행해온 세시풍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움직임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한국의 단오절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록을 견제하기 위한 민족주의 문화유산 담론의 연장선 위에서 이해할 수 있다.

(1) 농가녀문화발전중심(農家女文化發展中心)

농가녀문화발전중심은 농촌여성의 발전 촉진을 목표로 하는 비정부기구로서, 1993년 창간된 『농가녀 백사통(百事通)』(지금의 『農家女』) 잡지사가 전신이었다. 여기에서 점점 발전하여 1996년 도시에 온 농

촌여공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최초 공익조직인 일하는 여성의 집(打工妹之家)을 만들고 1998년에는 농촌여성에게 전문적으로 재교육을 시키는 농가녀 실용기능훈련학교를 만든 후 2001년 전체를 합쳐 농가녀문화발전중심을 만들었다.

주요 활동분야는, 농촌여성의 공동체 참여능력 향상, 농촌여성의 참정능력·기회 제고, 농촌여성의 자살방지체제 건립, 농촌여성의 생식(生殖)건강문제, 빈곤농촌여성의 삶의 질 개선, 10대 후반의 학업포기 여성들에게 재교육기회 제공, 여성 유동인구(流動人口)의 권리와 이익 보호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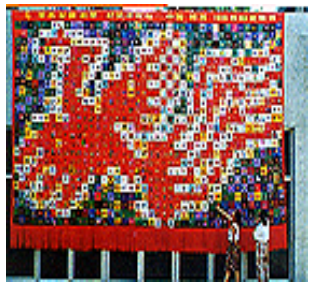
농가녀문화발전에서는 농가녀 실용기능훈련학교를 통해 다양한 기능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여 취업으로 연결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가녀 특산품센터를 운영하여 농촌 여성들이 만든 각종 특산품을 가지고 바자회를 열어 기금마련을 함으로써 농촌여성들의 문맹퇴치활동을 벌인다. 이러한 바자회에 쓰이는 특산품은 소수민족 중 하나인 묘족(苗族) 특색의 자수품이나 납염색(蜡染) 제품[44] 등 여성들이 생산해온 직조와 전통자수가 주류를 이룬다.

(2) 홍봉공정(紅鳳工程)

홍봉공정은 중국 최초로 빈곤여대생을 전문적으로 돕는 사회공익 프로젝트로서, 섬서성 부련 소속기구이다. 기금은 섬서성의 농촌여성 천여 명이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를 위해 만든 '붉은 봉황 천개의 꽃휘장'을 경매하여 모은 데서 출발하였다. 높이 5미터, 넓이 7미터, 총 1,008개의 자수조각을 이어붙인 이 휘장의 도안은 날개를 펴고 나는 붉은 봉황의 모습이어서 '붉은 봉황 천개의 꽃휘장(紅鳳千花帳)'이라 이름붙이게 되었고, 세계여성대회에서 전시한 후 경매에서 팔렸

[44] 오랜 전통을 지닌 방직염색공예로서 녹인 황랍을 천의 무늬 위에 붓고 염색 후 제거하여 그 부분만 백색으로 남기는 것이며, 다양한 제품에 쓰이고 있다.

〈사진Ⅳ-20〉
농촌여성들이 만든 붉은 봉황 휘장



〈사진Ⅳ-21〉
붉은 봉황 휘장의 부분 그림

다. 1996년 3월 8일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31만위안(한국돈 약 4천만원)의 경매금이 최초로 여성의 노동에서 나와서 여성발전에 쓰이는 민간기금이 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시작된 이후 각계의 지지와 후원을 받아왔다. 2002년에는 20여 국제기구와 교육기금과 기업, 190여 명의 외국인과 해외화교, 홍콩동포 등의 지지를 받게 되었고, 이미 기금이자와 사회후원을 통해 212만위안(한국돈 약 3억원)을 7차에 걸쳐 700여 명의 빈곤 여대생에게 후원하였으며 그 중 260여 명이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였다.

이 휘장을 만들어낸 여성들이 사는 섬서성에서 민간자수공예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여아들은 10여 세부터 자수를 배우기 시작하여 결혼 후 아이에게는 자수로 만든 옷과 모자를, 노인에게는 자수로 만든 양말을 선물하는 등 자수가 보편화되어 있다. 봉황휘장의 도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그 안에는 고대의 각종 토템, 각종 현대 민속풍습, 길상(吉祥)을 기원하는 각종 모양이 그려져 있으며 자수 역시 각종 방법들이 총동원되었다.

홍봉공정 후원대상자의 조건은, 섬서성에 적을 둔 여대생이어야 하고, 가정의 연간 수입이 국가에서 공포한 빈곤선 이하여야 하며, 본인이 이 프로젝트의 도움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5년 내에 다른 빈곤 여대생 1명을 후원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의 여대생에게 매년 1,000

위안(한국돈 약 13만원)씩 후원한다.

(3) 중국가정문화연구회(中國家庭文化研究會)

중국가정문화연구회는 우수한 가정문화의 전통을 되살리고 건강한 생활방식을 장려하며 가정문화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1993년 만들어진 전국적 단체로서 전국부련에 소속되어 있다. 주요 활동은 가정문화 관련 이론연구와 주제별 조사, 국제학술교류, 가정의 미덕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제 방문해 보니 연구보다는 건전한 가정문화 촉진을 위한 실질적 활동 위주의 단체였다. 특히 가장 주력하는 활동 중 하나는 전국부련과 함께 여는 [중국가정문화예술제]로서, 여기에서는 수공예시합, 노래 등의 문예시합, 농촌의 요리시합(주방의 예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한 가정문화를 장려하며 여성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을 전시판매하기도 한다. 방문 인터뷰시 국제민간교류에 대해 묻자, 각국의 가정문화에 대한 상호이해와 교류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4) '여성의 날' 부활운동

음력 3월 3일은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의 날이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상해사범대학 여자문화학원에서는 학원 5주년행사와 '3월 3일 여성의 날' 행사를 함께 축하하는 활동을 벌이면서, 앞으로 매년 음력 3월 3일을 이 학원의 정식 기념일로 정하겠다고 2005년 4월 11일 발표하였다. 학원 측에 따르면, 음력 3월 3일은 서주시대부터 여성의 색채가 물씬한 날이었으며 이후 송대 명리학의 억압하에서 점점 소실되었으나 일본과 한국은 매년 이 날 여전히 기념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2004년부터 시작되는 '단오절 지키기' 움직임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한국이 단오절을 유네스코에 무형유산으로 등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은 중국 전통문화를 발굴·복원해내는

작업의 시급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음력 3월 3일 '여성의 날' 역시 일본은 매년 '여제(女祭)'라 하여 기념활동을 벌이고 이미 국가 차원에서 무형문화재로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여성의 날'을 또 먼저 무형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이다. 상해사범대학 여자문화학원 측은, 이후 이 활동을 기점으로 하여 '여성 회사', '여성학'을 계속 만들면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진정한 상해 신여성의 모습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같은 시기 상해사범대학 여자문화학원은 '공공관계(公共關係)'전공 본과생 지원자격에 입학성적 외에 키가 162센치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두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성문제에 대한 학교측 의식수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자체보다는 민족주의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편적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서술에서 우리는, 중국에서 최근 활발하게 벌어지는 민간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각종 활동이 상당 부분 민족주의와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동북아 교류에 있어서 일정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 일본

일본에서는 아직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구체적 개념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여성문화유산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1950년대부터 특정한 여성역사인물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문화유산을 가꾸려는 시도가 생겨난 것을 비롯해 1970년대부터는 '여성사 연구붐'이라고 할 정도로(김이선 외 2004:22) 역사 속 여성의 위상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 역사주체로서의 여성의 위상과 여성의 역사를 재해석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상징을 발굴하고 가치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여성사 연구와

여성운동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진보적 성향의 여성운동가들을 중심으로 동북아 역사 속에서 여성들이 당했던 고통을 함께 풀어가면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려는 실천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사 발굴에 관심을 가지면서 향후 새로운 방향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Ⅳ-11〉 여성문화유산 관련 주요기관·단체: 일본

유형	주요 기관·단체
정부기관	미나토구 남녀평등참여센타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박물관·전시관	• 아시아 여성자료센터 • 오사카 인권박물관 • 엑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 미기시 세츠코 (三岸節子) 기념미술관 • 이치요 기념관 (一葉記念館) • 아오우메 (青梅) 키모노 박물관 • 키모노 에카키관 (着物繪卷舘) • 니키(ニキ) 미술관 • 아키바(穐葉) 안틱 주얼리 미술관
학술단체	• 젠더학회 • 총합여성사연구회 • 쇼오와(昭和) 여자대학여성문화연구소 • 교토 타치바나(橘)대학 여성역사문화연구소 • 오차노미즈(お茶の水) 여자대학 젠더연구센타 • 시로니시(城西) 국제대학젠더여성학연구소 • 일본여성학회 • 일본여성학 연구회 • 젠더 사학회
여성단체	• 이치가와 후사에 (市川房枝) 기념회 • 토치기 (栃木) 현립미술관 • 시세이도 (資生堂) 기업자료관 • 사이쿠 (齊宮) 역사박물관 • 여성과 일 미래관 • 여성의 넷트웍 센타
생산자단체	• 일본 전통 공예사회 '여성부회' • 산노카이 (讃の會) • 와쿠라시 쿠라브 (和くらし・クラブ) • 타카다 장속 연구소 • 유직(有職)문화연구소 • 타카라즈카 (宝塚) 극단 • (사) 카미카타 라쿠고(上方 落語協會) 협회 '여성부회'

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일본 정부에서는 2001년 설치된 내각부 남녀공동참획국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여성정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남녀공동참획국에서는 정책 방침결정 과정에의 여성 참여 확대, 남녀공동참여 시점에 입각하여 사회제도와 관행에 대한 의식의 개혁, 고용 등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의 확보, 활력 있는 농어촌 실현을 향한 남녀공동참여의 확립, 남녀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지원, 고령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조건의 정비,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근절, 여성에 대한 건강지원, 미디어에서의 남녀 공동 참여 추진, 남녀공동 참여를 추진하고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실시, 지구사회의 평등한 개발과 평화에의 공헌, 새로운 조직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의 남녀공동 참여를 촉구 등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고 있으나, 여성문화유산은 공식적 의제로 통합되지 못한 상태이다. 다만, 남녀공동참획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전국적으로 설치된 도도부현의 여성총합센터, 남녀평등센타 등을 중심으로 남녀가 함께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위한 강좌, 세미나, 포럼, 전시, 문화교류 등을 기획·실시하면서 일부 센터를 중심으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단체활동을 지원하거나 지역 대학 연구소와 협력하여 지역 여성사를 발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남녀평등센타가 지역 여성사 다시쓰기 작업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데, 일례로 미나토구 남녀평등참여센타(港区男女平等参画センター)에서는 여성사를 다시 만든다는 취지로 [미나토구(港区)의 여성사를 만들기 위하여 (みなと女性史をつくるために)]라는 연속 강좌도 2005년 9월 30일-11월 11일까지 7회 실시 중에 있다.

나. 박물관 ·전시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본은 아직 여성문화유산이란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으며 여성의 역사적 삶 전반을 다루고 있는 기념관이나 박물관은 없다. 하지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여성문화 유산에 관련된 의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사 속 여성문화인물에 대한 기념관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 연대 속에서 탄생해 여성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시관, 여성들이 만들고 계승해온 직조유산을 표상하는 전시관 등이 있다. 이외에 특기할 사항은, 일본은 일본 외 지역, 주로 유럽지역의 여성문화 유산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여 프랑스의 여류화가의 작품은 전문적으로 전시하는 미술관과 영국 황실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보석 세공품, 식기, 레이스 등을 상설전시하고 있는 박물관도 있다.

(1) 이치요 기념관(一葉記念館)

히구치 이치요 (樋口一葉:1872-1896)는 폐결핵으로 죽을 때까지 24년이란 짧은 생애 동안『키 재기 (たけくらべ)』등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는 주옥같은 작품을 남긴 메이지시대 대표적인 여성작가로 평가되고 있고, 2004년 11월에는 5천 엔 신권의 인물로도 선정되었다. 이치요는 어릴 때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으나, 17세 때 아버지를 잃고 여성이면서 가장으로서 한 집안을 꾸려나가야 하는 고된 삶을 살았다. 18세 때 소설가를 지망하였으나 생계가 어려워 20세 류센사 (龍泉寺)가 있는 마을에서 과자 및 잡화를 파는 장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장사가 되지 않아, 다음 해 고향인 분교구(文京区) 로 돌아와 집필에 전념하며 이때부터 불후의 명작들을 발표하게 된다

이치요 기념관은 원래 아이치현 (愛知県)의 류센지쵸 (竜泉寺町)에 있었는데, 2005년 1월 31일 폐관하고 신규 소재지인 현 동경도 타이토구

니시아사쿠사 (東京都 台東区 西浅草)로 옮겨 2005년 2월 22일 개관하였다. 여류문학자 단독 문학관으로서 일본에서 최초라고 한다.

이치요 기념관 건설경위를 보면, 명작인『키 재기 (たけくらべ)』의 무대가 된 류센지(龍泉寺) 마을 사람들이 이치요의 문학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치요 협찬회(一葉協賛会)를 결성하여, 1949년 전쟁으로 소실되었던 이치요 기념비(一葉記念碑)를 다시 세우고, 1951년 이치요 기념 공원에 이치요 타케 쿠라베 기념비를, 1960년에는 구 거주지 유적에 이치요 구거주지 비석(一葉旧居跡碑)을 건립한 후 기념회관 건립을 목표로 모금활동을 벌여 현재의 용지를 매입하여 타이토구에 기부하여 기념회관 건립을 요청하였다. 타이토구는 이러한 지역 사람들의 열의에 감동하여 기념회관 건립하게 이른 것이다.

본 기념관에서는 이치요 마츠리 (이치요 축제)를 매해 이치요의 기일인 11월 23일에 실시하고 기념강연과 이치요 작품 낭독회 등을 동시에 개최하고 있다. 또한 오천 원 신권 인물로 선정된 기념 특별전을 2004년 10월 1일에서 12월 23일까지 개최하였다.

(2) 엑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アクテイブ·ミュージアム　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진보적 여성계의 시선을 아시아로 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일본국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을 마친 직후부터 시민단체 연합인 바우넷 (VAWW-NET) 대표 고(故)마츠이 야요리 (松井やより)씨는 전시 하 여성들의 피해와 군에 의한 가해사실을 기록하고 평화와 비폭력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점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2003년 6월 ＮＰＯ법인「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인권　기금(女たちの戦争と平和人権基金)」을　설립되었으며,　마츠이씨가 남긴 유산으로 자료관 건설 운동 '1억엔 캠페인'도 전개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2005년 8월 1일 드디어 엑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이라는 결실로 맺어졌다. 전시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젠더 정의 관점에서 전시성 폭력에 초점을 둔다; 둘째, 한명 한명의 피해를 밝힘과 동시에 가해책임을 명확히 한 자료 수집과 전시를 한다; 셋째, 평화와 비폭력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거점이 된다; 넷째, 국가권력과는 연대하지 않는 민중운동을 펼친다; 다섯 째, 국경을 넘어 연대활동을 추진한다.

이러한 이념 하에 자료관에서는 '위안부' 문제 정보 임시 핫라인(03-3202-5556)을 개설하여, 전쟁 위안부 관련 증언을 수집하고 있다. 또한 2005년 8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제1회 특별 기획전 [여성 국제전범 법정에 관한 모든 것: '위안부' 피해와 가해 책임]을 전시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기획전을 개최할 것은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자료를 테마별로 수집, 정리하여 순차 공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성폭력의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은 여성들 한명 한명의 존재와 그들의 삶과 마주하며 배우고, 생각하고, 서로 토론하며 행동으로 이어나가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3) 기타

이밖에도 미기시 세츠코(三岸節子) 기념미술관, 오사카 인권박물관, 아오우메 (青梅) 키모노 박물관, 키모노 에마키관에마키관(着物絵巻舘) 역시 여성문화 유산 관련 전시관과 박물관으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토치기栃木) 현립미술관, 시세이도(資生堂) 기업자료관, 사이쿠(齊宮) 역사박물관 등도 젠더의식을 가지고 여성문화유산의 의미를 새로이 발굴하는데 동참하고 있다.

이 가운데 토치기 현에 있는 토치기 현립 미술관에서는 [전위의 여성, 1950-1975 (前衛の女性´ 1950-1970)] 특별전을 2005년 7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개최하였다. 1950-1960년대 구체(具体)、큐슈파(九州派), 네오 다다이즘, 플렉서스 등 소위 '반예술'이라 칭해졌던 전위예술 집단이 활발하게 결성되어 종래의 예술적 가치에 도전하던 시기에 독자적으로 새로운 표현을 모색했던 여성 예술가들의 작품을

특별 전시한 것이다. 이들의 작품은 전후 부흥기에서 고도 성장기를 향하는 시대라는 배경 속에서 운동의 중심이 된 남성 아티스트의 그늘에 가려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포착한 미술관이, 당시 여성 아티스트들의 다채로운 작품의 역사를 돌아보고 '전위'란 무엇인지, 또 '미술'과 '여성' 사이에 놓인 문제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기획한 것이다. 총 46명의 여성 전위 예술가들의 평면, 입체, 영상 등 약 220여점 전시하였다.

그리고 일본 각지의 전시관과 박물관에서는 1970년대부터 중국과 한국의 자수전시관, 직조 전시관 등과 교류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김이선 외 2004: 154-156). 2005년 10월-12월에도 토쿄의 일본민예관에서는 (주)태평양의 기업박물관인 디 아모레 뮤지엄과의 교류전인 [한국 여성의 멋과 미] 기획전을 개최하여 한국 여성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던 장신구와 가사도구, 조선시대 여성 공간의 구성 등을 전시한 바 있다.[45]

이외에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유럽 여성문화유산에 특화된 전시관, 미술관을 들 수 있다. 프랑스 페미니스트 설치예술가 니키의 생애에 대해 알리고 그녀의 작품만을 전시하는 니키(ニキ) 미술관이 그 대표적 예이다. 니키 미술관은 현대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여성조각가인 니키 드 상팔(1930-2002)의 작품을 우연히 보게 된 일본의 한 여성 기업가 요코(본 이름: 増田 YOKO 静江)의 노력으로 세워진 미술관이다. 관장인 요코는 니키의 작품을 보고 같은 여성으로서 깊은 감명을 받은 후, 개인적으로 그녀의 작품을 수집하여 오다가 1994년 10월 나스 (那須)에 니키 미술관을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초기 작품부터 최근의 작품까지 총망라하여 전시하고 니키의 전 생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본 미술관은 여성으로서의 고통에 대한 응시, 그러나 서서히 여성성의 긍정성으로 이끌며 관람객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

---

[45] "일 도쿄서 '한국여성의 멋과 미' 기획전", 『연합뉴스』 2005. 9.26 〈http://mews.media.daum.net/snews/economic/industry/200609/26/yonhap/v10267081.htm〉 참조.

시지를 전달하는 여성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문화적 상징이 국경을 초월하여 어떻게 '여성'이란 공통분모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또한 나스에는 아키바(穐葉) 안틱주얼리 박물관이란 영국 황실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보석, 식기류, 레이스 장식 등을 전시하는 박물관이 있다. 이곳 역시 영국의 왕실에 전해져 내려오는 여왕과 귀족들이 착용하던 장신구에 매료된 한 일본 여성(관장 아키바 테루에)이 건립한 것이다(1995년 7월 개관). 특히, 장신구 기술이 현저하게 발달하고 그 종류도 다양해진 빅토리아 여왕시대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 빅토리아 여왕, 앤 여왕, 죠지 4세의 장녀 샬롯, 에드워드 7세의 아내 알렉산드라 등이 착용하던 장신구 및 사용하던 식기 세트, 레이스, 또 그 시대의 복장 등 당시의 여성과 여성관련 문화유산이 전시되어 있다. 2005년 7월에서 10월까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했던 여왕의 시대전 (世界一幸福だった女王の時代展)]이 영국 문화원 후원을 받아 열리고 있어, 여성문화 유산을 상징으로 하여 영국과 일본이란 두 나라의 문화적 교류의 장으로서의 미술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다. 학술단체

일본에서는 이미 1950년대부터 특정 여성역사인물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문화유산을 가꾸려는 시도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여 1970년대부터는 '여성사 연구붐'이라 불릴 정도로 활발한 여성사 연구와 함께 여성학이 학제 안에 정착했다(김이선 외 2004). 1977년에는 국제여성학회(国際女性学会)〉가 설립되어 제1회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980년 베티 프리단을 초청하여 기념강연을 가졌다. 이후 국제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2003년도에는 국제젠더학회로 개명하며 설립 이후부터 집중해왔던 국제적 시각에서의 여성사 연구를 지속적으로 펼쳐 오고 있다. 국제 젠더학회는 개설 이후 일본 주부의 문제, 여

성과 기업, 여성과 노동 문제에 관련된 연구서들을 지속적으로 내오다가, 1990년 이후에는 여성과 생애, 독신여성의 문제, 여성의 세력화(empowermnent) 연구로 그 영역을 확대해왔으며 올해에는 분과회 연구 프로젝트 중 '전통문화와 여성'이란 주제를 5개 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국제여성학회가 설립된 지 3년 이후인 1980대에는 우선 1980년에 여성사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문 여성사 연구 기관으로 총합여성사 연구회 (総合女性史研究會)가 문을 열었으며, 1986년에는 쇼와 (昭和)여자대학에서 개교 65주년을 기념하여 쇼와여자대학 여성문화연구소, 이어 1990년대에 들어서면 1992년 교토(京都) 타치바나(橘)대학 여성역사문화연구소(女性歷史文化研究所)가 문을 열었으며 가장 최근인 2004년에는 젠더사학회까지 개설되며 일본에서의 활발한 여성사 심포지엄이 개최되고 있고 또한 여성의 삶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많은 연구들을 진행시키며 많은 연구 성과물들을 내고 있다.

우선 1980년에 설립된 총합여성사연구회는 여성사 연구의 향상, 발전, 보급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연구회는 연 3회 분야별 모임을 갖고 연 1회 대회 및 총회, 여성사 강좌를 개최하고 국제적인 연구교류 활동도 하고 있다. 또 기관지인 『총합여성사 연구(総合女性史研究)』를 연 1회 간행하고 그 밖에 출판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1997년 제14호에서는 특집으로 "아시아 여성사 국제 심포지엄 기념강연 일본의 아시아 지배를 생각한다. 아시아 여성사 전체상을 지향하며 (アジア女性史国際シンポジウム 記念講演 日本のアジア支配を考えるアジア女性史の全体像をもとめて)"라는 주제를 다루었고, 제20호(2003년 3월) 특별 기고편에서는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들의 모습–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 분석 (教科書から立ち現れる女性たちの姿—中学校新歷史教科書八点の分析)"을 시도하며 역사교과서 속 여성의 위상을 다룬 바 있다.

특기할 만한 연구 성과는 1990년 『일본여성 생활사 (日本女性 生活

史)』를 출판하며 여성의 일상을 역사에 포함시키는 작업에 성공하였으며, 이어 1992년에는『일본 여성의 역사: 성, 사랑, 가족 (日本女性の歴史: 性·愛·家族)』, 이듬해인 1993에는『일본 여성의 역사: 문화와 사상 (日本女性の歴史: 文化と思想)』을 출판하였다. 뚜렷하게 아시아 주변국의 여성 연구에 관한 학술교류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으나 2003년 [문자와 여성-여성이 읽는다는 것, 쓴다는 것, 그 역사와 의미(文字と女性 — 女性が読むこと, 書くこと, その歴史と意味)]라는 학술대회에서 김부자의 "식민지 조선에서의 여성의 식자율 (植民地朝鮮における女性の識字率)」"이란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2002년에는 [부부와 아이의 성을 둘러싸고-동 아시아 역사와 현상 (夫婦と子の姓をめぐって — 東アジアの歴史と現状)]이란 학술대회에서 김진숙이 "한국의 부부와 아이의 설-그 역사와 과제 (韓国の夫婦と子の姓 — その歴史と課題)"에 관하여 발표한 바 있다.

1986년에 5월에 개교 65주년을 기념하여 개설된 쇼와여자대학 여성문화연구소는 여성문화를 전문적으로 탐구한다는 목적 하에 생활학, 여성사, 노동과 가족, 여성문예, 비교여성문화 등 다방면에서 학술적 연구를 해오며 많은 평가를 얻고 있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이다. 1986년부터 2005년까지 99회 연구발표회를 가졌으며, 이 중 중국 여성과 중국의 여성사에 관한 연구발표회도 약 10회 가량 실시한 바 있다. 1987년 기관지로 『여성문화연구기요(女性文化研究所紀要)』를 발행하였으며 2002년에는『여성 문화와 젠더(女性文化とジェンダー)』라는 간행물을 출판하였다.

이어, 1990년대에 들어서며 개설되어 가장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성사 연구 기관 중 하나는 교토(京都) 타치바나(橘)대학 여성역사문화연구소(女性歴史文化研究所)이다. 당 연구소는 1992년 개설된 이래 여성사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일본 서부 지역의 최초의 연구기관으로 주목을 받아왔는데, 여성의 삶을 둘러싼 역사적 문화적 환경에 대한 분석, 현대사회에서의 여성 지위를 고양하기 위한 목적

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1992『여성역사문화연구소 기요 (紀要)』라는 학술지를 창간하면서 [여성사 신시대를 맞이하며-여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 심포지엄에서 일본 여성사 연구의 전체 맥락을 짚고 향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여기서 "학교 창립 이후 여성의 자립을 초지일관 교육목표로 삼아 온 본 대학 부설 연구소는 여성사와 여성의 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을 다루며 여성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가, 인류의 역사 속 여성은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가, 또한 어떠한 문화를 만들어왔는가를 살피며 역사의 토대 위에 당당히 미래의 역사를 쓰는 여성사 연구기관"[46]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라 본 연구소의 특징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취지 하에 개설된 연구소는 여성이란 시점에서 역사를 재해석하며 역사가 남겨놓은 공백을 메우고, 역사학 전체에 깊이를 더하는 여성사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의 여성사 및 여성문화연구를 진행해오며 연구촉진을 위하여 여성사 및 여성학에 관한 전문서를 5,000점 이상 갖추고 있고, 또한 자치체 등의 위탁을 받아 여성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타 대학의 여성사 여성학 연구소와도 협력하여 공동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2005년 7월 2일 [재봉틀과 여성과 경제]라고 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재봉틀의 등장이 여성의 문화와 생활을 얼마나 바꾸었는가에 대한 발표와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주요 출판물로는『집과 여성의 사회사 (家と女性の社会史)』(1998), 『교토의 역사와 여성사 (京都の歴史と女性史)』(2002) 등이 있다.

가장 최근 문을 연 젠더사학회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젠더의 개념은 국제적으로는 이미 학술연구의 중심 개념이고 21세기 다시 새로운 지식의 파라다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개념이라는 인식 하에 2004년 5월 출범한 연구단체이다. 본 학회는 인류 역사에 관련된 모든 학술분야, 즉

---

[46] 교토(京都) 타치바나(橘)대학 여성역사문화연구소, 『여성역사문화연구소 기요(紀要)』(1992), p. 5.

역사, 문학, 언어, 교육, 종교, 사상, 미술, 음악, 연극, 경제, 사회, 민속, 정치, 법, 과학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젠더의 관점으로 학제적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 뿐 아니라, 아시아, 미국, 구미 등 세계 각 지역을 연구 필드로 삼아 비교사적 시점에서의 연구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의무교육과 고등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의 장에 충분히 환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고자 한다. 본 사학회는 국내외 젠더 연구에 관계된 학회, 기관과 연대하며 학문 연구의 발전을 꾀할 뿐 아니라, 인류사회의 미래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학회를 열고 있는데 2004년 12월 제1회 심포지엄에서 [지금 왜 젠더 사학인가(今なぜジェンダー史学か？)]를 주제로 걸고 발표를 가졌는데 발표자 중 후쿠토 사나에 (服藤早苗)는 "혁명과 젠더-중국여성사의 재구축을 향하여"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05년 11월 27일 제2차 학술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데, 본 학술대회에서는 "일본 근대에 있어서 여성과 미술의 사회사적 고찰", "일본중세의 이야기/시상표상과 사회적 상상력-젠더사적 분석과 해석의 실천", "메이지 시대의 여성 잡지『여감 (女鑑)』에 나타난 남성상", "남성 지식인은 왜 여성을 논하였는가 - 잡지 『신여성 (新女性)』을 분석 대상으로"와 같은 주제가 다루어질 계획이다.

일본의 여성사에 대한 연구는 이상 언급한 학술단체 외에도 민간 기업 차원이나 개인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요미우리 신문 (読売新聞)은 2001년부터 2002년에 거쳐 『다큐멘트: 시대를 연 여성들 (ドキュメント： 時代を拓いた女性たち)』 제1집과 제2집을 연속 간행하여 시대별로 여성들의 삶을 편집하여 출간하였다. 또한 센도 히로 (仙堂弘)는 건국 신화 속의 이자나미 여신, 아마테라스여신에서 히미코 여왕을 거쳐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약 52명의 역사 속 여성의 삶과 업적 등을 재조명하여 『일본을 만든 여성들 (日本をつくった女たち)』(2004)을 출간하였다. 이밖에 요시나리 이사무(吉成勇)의 『일본여성사 '인물' 총람(日本女性史 '人物' 總攬)』

(1996) 역시 역대 역사 속 여성을 황실 관련 여성들, 교육자, 사회운동가, 옛 민담 속 여성들까지 하여 약 700명이 넘는 여성들의 삶을 총망라하여 출간하였다.

이상 일본의 여성사 연구 흐름을 보면 일본의 여성사 연구는 주로 일본 국내 여성의 여성사 재조명과 재해석 작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재단법인 아시아 여성 연구 포럼 등을 중심으로 아시아 여성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다루어져오고 있으며, 특히 중국 여성사에 대한 관심은 높아 일본 국내의 중국여성사연구회의 활동은 눈에 띈다. 중국여성사연구회는 현재 일본 관동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회인데, 1977년 9월에 중국과 일본의 4명의 여성 연구자에 의해 시작된 이래 현재 100명의 회원에 이르고 있다. 매월 정례회를 갖고, 연 1회 합숙하며 중국 여성사 강독회 등을 갖는다. 이러한 연구 활동의 결과로 『중국여성해방의 선구자들(中国女性解放の先駆者達)』(1984),『야나기타 세츠코 선생 고희기념: 중국의 전통사회와 가족 (柳田節子先生古稀記念：中国の伝統社会と家族)』(1993), 『중국여성운동사 1919-49(中国女性運動史1919-49)』(1995), 『논집 중국여성사(論集中国女性史)』(1999),『중국여성의 100년 사료로 보는 발자취(中国女性の一〇〇年 史料にみる歩み)』(2004) 등 연구결과물을 내었다. 1989년에는 기관지 『중국여성사연구(中国女性史研究)』를 창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중국여성사 연구가 학술단체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성과물을 내고 있으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특수한 여성문화유산인 '여서(女書)'에 관심을 둔 연구자들이 중국여문자연구회(中國女文字研究會)를 결성할 정도로 관심의 깊이가 더해지고 있다. 이에 비하면 한국여성사 연구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일본 국내 학술단체는 아직 발전되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라. 여성단체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일본의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적극적으로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게 되기까지 대학 부설 및 민간 학술 단체 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비정부 차원의 여성단체의 활동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아시아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역사를 근절하기 위한 진보적 여성단체의 연대활동은 동북아 공동체의 진전에 있어 관심을 기울일 만한 점이다.

(1) 아시아 여성자료센터(Asia-Japan Women's Resource Center)

아시아 여성자료 센터는 1970년대부터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던 아시아 여성들의 모임 (アジアの女たちの会)을 기반으로, 1995년 북경세계여성회의가 열렸던 해, 일본을 대표하는 페미니스트 활동가이며 저널리스트인 고(故) 마츠이 야요리(松井やより)씨가 설립하였다. 일본 각지의 여성들과 세계 여성운동을 연결하고 국경을 넘어 함께 행동하는 여성들의 세력화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 페미니스들과 손을 맞잡고 여전히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는 21세기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역점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즉 무력분쟁과 군사기지, 인신매매, 매춘, 남편이나 애인으로부터의 폭력, 그리고 민족주의와 종교원리주의에 의한 여성 억압 등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둘째, 자유무역, 개발원조, 환경파괴, 이주노동, 구조개혁과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사회보장제도 등 빈곤과 젠더 격차를 가지고 오는 정치경제구조에 도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지한다. 셋째, 인권보장과 젠더 평등에 기초한 대안적 정치, 법제도 실현을 향하여, 법률, 전후보상, 여성의 정치참여, 교육,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을 젠더의 시점에서 다시 검토한다.

아시아 여성자료 센터는 일본 전국, 해외의 회원과 자원봉사자에

의해 지원 운영되고 있다. 기관지 『여성들의 21세기(女性たちの21世紀)』를 연 4회 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영문 기관지 『Voices from Japan』도 연 2회 발행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여성운동에 대해 배우고, 민족주의와 글로벌 경제,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을 젠더의 시점에서 생각해보는 [젠더 임파워먼트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면 아시아 각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여성들과 교류하며 배우기 위한 스터디 투어를 연 2회 개최하고 있다. 한국과의 교류를 보면 2001년 스터디 투어로 회원들이 한국에 왔으며, 당시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나눔의 집, 한국여성노동자협의 회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소리회 등을 방문하였으며 2005년 11월 제2차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2) 재단법인 이치가와 후사에(市川房枝) 기념회

이치가와 여사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참정권 운동 및 깨끗한 정치를 위해 전 생애를 살다간 인물인데 당 재단법인은 그녀가 1962년 창설한 것이다. 여성참정권 실현을 기념하여 건설된 부선회관(婦選會館)이 전신이며, 창설 당시부터 본 회관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교육, 여성문제조사, 출판, 국제교류 사업을 행하고 있다. 구체적 활동상황을 보면, 첫째,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내외 정치, 헌법, 역사, 문학, 심리학 등 강좌를 비롯하여, 여성문제 세미나 강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출판을 하는데 월간지로 『여성전망 (女性展望)』을 간행하여, '여성과 정치'를 주축으로 여성문제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보고하고 있다. 당 월간지는 2004년 7월로 창간 50주년을 맞이하였다. 주요 간행물로는 1958년부터 매해 『전국조직 여성단체 명부 (全國組織 女性團體名簿)』를 발행하여 현재 2004년 명부까지 발행하였다. 본 명부는 전국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여성단체, 정당 여성국, 연구단체 등 103개 단체 등의 소재지, 대표자, 목적, 예산 등에 관한 정보를 총망라하고 있다.

또한 주요 저작물로 『여성은 정치와 어떻게 마주하여 왔는가-검증-부인참정권운동 (女性は政治とどう向き合ったか ・ 檢証-婦人參政權運動』(2004), 『여성참정자료집 (女性參政資料集)』을 1987년부터 2003년까지 있다. 그 밖에 이치가와 후사에 기금을 1983년 마련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정치 정화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 (개인, 그룹, 단체)을 지원하고 있다. 부설 시설로는 본 기념회 3층에는 이치가와 후사에 전시실이 마련되어 이치가와의 생애 연보와 관련 사진, 자료, 일상생활 유품 등 약 100점을 전시하고 당시 그녀가 살았던 거실을 재현한 코너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치가와 후사에 정치참여센타(市川防技 政治參畵センタ)도 1994년 개설되어 전국 의회 여성 의원수를 늘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마. 생산자 단체

여성문화 생산자 단체로는 우선 일본 전통 공예사회의 '여성부회'가 있다. 처음에 전통 공예사회에 여성부회를 따로 만드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이 단체는 여성 장인들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계승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로는 전통공예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산노카이(讚の會)가 동경 시부야에 소재한 전통 공예사회 회관에서 2004년 [삶을 채색하는 여성 장인전(暮らしを彩る匠の女たち): 여성 전통공예사 10인의 '기술전승']전을 개최한 바 있고, 와쿠라시 쿠라브(和くらし·クラブ)역시 같은 해 [도전 미래의 여성공예사전(めざせ 未来の女性工藝士展)]전을 여성과 일 미래관에서 개최하였다.

이 밖에 타카다 장속연구소와 유직(有職)문화연구소 등이 있는데 타카다 장속 연구소는 수백 년 계속된 궁중장속제작의 기술과 경험, 복장사, 염직사의 연구 자료를 토대로 복원제작 작업을 해 오고 있다. 유직 문화연구소는 유직고실과 관혼상제에 관한 연구 성과를 소개하여, 복식, 예법, 궁중 문화, 역사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만으로 단원이 구성된 여성 뮤지컬 극단인 타카라즈카(宝塚)극단, 일본의 전통만담인 라쿠고(落語)를 여성들만이 모여 여성을 주제로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 사단법인 카미카타 라쿠고협회(上方落語協會)의 '여성부회'가 여성문화 생산 단체로 특기할 만하다.

타카라즈카 극단은 20세기 모더니즘이 꽃피었다고 말해지는 타이쇼시대(大政時代)에 창단되었다. 타카라즈카 극단의 전신으로 먼저 소녀들만이 출연하던 타카라즈카 창가대(宝塚唱歌隊)가 조직되어 1914년 4월 1일 첫 공연을 가졌다. 이후 1919년 타카라즈카 음악 가극학교 (宝塚音楽歌劇学校)가 설립되어 이 학교를 중심으로 타카라즈카 소녀가극단 (宝塚少女歌劇団)이 탄생하게 된다. 이후 1921년 관객들이 점점 늘며 타카라즈카 공연에 대한 호응이 높아졌으며, 1924년 7월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타카라즈카 대극장이 세워졌다. 2004년 현재 창단 90주년을 맞이한 타카라즈카 극단은 오늘날에도 일본 국내에서 그 인기가 끊이지 않고 공연마다 매진이 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서서히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고 있으며 2005년 11월 최초의 한국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사단법인 카미카타 라쿠고협회(上方 落語協會)의 '여성부회'는 2005년 9월 13일 오사카부 여성총합센타 돈센타(大阪府 女性総合センタドーンセンター)에서 카미카타(上方) 소녀대(笑女隊)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거의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라쿠고라고 하는 전통 만담극에 여성에 의한 여성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4.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조직 역량

이상에서 한, 중, 일 3개국에서 여성문화유산과 관련해 사업이나 활동을 벌인 바 있는 주요 기구와 단체를 중심으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접근

과 실천의 활성화 정도, 동북아 차원의 네트워크로의 발전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1) 중국

중국에서는 최근 민간문화유산 발굴·보호에 대한 정부 주도의 사업과 대중적 관심이 크게 활발해지고 있으며,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여서(女書)나 전지(剪紙) 등의 중요한 여성문화유산 및 민간여성예술가에 대한 발굴과 보호활동이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문화를 통한 중화민족주의 고취라는 목적이 분명하게 존재하며, 이는 문화를 통한 동북아교류나 연대에 어느 정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 관련 박물관·기념관을 보아도, 건설중인 중국 최초의 부녀문화박물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념관–딩링기념관, 쑹칭링기념관, 추진기념광장 등–은 모두 여성인물이라는 사실 자체로서 가치를 부여받기보다는 국가나 공산혁명에 대한 헌신·애국충정과의 연관 속에서 비로소 철저하게 가치가 부여되고 기념되고 있다. 부녀문화박물관 또한 중요한 여성문화유산 관련 소장품들도 많이 전시될 예정이지만 '역사 속의 여성'이라는 분류에서는 철저하게 공산혁명과의 연관 속에서만 여성들이 이야기되고 있어서, 중국에서의 여성문화 관련 활동이 지니는 정치적 성격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위안부기념관도 지어질 예정이지만, 위안부 문제를 통해 한–일간 여성연대를 키워온 것과는 달리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교류와 연대의 기반으로서 보다는 반일감정에 기초한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학술단체 중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네트워크인 양성시야(兩性視野)가 가장 자유롭고 개방적인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보이고, 천진대학 부녀연구중심도 위에서 보았듯 두팡친(杜芳琴)교수를 중심으로 매우 활발한 국제교류활동을 펼치고 있고 여성사 전공 대학원생도 길러내

고 있어서 동북아교류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북경대학 중외부녀문제연구중심 역시 여성사 관련 연구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중국여성민간예술연구와 전시' 연구프로젝트도 진행되는 등 여성문화 관련 교류의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여성 관련 민간단체들은 빈곤여성수입원 창출 차원에서 일부 공예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역사 속 여성의 위상을 재조명함으로써 새로운 젠더관계를 모색하려는 한국 민간단체와는 접근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 주요 여성문화유산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여서와 전지는 사실 다소 중국의 특수한 문화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중심으로 동북아 차원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이 이뤄지기는 어렵지만, 일본에서도 여서 관련 연구가 이미 이루어지는 등 학술적 차원에서의 교류가 가능하고 또 무엇보다도 교류의 기초가 상호이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각 국가의 독특한 여성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는 이후 교류와 연대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 일본에서는 아직 여성문화유산 개념이 가시적으로 정착되지는 않았으며 특히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은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히구치 이치요와 같은 여성거장에 대한 관심이 장기간 성장해오면서 이치요 마츠리가 열리고 화폐에도 등장할 정도로 여성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몇몇 요소들에 대한 관심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들이 전승해온 전통 공예와 타카라즈카 등에 대한 관심도 높으며 남성들이 점유해오던 생산자 단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생산자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점은 오히려 한국이나 중국보다 앞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는 국내외 여성사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여성사 연구자와의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이미 1970년대부터 중국여성사연구회가 결성되어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여서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들이 중국여문자연구회(中國女文字研究會)를 결성할 정도로 중국 여성사에 대한 관심의 깊이가 더해지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직조와 자수 등 여성들이 생산, 계승해온 물질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 1970년대부터 꾸준히 교류를 추진해오고 있다. 다만 관심이 미적인 차원에 집중되어 있어 문화유산을 만들고 계승해온 한국과 중국 여성들의 삶과 역사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로서는 한계가 있다.

동북아 공동체의 진전에 있어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는 것은 고(故) 마츠이 야요리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진보적 여성단체들이 민족적 분리를 넘어 아시아 차원의 네트워크를 지향해온 점이다. 특히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여성단체와 연대를 형성한 것을 계기로 점차 동북아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여성들의 삶 전반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면서 인권과 평화가 보장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실천을 다각적으로 벌여나가고 있어 여성문화유산에 관한 동북아 네트워크에서도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한국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여성사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기 시작해 대학의 연구소와 민간 연구조직을 중심으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학문적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성과를 기초로 19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서부터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조직적 역량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성사 연구의 지평이 확산되고 여성사 전문 학회가 발족하는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도 여성문화유산을 의제로 채택하였으며 여성문화유산에 특화된 박물관·전시관이 정부와 민간에 의해 설치되고 전문 단체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지

역 출신 여성인물과 지역의 특수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은 매우 현저하다. 이와 함께 주요 여성단체에서도 여성의 삶을 제약하는 환경 속에서도 역사의 주체로서 꿋꿋한 삶을 살았던 여성인물과 여성공동체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축제, 관광을 조직하는 등 새로운 젠더 문화의 비전을 제시하는 상징으로서 여성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 확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조직적 기반과 함께 정책 프로그램과 사업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여성사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여성사 아카이브(여성사 전시관)나 한국여성사 지식정보DB(한국여성개발원), 여성생활문화역사자료정리사업(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각 지역의 여성사 및 여성생활문화 자료집 등 여성문화유산 지식정보 DB가 구축되고 온·오프라인 박물관·전시관이 개설되는 한편, 교육프로그램이나 축제, 관광 프로그램도 기획, 추진되는 등 다각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성문화유산을 둘러싼 조직적 실천 역량의 강화와 함께 동북아 차원의 교류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한편으로 여성문화유산의 교류 전시가 추진되고 주요 여성문화유산을 돌아보는 관광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를 제작하여 우리 여성문화유산을 동북아를 포함해 세계에 알리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탈 국가적 관점에서 한-일 여성사에 관심을 가진 학술 모임이 형성되고 중국 여성사에 대한 연구 기반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와 함께 주요 여성단체들은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동북아 여성들이 고통의 역사를 딛고 평화롭고 평등한 동북아의 비전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동북아 공동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나아가 한국과 일본 여성들이 협력하여 여성의 관점에서 공식 역사 담론을 재구성하기 위한 실천을 벌임으로써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향한 진전에 매우 의미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미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북아 차원의 여성문화유산 교류는 제한된 연구자와 단체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준이며, 각계의 조직적 역량을 충분히 살려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깊이 있게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는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자체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최근 들어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서 특히 현저하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몇몇 여성인물과 관련된 유적이나 유물 또는 지역의 특수한 물질문화유산을 넘어 여성문화유산 전반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요소들이 지니는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풍부한 의미, 즉 유적이나 유물과 관련된 인물의 여성으로서의 삶이나 물질문화유산을 생산하고 계승해온 여성 집단의 생활양식 등을 통해 역사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존재와 실천을 조명하고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형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유적이나 유물 등 물질적 요소 자체만을 강조하거나 물질문화유산의 형태적 아름다움과 생산기술의 정교함을 표상하는 수준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성문화유산을 둘러싼 교류가 추진된다고 하여도 성인지적 관점이 결여된 채 몰성적 문화유산의 하나로 접근되어 그것과 함께 숨쉬며 살아왔던 여성들의 역사적 발자취와 생활경험을 담아내지 못하는 피상적인 교류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몇몇 연구자나 단체를 제외하고는 민족국가의 틀 속에서 여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의미를 형성하는데 집중되어 있어 동북아 다른 국가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의 진전속도를 늦추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민족국가 역사담론의 지배적인 영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문화유산을 둘러싼 동북아 교류가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탈 민족국가적 관점에서 여성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과 탈 국가적 관점에서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의 형성 이외에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전반의 역사를 관통하여 광범위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구나 단체가 추진한 교류는 양자간, 특히 일본과의 교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비해 중국과의 교류는 크게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문화유산 관련 교류를 주도해왔던 민간부문의 네트워크가 일본을 중심으로 발달해있었고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교류체계에서 국가 중심적 구조를 지닌 중국과의 교류가 제한되었던 수밖에 없었던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뿐 아니라 교류의 주제도 주로 일제시대를 중심으로 위안부나 신여성 등에 집중되어 있어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다 광범위한 시기에 걸친 동북아 각국의 다양한 여성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접근해 동북아 역사의 격자를 만들어온 여성들의 삶의 다양성과 공통점을 찾아낼 때 비로소 미래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갈 주체로서의 여성의 역사적 뿌리를 찾고 그 뿌리 속에서 미래 공동체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문화적 자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 공히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활동역량을 보다 발전시켜야 할 것인데, 특히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은 지극히 미약한 상황이며 최근 들어 추진기반이 더욱 약화될 우려도 있다. 더욱이, 정부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미약한 관심이 국내적 차원에 집중되어 있을 뿐 동북아 각국의 여성문화유산은 여성부나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 어느 곳에서도 정책 범주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유념해야 한다. 한때 문화관광부 여성문화 TF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시아 여성문화관' 설치가 논의되기도 했으나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채 사장되었을

뿐 이외에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어떠한 정책도 개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4)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의 가능성과 자원

전반적으로는 동북아 각국 내부에서 여성사 연구의 지평이 확대되고 여성문화유산을 의제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민간의 활동, 전문 박물관의 설립 등과 함께 여성문화유산 개념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과 중국에서 일부 여성인물과 무형문화유산에 주어지는 관심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토대로 한다면 일부 인물이나 무형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교류는 현재로서도 별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의 경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차원의 교류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며 이것이 자연스럽게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로 진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동북아 각국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의 앞길에는 중요한 장애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자국의 여성문화유산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반면, 역내 다른 국가나 동북아 차원의 여성사에 진정한 관심을 가진 이들은 크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강력한 중화민족주의 문화유산 담론이 동북아 차원의 네트워크를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정부 중심의 교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민간 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중국 사회체계의 특성상 민간단체가 약할 수밖에 없어 단기적인 실효성을 거두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찾아볼 수 있다. 현재 각국의 여성사 연구자들과 비교적 진보적인 민간단체에서는 여성문화유산을 새롭게 재구성하면서 동북아 차원으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만큼, 이들이 선도적 역할을 한다면 동북아 차원의 여성문화유산을 중심

으로 한 네트워크에 결정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학계와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중국의 학계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출발하여 점차 참여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이미 동북아 네트워크를 향한 시도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편찬위원회'와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맺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선례를 벤치마킹하여 탈국가적 관점에서 여성문화유산을 재구성하고 그 의미를 확산하는 작업을 시도한다면 민족적 분리 구도 속에 존재해왔던 개별국가 시민들이 동북아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동북아인'임을 '상상'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V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방향

> 지난 19-20세기에 동아시아의 역사는 침략과 전쟁, 인권 억압 등 씻기 어려운 상처로 얼룩져 왔습니다. 물론 동아시아의 과거가 항상 어두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는 교류와 친선의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나간 시대의 긍정적인 면은 계승하면서도, 잘못된 점은 철저히 반성해야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더욱더 평화롭고 밝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겠지요(한·중·일 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2000: 11).

본 연구는 동북아의 미래를 찾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있어 문화생산 및 소통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량을 확인하고 여성문화유산이 지니는 공동체적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2004년에 진행된 1차 연도 연구에서는 여성문화유산의 개념을 정의하고 다양한 유형의 여성문화유산 가운데 직조공예를 중심으로 여성문화유산의 문화적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조명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과 일본, 한국의 직조공예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여성문화유산이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여성문화유산은 동북아 여성교류에 있어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평등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의미 있는 '상상'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네트워크의 구축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였다. 우선 동북아 3개국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일반적 관심과 이해 수준을 가늠하고 탈민족국가적 관점에서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의 변화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문화유산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각국의 주요 기구와 단체를 통해 여성문화유산을 간과하고 폄하하는 경향의 변화를 이끌면서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실천주체의 역량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일반적 인식의 변화 가능성과 조직역량을 바탕으로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의 구축방향을 모색하였다.

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변화 가능성

동북아 각국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 수준은 공식 역사담론의 핵심을 구성하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각국의 국사, 세계사 교과서에 대한 성 분석을 통하여 역사의 전개 과정 속에서 여성에게 부여되는 위상과 이들이 만들고 계승해온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평가의 방향을 가늠하였다,

그 결과, 한, 중, 일 교과서에서 공히 역사의 주체로서 여성은 그림자와 같이 드러나지 않는 존재이거나 민족의 수난 내지 구원, 국가의 발전, 민족문화의 보존 등과 관련해 지극히 제한적 위상만을 인정받거나 역사발전에 있어 부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나타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공식담론 하에서 적극적 역사 주체로서 여성의 위상에 대한 일반적 의식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여성들이 물질적, 의미론적으로 만들고 가꾸어온 유무형의 상징을 문화유산으로 인정하고 충분한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동북아 차원의 역사적 흐름과 관련해서는 정치, 사상, 문화 등 각 방면의 남성거장들을 중심으로 동북아 차원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며 역사가 발전되어 온 데 비해, 여성들은 민족별로 철저히 구분된 세계 속에서 제한된 역할만을 하면서 동북아의 역사적 흐름과는 무관하게 존재해온 것으로 당연시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자국 이외의 동북아 여성은 철저하게 비가시적이어서 '역사의 장에 그들이 존재했다'는 점 자체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 속 한국 여성에 대한 중국과 일

본의 일반시민들의 인식, 중국과 일본 여성들의 역사적 삶에 대한 한국인의 이해 수준은 백지 상태에 가까울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 역사를 만들어온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일본이나 중국 여성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족의 피해자'나 '게이샤' 등 힘없는 피해자 또는 남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 등 단순한 형태로 스테레오 타입화되거나 서태후와 같이 역사의 걸림돌 정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 역사의 격자를 짜왔던 수 많은 여성들을 망각하고 그들이 만들고 계승해왔던 풍부한 유·무형의 상징을 무시하면서도 동북아 각국의 시민들이 국가의 틀을 벗어나 역사 속 여성의 발자취를 통해 동북아의 미래비전을 형성하고 공동체적인 가치를 발견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북아의 역사와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실천을 통해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미 동북아 각국의 학계와 시민단체,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 여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형성, 확산하기 위한 실천을 추진하면서 적극적 역사주체로서 여성의 위상과 이를 표상하는 유·무형의 상징, 즉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아직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제한된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관심이 점차 국경을 넘어 동북아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심이 본격화되면 여성문화유산을 통해 동북아 다른 국가 여성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의 삶과 역사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동북아를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편찬위원회'와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처럼 탈민족국가적 관점에서 동북아의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배와 갈등으로 얼룩진 동북아 역사 속에서도 여성들이 민족적 분리를 넘어 연대를 추진한 역사적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평화롭고 평등한 동북아 공동체의 구현을 위한 실천의 뿌리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을 것이다.

2.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추진 역량

여성문화유산을 통해 동북아를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성중심적 문화유산담론 속에 묻혀있던 다양한 여성문화유산를 발굴하고 그 역사적 의미, 특히 동북아 차원에서 지니는 가치를 구성하며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실천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그 범위와 확산 속도가 좌우될 것이다. 동북아 각국에서는 최근들어 여성사 연구 지평이 확대되고 여성문화유산를 주제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사업이 추진되고 전문 박물관까지 설립되면서 여성문화유산 개념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과 중국에서 일부 여성인물과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거의 폭발적이라 할 만큼 현저하다.

이러한 관심을 토대로 한다면 일부 인물이나 무형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교류는 현재로서도 별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의 경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차원의 교류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서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로 진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동북아 각국에서 일고 있는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의 앞길에는 중요한 장애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자국의 여성문화유산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 역내 다른 국가의 여성사나 동북아 차원의 여성사에 진정한 관심을 가진 이들은 크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강력한 중화민족주의 문화유산 담론이 동북아 차원의 네트워크를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정부 중심의 교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민간 부문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

대할 수 밖에 없지만, 중국 사회체계의 특수성 상 민간단체가 약할 수밖에 없어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차원의 여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의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 현재 각국의 여성사 연구자들과 비교적 진보적인 민간단체에서는 여성문화유산을 새롭게 재구성하면서 국가 경계와 민족적 분리를 넘어 동북아 차원으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이들의 선도적 역할이 활성화된다면 동북아 차원의 네트워크에 결정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학계와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중국의 학계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출발하여 점차 참여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성사 연구 교류 모임과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협력 등 역사 속 여성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네트워크를 향한 시도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나아가 중국까지 포함하여 학자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편찬위원회'나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맺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탈국가적 관점에서 여성문화유산을 재구성하고 그 의미를 확산하는 작업을 시도한다면 민족적 분리 구도 속에 존재해왔던 개별국가 시민들이 동북아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동북아인임을 '상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 방향

가.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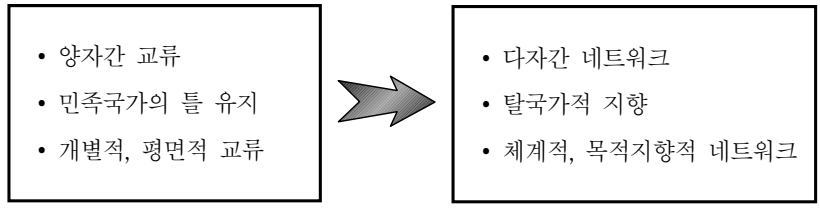
(1) 교류 패러다임의 전환

여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현재 각국에서 일고 있는 관심과 조직적 역량이 동북아 공동체를 진전시키는 추진동력으로 수렴되기 위해서는 동북

아 차원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도 부분적으로나마 동북아 각국에서 여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교류는 한-일, 일-중, 한-중 등 양자간 교류를 중심으로 민족국가의 틀을 유지한 채 각국의 위안부 문제나 신여성 등 역사적 현상을 이해하거나 자수와 직조 등 여성들이 생산해 온 물질문화유산의 기술과 형식적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동북아 차원의 탈 국가적 공동체의 진전에 있어 여성문화유산 교류가 의미 있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류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양자간 교류를 중심으로 했던 데에서 벗어나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다자간 네트워크를 모색해야 할 것이며, 민족국가 역사의 틀 안에서 발굴되고 의미가 형성된 각국의 일부 여성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동북아 차원의 탈 국가적 관점에서 여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다양한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Ⅴ-1〉 여성문화유산 교류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



이외에도 개별 기관과 단체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던 수준을 넘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의 교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탈국가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류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 자원, 즉 인적 네트워크와 기관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 정보 등을 기초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네트워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2)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

탈국가적 차원의 여성문화유산 교류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 구심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은 특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전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각국에서 여성문화유산에 관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기관과 단체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의 발전정도와 관점에도 차이가 있고 학술연구에서부터 교육, 전시, 관광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이질적 성격의 기관과 단체가 긴밀한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대안으로 동북아 각국의 여성문화유산에 관한 정보와 활동 프로그램, 이를 추진하는 기구와 단체들 간의 협력과 연대를 포괄하는 느슨한 협력망, 즉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를 고려할 수 있다.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는 동북아 지역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정보를 포괄하는 네트워크(지식콘텐츠 네트워크)와 이와 관련된 교육, 전시, 관광, 축제 등 프로그램 네트워크(프로그램 네트워크)와 같은 기능중심의 네트워크와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는 기관과 단체간 네트워크(기관네트워크)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동북아 각국의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의 깊이와 관점의 형성, 동북아 차원의 교류 경험 등으로 판단할 때 기능 내지 활동 중심적 네트워크인 지식콘텐츠 네트워크와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기관 중심적 네트워크와 동시에 추구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 보다는 활동 중심적 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네트워크 기반을 확립하여 차츰 기관 중심적 네트워크로 발전시키는 단계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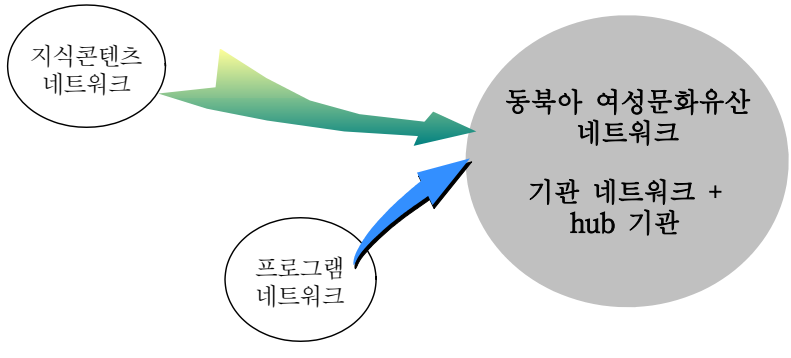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식정보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국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동북아 차원에서 의미 있는 여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그 의미를 형성함으로써 동북아 여성문화 네트워크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여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각계의 수준을 판단할 때에도 학계의 선도적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동북아 차원의 여성문화유산 지식콘텐츠를 생산, 축적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지식콘텐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연구교류가 활성화되어 탈국가적 공동체의 진전에 의미 있는 여성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정보가 축적됨에 따라 그 기초 위에서 여성문화유산에 관련된 기관과 단체, 전시관들은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을 테마로 한 교육이나 전시, 관광, 축제 프로그램을 추진하거나 동북아 차원의 공동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는 동북아 각국의 기구와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지만, 기구와 단체 자체의 네트워크라기 보다는 프로젝트 중심적 네트워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현재로서 각국의 기구와 단체는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또 민족국가의 틀을 벗어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네트워크를 직접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지식콘텐츠 네트워크와 프로그램 네트워크 등 프로젝트 중심적 네트워크를 통해 동북아 차원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공통적 접근의 가

〈그림 Ⅴ-2〉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



능성이 모색되고서야 정부와 민간을 포괄하는 다양한 기구와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장기적으로는 각국에 산재한 기관과 단체가 탈국가적 관점에서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생산한 성과를 모아 총체적으로 표상함으로써 동북아 차원에서 여성의 삶과 역사에 대한 '상상'의 계기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박물관(가칭)]과 같은 네트워크 허브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부문별 방향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는 크게 프로젝트 중심의 네트워크인 지식콘텐츠 네트워크와 교육과 전시, 관광, 축제 등 프로그램의 기획과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와 단체간 네트워크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부문은 탈국가적 동북아 공동체 형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진하는데 적합한 방식으로 조직되고 활동 방향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1) 지식콘텐츠 네트워크

이 가운데 지식콘텐츠 네트워크는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전문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의 연결망으로서 각국의 여성사 학술단체와 여성문화유산에 관련해 연구를 진행하는 각종 기관을 중심으로 결성된다. 네트워크에서는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여성문화유산의 존재와 그 역사적, 문화적 의미에 대한 지식기반을 제공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상상'하는 계기를 될 만한 다양한 여성문화유산 발굴하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작업은 각국의 여성사 연구관심을 교류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는 데에서 출발하여 점차 공통 주제에 대한 공동 연구를 통해 본격적인

비교연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민족국가의 틀에서 접근되던 여성문화유산을 탈국가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하는 것이 지식정보 생산의 관건이다.

구체적으로는 동북아 각국에서 서로 분리된 역사의 궤적을 걸어온 듯한 여성들의 공통점을 표상하는 여성문화유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은 유교와 한자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여성의 삶을 제약하는 가부장적 구조 역시 그 하나의 요소로서 동북아 여성들은 가내 영역에 국한되어 공적 활동을 제약 당해왔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사 연구성과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여성들은 각 분야에서 현저한 활동해온 점 역시 동북아의 공통적 현상이다.

동북아 역사에서는 가부장적 성별 구조의 한계에서 벗어나 문화, 사회운동,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저한 역사적 위상을 부여받을 만한 여성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그와 관련된 다양한 유무형의 상징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가내 영역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생산해왔을 뿐 아니라 농업생산과 직조 등의 주체로서 풍부한 기술과 지식을 발전시켜왔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관련 도구나 부엌 등 생활공간, 여성들의 놀이나 의례와 연행 등 다양한 여성문화유산을 생산해왔다(김이선 외 2004).

이처럼 동북아 각국의 여성개인이나 집단이 생산하고 계승해온 유무형의 상징 가운데에는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이 상당수 있다. 지식콘텐츠 네트워크에서는 공통적 요소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초기에는 이러한 작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높이고, 여성문화유산을 통해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구성된 여성문화유산 담론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유관순'이나 중국의 '쑹칭링'처럼 민족역사의 전개 속에서 현저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널리 표상되었던 인물이

나 몰성적 의미만을 부여받았던 여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탈국가적 관점에서 여성인물이나 집단의 존재를 조명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여성문화유산 발굴하여 공통점 찾으려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의 공통점을 찾는 작업과 함께 지식콘텐츠 네트워크에서는 동북아 문화교류 주체로서 여성의 위상을 표상하는 여성문화유산을 발굴하는 작업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흔히 전통사회에서 동북아 여성들은 평생 가내 영역에 한정되어 담장 밖의 세계에 통합되지 못했던 것으로 가정되기 쉽지만, 실상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을 뿐 아니라, 국가 경계를 넘어 동북아 차원의 문화교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중국 양자강 지역의 여공(女工)이 일본에 건너가 비단기술을 전수하고, 백제의 봉의공녀도 일본으로 파견되어 일본 직조의 기원을 연 것을 비롯해 고대 시대부터 직조생산기술의 전파자로서 여성은 직접 문화교류에 나섰다(김이선 외 2004: 98). 뿐만 아니라, 허난설헌처럼 작품을 통해 문화의 정서와 여성으로서의 경험세계를 동북아 차원으로 알린 경우도 있다.[47] 특히, 근대 이후 민족적 대립과 갈등의 역사 속에서도 여성들은 동북아 차원의 보다 긴밀한 교류를 통해 여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개척하고 젠더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을 발전시켜왔다.[48]

여성이 주도한 동북아 문화교류를 상기시킬 수 있는 상징은 각기 구분된 민족국가를 벗어나 서로 오가며 느슨하게 연결된 동북아 세계를 일깨우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극단적 분리와 갈등이 만연한 시대 상황 하에서도 민족적 분리를 초월해 연대를 추진한

---

[47] "허난설헌 시집 중국서 발굴," 『연합뉴스』, 2000년 9월 14일; "중국서 드날린 허난설헌 명성 확인," 『한겨레신문』, 2001년 4월 29일; "다시 보는 한-중 문화교류 ②허난설헌," 『한겨레신문』, 2001년 7월 1일.

[48] 신여성운동이나 여성해방운동의 발전에 있어 상호 긴밀한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정책의 발달에 있어서도 동북아 차원의 협력이 주효했다.

여성들의 존재는 동북아 공동체의 추진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지식콘텐츠 네트워크에서는 그러한 실천을 추진한 여성 개인과 집단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와 관련된 유형, 무형의 상징을 발굴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의 공통점과 동북아 문화교류와 관련된 여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식콘텐츠 네트워크에서는 동북아 여성들이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과 역사 과정 속에서 특수한 삶을 살아왔다는 점에도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실, 동북아 차원의 공통적인 여성문화유산이라고 하여도 공통점은 일반적 수준에서만 발견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 그리고 그 의미는 국가마다, 지역마다 상이하다. 일례로 각국의 정치사에서 중요한 족적을 남겼던 여성역사인물들은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각각 활동을 벌였으며, 그에 따라 그녀와 관련된 유적이나 유물은 특수한 의미를 부여받는다.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에서는 공통점과 함께 이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민족적 단일성을 추구하는 국가공동체와 달리 탈국가적 공동체는 역사적 특수성의 이해와 문화적 다양성의 증진을 기초로 형성,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적콘텐츠생산 네트워크에서는 서로 비교 가능한 여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동북아 여성들의 삶과 역사적 경험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여성들이 이끌어왔던 문화교류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민족국가의 틀을 넘어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서로 연결된 동북아를 '상상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각국의 여성들이 만들고 계승해온 다양한 여성문화유산이 지니는 풍부한 의미를 이해하고 인정함으로써 다양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공동체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성 인지적(gender sensitive) 관점을 통합한 탈국가적 역사담론을 형성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동북아 3개국의 학자와 시민이 공동으로 민족국가의 틀을 넘어 동북아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결과물인 『미래를 여는 역사』 교과서를 생산

한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근대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 여성사를 구성하고 공동교재를 제작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한층 발전시켜 동북아의 전 역사시기를 통괄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역사를 재구성 작업이 네트워크의 주된 과제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⑵ 프로그램 네트워크

지식콘텐츠 네트워크는 탈국가적 공동체의 추진에 부합하는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의 방향을 정립하고 그 기반인 지식콘텐츠 생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프로그램 네트워크는 지식콘텐츠를 활용해 동북아 각국의 시민들이 동북아 차원에서 여성의 삶과 역사를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는데 주요한 기능이 있다. 프로그램 네트워크는 여성문화유산에 특화되었거나 그와 관련해 사업을 전개하는 여성단체나 전시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여 여성문화유산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참여하며, 나아가 동북아 차원의 공동 교육이나 축제 또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는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과제는 기존의 교류가 지니는 한계, 즉 일부 여성문화유산의 외형적 측면만을 피상적으로 경험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탈국가적 관점에서 구성된 여성문화유산 지식콘텐츠 가운데 핵심적 여성문화유산을 발굴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네트워크에서는 동북아 차원의 문화교류를 이끌었던 여성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면서 관련된 유적과 유물을 경험하는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루트'를 설정하거나 지도를 제작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북아 직조 교류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각국의 직조 현황을 살펴보는 '직녀루트' 내지 '봉의공녀루트'를 개발하여 동북아 여성의 노동과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 각국의 여성 거장을 한자리에 모아 제시하는 시리지 전시를 기획하거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연대를 추진했던 여성 인물의 유물을 각국을 돌며 전시하는 프로그램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동북아 각국의 여학생들이 함께 모여 여성문화유산의 의미를 되새겨봄으로써 여성의 눈으로 동북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생각해보는 [동북아의 할머니와 딸들 캠프(가칭)]도 고려해봄직하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동북아의 관련 기구와 단체가 공동으로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작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3) 기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허브

지식콘텐츠 생산과 프로그램 교류가 장기적, 체계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여성문화유산 관련 기구와 단체가 공히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확고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는 프로젝트 차원의 교류를 통해 성장한 네트워크 자원, 즉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정보 생산에 상호 협력하면서 형성된 학회와 연구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했던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출발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각국의 여성문화유산 정책을 추진하고 동북아 차원의 공동정책을 담당해야 할 정부기구 네트워크가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동북아 각국 정부의 여성문화유산정책의 수준을 볼 때 프로젝트 차원의 네트워크에서는 학계나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부 기구가 적극적 역할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식콘텐츠생산과 프로그램 기획,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의 발달과 함께 정부의 여성문화유산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담당부처가 지정되고 정책 방향도 명확해진다면 향후에는 정부기구간 네트워크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각국 정부기구와 민간단체, 학회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

크에서는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방향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며 네트워크의 주요방향이 국내의 정책과 사업에도 통합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가 동북아 지역의 여성문화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단체를 포괄하여 탈국가적 차원에서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의미를 형성, 확산하기 위한 다각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차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은 초기에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특정 기구나 단체가 담당할 수도 있지만, 점차 네트워크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활동 범위가 확대된다면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중심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중심기구는 네트워크 참여 기구와 단체 간 연락 기구이자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활동, 구체적으로는 지식콘텐츠 생산과 공동프로그램 추진을 총괄하고 관련 기구와 단체가 참여하는 정기 협의회를 조직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각국의 기구와 단체 정보, 프로그램 정보 및 지식콘텐츠 생산 네트워크 활동성과를 토대로 한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지식정보 DB 등을 구축하여 동북아 전역에 확산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4. 향후과제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는 동북아 3개국의 관련 기구와 단체, 전문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여성문화유산에 특화된 기구와 단체가 형성되는 등 조직역량도 갖춰져 가고 있다. 특히, 동북아 네트워크에서 핵심을 할 학계와 민간단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민족국가를 넘어 관심의 지평을 넓히려는 움직임도 활발한 만큼, 네트워크 구축에 특히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된

다.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고 우리정부와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의 형성과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가.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심화

여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여성문화유산 일반 또는 특정한 여성문화유산에 특화된 박물관, 전시관이 생겨나고 몇몇 단체를 중심으로 유형, 무형의 여성문화유산을 통해 역사적 주체로서 여성의 위상을 재발견하고 여성의 삶과 역사의 생생한 측면을 조명하려는 실천이 전개되는 등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의 범위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다양한 여성문화유산 가운데 몇몇 여성인물과 관련된 유적이나 유물, 지역의 특수한 물질문화유산에만 관심이 집중될 뿐이며, 그마저도 해당 요소가 지니는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풍부한 의미를 형성하고 확산하는데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유물이나 유적의 물질적 측면만을 강조하거나 물질문화유산의 형태적 아름다움과 생산기술의 정교함을 표상하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는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진전에 활용될 네트워크 자원으로서 여성문화유산의 가치 발굴과 확산을 추구하는 만큼, 다양한 여성문화유산을 통해 동북아를 무대로 살아왔던 여성들의 역사적 발자취와 생활경험에 접근함으로써 동북아를 '상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여성문화유산으로 관심의 범위를 넓히고 물질적 차원 뿐 아니라 의미론적 부분까지 관심의 깊이를 더해야 할 것이다. 이와 여성문화유산의 생산자를 통해 각종 문화유산의 존재가 직접 확인되고 경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탈국가적 접근의 활성화

여성문화유산이 민족국가에 의해 구분된 동북아가 아닌 다양한 교류를 통해 연결된 동북아를 '상상'할 수 있는 상징적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탈국가적 관점에서 여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실천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간 학계 일부와 여성단체에서는 일본 측 학자나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민족국가의 틀을 벗어나 동북아 역사의 전개 속에서 여성의 위상을 정립하고 그와 관련된 주요한 유무형의 상징을 발굴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민족국가의 틀 속에 머물러 민족역사의 전개과정에서 의미 있는 여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그 의미를 형성하는데 주력했을 뿐, 동북아 다른 국가의 여성문화유산이나 동북아 차원의 교류과정에서 형성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가족이나 민족을 더 이상 기의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포함되지 않는"(김은실 1994:42) 민족국가중심의 역사담론 하에서 생겨난 것으로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를 포함해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진전을 저해하는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는데, 우선 인식의 지평을 동북아 차원으로 확대하여 다른 국가의 여성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여성문화유산과의 비교를 통해 여성들의 삶과 역사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한편 다양성을 이해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점차 탈 민족국가적 관점에서 여성문화유산의 존재를 발굴하고 가치를 형성하는 작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동북아 여성', '동북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야 할 것이다.

다. 다자간 교류 역량 강화

여성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교류는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비해 중국과의 교류는 학계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시도되는 단계에 있다. 동북아 근대사에 있어 일본의 위치를 고려할 때,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공동체의 진전을 저해하는 역사의 걸림돌을 낮추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 동북아 차원의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발전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집중되어 있던 교류의 범위를 넓혀 중국의 여성사 학계와 여성문화유산 관련 단체, 전시관 등과의 교류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 중, 일이 공히 참여하는 동북아 차원의 다자간 교류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라.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정보 축적

여성문화유산을 통해 서로 연결 동북아를 '상상'할 수 있으려면 각국의 다양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정보의 축적과 함께 동북아 차원에서 의미 있는 유산을 발굴하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여성문화유산 지식정보에 대한 갈증은 상당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제시대를 중심으로 위안부나 신여성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동북아 차원의 새로운 여성문화유산을 발굴하는 작업도 한층 활기를 띨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연구가 지역사나 민족사 차원에서 일부 여성문화유산을 발굴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시대적으로도 근대에 치중하고 있어 지역적, 시대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지식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갈 주체로서의 여성의 위상을 제시하고 그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성문화유산을 발굴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여성문화유산에 관해 국내외의 학계와 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렴, 확산될 수 있는 기제로서 지식정보

DB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사 전시관의 여성사 아카이브나 한국여성개발원이 구축한 한국여성사 지식정보DB 등을 기초로 하여 동북아 각국의 연구성과를 결합하여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DB(가칭)]를 구축하는 방안은 고려해볼 만하다.

마. 여성문화유산정책의 확립과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의 정책 의제화

그간 여성문화유산과 관련된 교류는 민간부문의 전문가와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에 비해 정부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기반 위에서 동북아를 포괄한 네트워크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노력 이외에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은 지극히 미약한 상황이며 최근 들어 추진기반이 더욱 약화되고 있어 정책 방향의 수립과 정책추진체계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국가 차원의 여성문화유산 중심기구로서 여성사 전시관의 위상을 확립하여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네트워크 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넓혀가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 방향이 다소 불분명하고 정책수단도 제한되어 있는 만큼 정책방향을 분명히 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일부 여성문화유산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단계를 넘어 동북아 차원의 여성문화유산을 정책범주에 통합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의 목적에 맞는 학술 연구나 민간단체의 프로그램, 동북아 차원의 협력사업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프라, 즉 정보 DB와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기반을 갖추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여성발전기금이나 국제교류기금 등을 활용하거나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를 포함해 동북아 여성교류를 위한 별도의 [동북아 여성문화기금(가칭)]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의 본격적 발전에 대비해 허브기능을 담당할 기구를 설치, 육성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 여성사 전시관을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박물관(가칭)]으로 확대 개편하여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를 기획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동북아 대중들이 각국의 여성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의 삶과 역사의 다양성과 공통점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평화롭고 평등한 동북아 미래에 대한 비전을 형성하는 매우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강원도 부녀복지과. 『강원도여성사』. 1996.

경기도(편). 『경기도 전통종가 여성생활사』. 2004.

경북여성개발원. 『경북여성사』. 2004.

김선자. 『중국 변형신화의 세계』. 범우사, 2002.

김이선·주영하·권희정.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통일연구원, 2004.

마저리 울프, 문옥표 역. 『현대 중국의 여성』. 한울, 1988.

문옥표 외. 『동아시아 문화전통과 한국사회 : 한·중·문화비교를 위한 분석틀의 모색』. 백산서당, 2001.

문옥표 외. 『신여성: 한국과 일본의 근대 여성상』. 청년사, 2003.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교육·연구단(편). 『동아시아 민족주의의 장벽을 넘어: 갈등의 시대로부터 화해의 시대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岸邊成雄(편), 천이두 역. 『중국여성 사회사』. 일월서각, 1992.

앤더슨, 베네딕트, 윤형숙 역.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상상의 공동체』. 서울: 나남, 1991.

양애경·김이선·김양희. 『여성문화유산의 현황과 지역문화자원으로의 활용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004.

우에노 치즈코.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이나미 리츠코, 김석희 역. 『중국사의 슈퍼 히로인들』. 작가정신, 2004.

이스라엘 엡스타인, 이양자 역. 『20세기 중국을 빛낸 위대한 여성 쑹칭링』(상·하). 한울, 2000.

이영자. 『중국여성 잔혹풍속사』. 에디터, 2003.

이화여대 중국여성사연구실(편). 『중국 여성, 신화에서 혁명까지』. 서해문집, 2005.
정현백. 『민족과 페미니즘』. 당대, 2003.
제주도(편). 『제주여성 전승문화』. 2005.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깨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 2001.
_____.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 사진자료집』. 2001.
_____. 『제주여성, 일상적 삶과 그 자취』. 2002.
_____. 『제주여성, 시대를 어떻게 만났을까』. 2003.
_____. 『구술(口述)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2004.
_____. 『시대를 앞서간 제주여성』. 2005.
조문윤·왕쌍회 (김택중 외 역). 『무측천 평전: 중국 유일 여황제』. 책과함께, 2004.
중국전국부녀연합회(편) (한국여성개발원 역). 『중국여성운동사』. 한국여성개발원, 1991.
쭝청 (김미란 역). 『딩링: 루쉰이 길러낸 행동주의 작가』. 다섯수레, 1998.
하가 토오루. 『명치유신과 일본인』. 도서출판 예하, 1989.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서울: 청년사, 1999.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편). 『한국여성사』. 서울: 풀빛, 1992.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미래를 여는 역사』. 한겨레신문사, 2005.
Scott, Joan Wallach.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N.Y.: Columbia University Pr., 1988.
嚴汝嫻·劉宇. 『中國少數民族婚喪風俗』. 商務印書館, 1996.
田繼周 等. 『少數民族與中華文化』. 上海: 人民出版社, 1984.
中國社會科學院 婦女研究中心. 『轉型社會中的中國婦女』.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

陳東原.『中國婦女生活史』. 臺灣: 商務印書館, 1981.
近世女性史研究會. 『(論集)近世女性史 (논집 근세여성사)』. 吉川弘文館, 1986.
金谷千慧子. 『日本民衆と女性の歷史: 近·現代編 (일본민중과 여서의 역사: 근·현대편)』. 明石書店, 1991.
女性史事典編集委員會. 『日本女性史事典 (일본여성사 사전)』. 新人物往來社, 2002.
鈴木京子 外.『女たちの便利帳5 (여성들을 위한 편리한 수첩 5)』.教育史料 出版會, 2004.
鹿野正直. 『現代日本 女性史: フェミニズムを軸として (현대일본여성사: 페미니즘을 축으로)』. 有斐閣, 2004.
山下悅子. 『日本 女性解放 思想の 起源 : ポスト·フェミニズム試論 (일본 여성해방 사상의 기원: 포스트 페미니즘 시론)』. 海鳴社, 1988.
杉山明子. 『日本の女性の生き方 (일본여성의 삶의 방식)』. 出光書店, 1983.
小島恒久. 『動く女性 百年のあゆみ (일하는 여성 백년의 발자취)』. 河出書房新社, 1983.
水江漣子. 『近世史のなかの女たち (근세사 속의 여성들)』. 日本放送出版協會, 1983.
阿部恒久·佐藤能丸. 『日本近現代女性史 : 通史と史料 (일본근현대 여성사: 통사와 사료)』. 芙蓉書房出版, 2000.
外崎光廣.『日本婦人論史 (일본부인론사)』(上,下). ドメス出版, 1986.
長野ひろ子. 『日本 近世 ジェンダー論 (일본근세 젠더론)』. 吉川弘文館, 2003.
(財)市川房枝記念会. 『女性団体名簿 (여성단체명부)』. 2004.
折井美耶子.『地域女性史入門 (지역여성사 입문)』. ドメス出版, 2001.
井上清.『(新版)日本女性史 (신판 일본여성사)』. 三一書房, 1986.

總合女性史研究會. 『日本女性の歷史: 文化と思想 (일본여성의 역사: 문화와 사상)』. 角川書店, 1993.
(財)横浜市女性協会. 『女性施設ジャーナル (여성시설 저널)』. 学陽書房, 1996.
後藤敏夫. 『日本女性勞動史のための序章 (일본여성노동사를 위한 서장)』. 城西大學女子短期大學部, 1987.
姫岡とし子. 『ジェンダー化する社會 (젠더화하는 사회)』. 岩波書店, 2004.
アリス ベーコン.『明治日本の女たち (메이지 일본의 여성들)』. みすず書房, 2003.

2. 논 문

권숙인. "일본제국시대(1868-1945)의 여성의 지위: 정치적 보수주의와 "양처현모"이념의 대두". 『한국문화인류학』. 30(1), 한국문화인류학회, 1997.
김문희. "고교교과서에 나타난 중국 여성관계 기술에 대한 고찰," 『중국사연구』. 20, 2002.
김미영. "한·일 여성민속의 비교연구 :여성의 생식력을 중심으로," 『比較民俗學』. 제24집, 비교민속학회, 2003.
김미현·황도경·곽승미. "한국현대여성문학사-소설: 여성언어의 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113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김상주. "蕭紅의 삶과 산문배경론(1)." 『중국인문과학』. 12집, 중국인문학회, 1993.
_____. "蕭紅의 삶과 산문배경론(2)." 『중국인문과학』. 13집, 중국인문학회, 1994.
김선주. "신화 속의 여성상, 아황과 여영." 이화여자대학교 중국여성

사연구실(편). 『중국 여성, 신화에서 혁명까지』. 서해문집, 2005.
김성희. “북위의 실질적 통치자, 문명태후와 그 시대.” 이화여자대학교 중국여성사연구실(편). 『중국 여성, 신화에서 혁명까지』. 서해문집, 2005.
김승심. “唐詩에 나타난 여성상과 여성관: 李冶·薛濤·魚玄機의 여류 시인 작품을 중심으로.” 『중국인문과학』10집, 중국인문학회, 1991.
김유리. “중국 교육과정의 변천과 역사교육.” 『근대중국연구』. 2집, 2001.
김은실. “민족주의 담론과 여성: 문화, 권력, 주체에 관한 비판적 읽기를 위하여.” 『한국여성학』. 10집, 한국여성학회, 1994.
김인숙. “중국여성사연구 100년.” 『중국사연구』. 7권, 중국사학회, 1999.
김종건. “중국 역사교과서상의 중국근대사 내용과 변화 검토.” 『중국근현대사연구』. 23집, 2004.
김지훈·정영순. “최근 중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한국사.” 『중국근현대사연구』. 23집, 2004.
김 철. “일본 여성운동의 선구자 市川房技여사.” 『新東亞』 210, 동아일보사, 1982.
문현실. “천하를 지배한 여인들, 후한의 여섯 황후.” 이화여자대학교 중국여성사연구실(편). 『중국 여성, 신화에서 혁명까지』. 서해문집, 2005.
박자영. “‘가사’ 및 ‘가정’ 과목의 탄생: 중국 현대여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중국학연구』. 29권, 중국학연구회, 2004.
박혜란. “문화, 국가, 그리고 중국여성.” 『사상』. 가을호, 사회과학원, 1993.
배진영. “백호에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중국 여신 서왕모.” 이화여자

대학교 중국여성사연구실(편). 『중국 여성, 신화에서 혁명까지』. 서해문집, 2005.
서정민. “동아시아 민족 담론과 여성.” 한국여성연구원 특강자료(미발간), 2005.
석미자. “청말 추진의 여성해방운동.” 『중국근현대사연구』. 26권, 중국근현대사학회, 2005.
송정화. “중국 여성숭배의 철학, 종교적 수용에 대한 小考.” 『중국도교문화연구』. 21권, 한국도교문화학회, 2004.
신남주. “19세기 한·중·일 여성근대의식 형성에 관한 비교연구.” 『論文集』. 제19권 제2호, 東南保健大學, 2001.
심소희. “중국의 여성문자 연구.” 『중국언어연구』. 16권, 한국중국언어학회, 2003.
유희재. “唐代才華여류시인 ‘薛濤’.” 『중국어문학』. 20집, 영남중국어문학회, 1992.
윤택림. “민족주의 담론과 여성: 여성주의 역사학(feminist historiography)에 대한 시론.” 『한국여성학』. 10집, 한국여성학회, 1994.
윤혜영. “정령, 혁명 속 신여성의 고뇌.” 이화여자대학교 중국여성사연구실(편). 『중국 여성, 신화에서 혁명까지』. 서해문집, 2005.
이명화. “한대 여성의 삶과 법적 지위.” 이화여자대학교 중국여성사연구실(편). 『중국 여성, 신화에서 혁명까지』. 서해문집, 2005.
이성재. “일본 여성가극 寶塚(타카라즈카)의 근대성: 東京과 大阪의 논쟁을 중심으로.” 『중앙우수논문집』. 제5집, 중앙대학교대학원, 2003.
이승은. “개혁·개방 이후 달라진 현대 중국 여성의 삶.” 이화여자대학교 중국여성사연구실(편). 『중국 여성, 신화에서 혁명까지』.

서해문집, 2005.
이양자. “쑹칭링과 하향응: 孫文遺志의 계승과 여성운동을 중심으로.”『중국사연구』. 3권, 중국사학회, 1998.
이옥자. “모계사회문화에서의 여성과 가정: 중국 노고호 마사 모계사회문화를 중심으로.”『여성가족생활연구』. 8권, 명지대학교 여성가족생활연구소, 2004.
이홍걸. “중국 소수민족여성과 한족여성의 문화적 비교연구.”『민족과 문화』. 9권, 한양대학교 민족학연구소, 2000.
정현백.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비교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정현백.『민족과 페미니즘』. 당대, 2002.
지현숙. “최근 중국의 민국시기 여성사 연구동향.”『중국사연구』. 12권, 중국사학회, 2001.
주영하. “동아시아 민속학에서의 민족과 국가:20세기 초반을 중심으로.”『정신문화연구』. 제27권 제3호(통권96호), 한국정신문화연구소, 2004.
천성림. “중국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선구자, 何震.”『중국근대연구』2권, 중국근대사학회, 2001.
郝時遠. “중국의 女書와 그 인류학적 의미.”『민족과 문화』. 9권, 한양대학교 민족학연구소, 2000.
홍우흠. “李淸照의 생애와 문학.”『여성문제연구』. 10권,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1.
Apparadui, Arjun. “Disjuncture and Difference in the Global Cultural Economy”. Mike Featherstone (eds.). *Global Culture: Nationalism, Globalization and Modernity*. London: Sage Pbs.., 1990.
Friedman, Jonathan. “Being in the World: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Mike Featherstone (eds.). *Global Culture: Nationalism, Globalization and Modernity*. London:

Sage Pbs.,. 1990.
Gilmartin, Christina. “중국 국민혁명(1924-27)에서의 성, 정치문화 및 여성동원.”『아시아문화』. 9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3.
Peleggi, Maurizo. “National Heritage and Global Tourism in Thailand”.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2), 1996.
Richards, Greg. “문화관광의 정책적 배경”. Richards, Greg(편저). 『문화관광론 (Cultural Tourism in Europe)』. 백산출판사, 2000.
金炳鎬. “中國少數民族女性文化.”『民族과 文化』. 9집. 漢陽大學校 民族學硏究所, 2000.
馬公偉. “當代女性藝術與女性主義藝術批評.” 『河南大學學報』. 44卷 5期, 2004.
芳賀徹. “女たちの近代日本 (여성들의 근대일본).”『日語日文學硏究』. 30, 한국일어일문학회, 1997.
沈海梅.“青銅文明與女性民俗.”『學術探索』2期, 2004.
易小松. “民俗文化視野中的女性硏究.”『西南民族大學學報』. 25卷 3期, 2004.
冉小平. “女性自我的建構: 當代女性書寫的主體呈現及其內涵.”『中南民族大學學報』. 24卷 5期, 2004.
尹旦萍. “新文化運動時期女性主義思潮的崛起.” 『湖北行政學院學報』 14期, 2004.
張新藥. “雲南少數民族民間文學中蘊涵的女性文化特徵.” 『青島科技大學學報』. 20卷 2期, 2004.
田端かや. “근대 이후 일본여성의 문화와 삶: 제 4회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을 받고.”『民族과文化』. 9, 한영대학교 민족학연구소, 2000.
中山亞紀子. “日本近世における規範的 女性像;女子用往來物を通して

(일본근세에 있어서의 규범적 여성상).”『人文論叢』. 6,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4.
さくら古久保. “1930년대 모성을 기축으로 한 여성의 통합에 대하여; 大日本連合婦人會機關誌 「家庭」의 言說을 중심으로.”『아시아문화』. 9, 한림대학교 아시아 문화연구소, 1993.

3. 기타자료

〈http://166.111.4.131/nushu/index.htm〉.
〈http://europa.eu.int/comm/culture/eac/culture2000/historique/raphael_en.htm〉.
〈http://h21.hani.co.kr/section-021115000/2005/07/02111500020050707056705 4.html〉.
〈http://homepage3.nifty.com/chinesewomen/〉.
〈http://mews.media.daum.net/snews/economic/industry/20060 9/26/yonhap/v10267081.htm〉.
〈http://mzh.china5000.cn〉.
〈http://qiujin.chinaspirit.net.cn〉.
〈http://www.ajwrc.org〉.
〈http://www.alleyeshot.com〉.
〈http://www.anumm.com〉.
〈http://www.ccnt.com.cn〉.
〈http://www.chinaculture.org〉.
〈http://www.china-woman.com〉.
〈http://www.europa.eu.int/scadplus/leg/en/lvb/l29006.htm〉.
〈http://www.gender.go.jp〉.
〈http://www.hermuseum.go.kr〉.
〈http://www.hy-ns.com〉.

〈http://www.ichikawa-fusae.or.jp〉.
〈http://www.imow.org〉.
〈http://www.jejusamda.com〉.
〈http://www.kfaw.or.jp/forum_katsudou.html〉.
〈http://www.lib.scuec.edu.cn/nsyi〉.
〈http://www.mcprc.gov.cn〉.
〈http://www.nmwh.org〉.
〈http://www.nwhp.org〉.
〈http://www.snnu.edu.cn/wcm〉.
〈http://www.soc.nii.ac.jp/srwh/index.htm〉.
〈http://www.swc-cfc.go.ca〉.
〈http://www.swu.ac.jp/graduate/research/josei〉.
〈http://www.tachibana-u.ac.jp/official/iwhc/index.html〉.
〈http://www.taitocity.net/taito/ichiyo〉.
〈http://www.thewomensmuseum.org〉.
〈http://www.wam-peace.org〉.
〈http://www.wmcn.com/arts〉.
〈http://www.women.org.cn〉.
〈http://www.womenhistory.re.kr:7070〉.
〈http://www.wsic.ac.cn/Cwrs〉.
〈http://www004.upp.so-net.ne.jp/igsw/〉.
〈http://www7a.biglobe.ne.jp/-genderhistory〉.

부 록

〈부록-1〉 중국 민간문화유산 구조 긴급공정(中國民間文化遺産搶救工程)의 목적과 의의

목 적	공산당의 16대 보고정신을 관철시켜, 민간문화유산을 전면적으로 구조·보호하고 중화문명을 전승함으로써,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선진문화 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풍부한 인민군중의 문화생활에 기여한다.
의 의	민간문화에 대한 최초의 국가 차원에서의 구조·전면조사·정리출판 작업이며, 문화의 뿌리를 찾고 민중들의 문화의식을 높이며 우수한 문화유산을 보급하고, 전세계 경제가 점점 일체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문화실력을 키우고 국가문화주권을 건설하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활 동 계 획	1차: 2003-2007년 - 전국민간미술에 대해 발굴조사와 수집·출판 - 전국민속에 대해 발굴조사와 정리출판 - '중국민속' 제목의 대형 TV시리즈물과 음반 발행 - '중국민간문화 도판자료집'을 내고 '중국민간문화' 웹사이트 구축 2차: 2008-2012년 -『중국민속지1』 시리즈,『중국민속도록』,『중국민속분포지도집』 정리출판 - '중국민간문화유산대표작 목록' 확정 - 중국의 구전·무형문화유산 대표작을 유엔에 등록신청 -『중국민간서사 장편시 집성』 편찬 -『중국 역사시 집성』 편찬 -『중국민간미술집성』 편찬 -『중국민간미술분포지도집』 편찬

〈부록-2〉 중화전국부녀연합회

기 능	부련은 전국 각계 여성들이 공산당 영도하에서 진일보한 해방을 위해 모인 대표적 조직이다. 부련은 중국공산당 · 중국정부와 여성군중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는 국가정권의 중요한 기둥이다. 기본 기능은, 광범한 여성들이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에 참여하도록 단결시키고 동원하며,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표하고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것이다.
임 무	1) 여성이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기여하도록 단결시키고 동원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의 전면적 진보를 촉진한다 2) 광범한 여성들을 교육시키고 이끌어, 자존·자신·자강 정신을 키우고 소질을 높여서 여성인재의 성장을 촉진한다 3) 여성을 대표하여 국가와 사회 사업의 민주적 관리·감독에 참여하고, 여성·아동 관련 법률·법규 제정에 참여하며, 여성·아동의 합법적 권익보호에 힘쓴다 4) 여성·아동을 위해 봉사한다. 사회 각계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여성·아동을 위해 일을 처리하도록 한다 5) 각계 여성의 대단결을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홍콩·대만지역 및 화교 여성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조국통일사업을 촉진한다. 세계 각국 여성들과의 우호적 교류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켜 세계평화를 지킨다.
조 직	국가의 행정구획에 따라 조직을 건설하여 민주집중제를 실행한다. 부련의 전국·지방 각급 지도기구는 전국·지방 각급 여성대표대회에서 선거로 구성된다. 기관과 사업단위에서 만든 부녀위원회, 기업의 여직원위원회와 그 이상의 각급 여직원위원회는 부련의 단체회원이다.

〈부록-3〉 중국부녀연구회 개요

사업 범위	1.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등소평이론을 중심으로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의 새로운 시기에 중대한 여성문제를 연구하며 각종 토론회・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중국 특색의 여성이론체계를 만들어낸다. 2. 전국적 여성연구역량을 조직하고 여성연구를 발전시켜 정부의 정책과 여성정책결정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3. 국내외 여성연구정보를 교류하고 국제학술활동을 통해 여성연구의 국제협력과 교류를 촉진한다. 4. 중국부녀연구 웹사이트를 만들어 크게 선전한다. 5. 여성학 학과 건설을 촉진한다.
활 동	'유엔 제4회 세계여성대회 5주년 심포지움'(2000년) '혼인법 개정과정에서 난점과 쟁점에 대한 심포지움'(2000년) '중국부녀의 정치참여에 대한 심포지움'(2001년) '대중매체와 여성발전 관련 심포지움'(2001년) '중국부녀 취업 논단'(2002년)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의 남녀평등이론 심포지움'(2003년) '샤오캉(小康)사회 전면건설과 양성평등 촉진 토론회'(2004년) 『부녀연구총서』 및 '부녀연구참고자료' 발간
2001년도 연구 과제 지침	1. 여성의 정치참여 연구 2. 다양하고 융통성있는 취업방식과 사회보장으로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 노동력시장정책 연구 3. 중국여성발전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연구 4.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여성기본이론 연구 5. 하이테크기술산업발전이 중국여성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연구 6. 서부대개발과 여성발전 연구 7. 여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법률에서의 양성평등원칙 연구 8. 제2차 중국여성의 사회적 지위 조사연구 9. 여성조직연구 10. 여성교육연구 11. 여성건강연구 12. 중국여성사연구 13. 국제여성문제연구
출판물 목록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여성이론 탐색』 『중국여성의 취업: 현황과 대책』 『세기의 전환기 중국여성의 사회적 지위』 『반세기동안의 여성발전: 중국여성 50년간의 이론연구논문집』 『중국여성의 출산건강연구』 『중국여성연구연감(1991-1995)』 『중국성별통계연감(1990-1995)』 『'세계와 함께 걸어가는 그녀들' 시리즈: 쑹칭링』 『20세기 중국여성』(화보책) 『중국여성의 사회적 지위 개관』

정책건의보고서 시리즈	“‘인구·계획생육법’ 실시가 여성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유동여성의 계획생육과 생식건강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건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의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건의” “인민대표대회에 여성 후보자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입법 건의” “남녀평등문제를 국가의 샤오캉(小康)사회 지표에 핵심지표로 넣는 방안 건의” “국가공무원 중 남녀가 같은 나이에 정년퇴직하는 문제에 대한 건의”
『부녀연구총서』(격월간) 2003년호 목차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과 광동여성의 발전 사회주의시장경제조건 하에서의 남녀불평등의 특징 농촌산업구조의 변화가 농촌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광동성 여성의 참정기제 연구 외래여공의 권익보장과 생존상황에 대한 조사연구 광동 성진(城鎭) 여성의 유연한 취업형태에 대한 조사연구 농촌여성의 非농민 전환 가속화에 대한 고찰 광주시(廣州市) 실업여성의 재취업 대책 연구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0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헌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향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외 공저	9,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2, No. 1 (2003)	9,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2, No. 2 (2003)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1 (200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2 (200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2005)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협동연구총서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Ⅰ)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김광억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억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Ⅱ)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헌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수 있습니다.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써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절

취

선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FAX	
	전자메일			
	ID		PW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일반회원 ( ) 학생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FAX: 901-2547)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 (예금주: 통일연구원)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